

#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8권 제2호 (통권 95호) / 2023. 6

#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2호 (통권 95호), 2023년 6월호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노아 시대의 맥락적 관점에서 방주 형태의 디자인적 재해석 | 이중섭 / 박찬송  
 Reinterpreting the Design of Noah's Ark in the Contextual Perspective of  
 Noah's Era | Joong Sup Lee / Chan Song Park
- 023 성경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의 화행론적 접근 -출애굽기 33:12-23과 관련하여 | 김상아  
 A Speech-act Theoretic Approach to Biblical Interpretation  
 - The Text of Exodus 33:12-23 | Sangah Kim
- 051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 김기흥  
 Inclusiv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Jesus Christ's  
 Disabled Healing Ministry in the Four Gospels | Ki Heung Kim
- 073 중독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이해-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그리스도교 교양을 중심으로 | 남규열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world-view on the addiction:  
 focusing on Augustine's CONFESSIONES and DE DOCTRINA CHRISTIANA | Gyuyeol Nam
- 095 그룬트비의 경제사상: 그 발전과정과 배경 | 이명헌  
 The development and backgrounds of Economic thoughts of Grundtvig | Myungheon LEE
- 137 한국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공동체성 | 김성원  
 Bipo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and the Trinitarian Communality | Sungwon Kim
- 165 모리스 센닥 그림책의 심리 해석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조명  
 - Vanhoozer의 문화 해석 관점을 중심으로 | 이수형 / 박은주  
 An Analytic Study of Christian Worldview about Maurice Sendak  
 Picturebook within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Interpretation of Vanhoozer | Soo Hyung Lee / Eun Ju Park





# 노아 시대의 맥락적 관점에서 방주 형태의 디자인적 재해석\*

## Reinterpreting the Design of Noah's Ark in the Contextual Perspective of Noah's Era

이 중 섭(Joong Sup Lee)\*\*

박 찬 송(Chan Song Park)\*\*\*

### ABSTRACT

From a human perspective, God's involvement in the world is often referred to as miracles. This can be divided into direct intervention by God and indirect intervention through humans. For example, parting the Red Sea in the Exodus story is a direct intervention, while bringing the Israelite there through Moses is an indirect one. Indirect involvement in the Bible is given through God's commands to chosen humans, which may be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to carry out because the impossible parts are done through God's direct intervention. In other words, if God commands a human to do something, it is something that can be accomplished by human ability.

Currently, the typical form of Noah's Ark that people know is impossible to construct in the historical,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text of the Noah's era around 2300 BC. However, because things that were impossible for Noah, such as gathering animals onto the Ark, were achieved through God's direct intervention, building the Ark may have been difficult, but it could have been within the abilities of Noah's family.

From this perspective, a new form of the Ark that could have been constructed in Noah's time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aking into account the historical context of Noah's era and identifying various issues with the typical form of the Ark that people currently have.

**Key words:** the Ark, Vine, Ship building, Hibernation, Temperature maintenance

\* 2023년 5월 15일 접수, 6월 5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제202100580001호에 의한 것임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교수,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joongsup@handong.edu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교수,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spark@handong.edu

## I. 서론

### 1. 연구 목적

성경은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 계시로 기록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이적(異跡) 중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사건’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역사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무신론자, 이성주의자, 인본주의자, 과학주의자, 진화론자들에게 그 진위(眞僞)에 대하여 많은 관심 및 비판이 있는 사건이다.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이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기록한 모세 5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기록된 최초의 인류가 타락 함에 따라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다. 그중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물 중 정결한 동물 일곱 쌍과 정결하지 못한 동물 한 쌍만이 살아남은 사건이다. 대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제작하기 위한 절차와 크기와 용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사건의 진위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 외에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노아의 방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자료 및 교육자료에서 방주는 공통된 몇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현재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주 형태에 대한 역사적, 기술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구조적으로 재해석하여 당시의 기술과 환경에서도 제조할 수 있는 방주의 형태를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현재 보편적으로 알려진 노아의 방주 형태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형태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본다.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으로 방주 사건과 동시대 문명에서 사용되었던 기술과 도구 등을 살펴보고 방주 제작 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었을 기술적 범위를 정의한다. 두 번째,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주 제작 시 고려되었을 요소들을 정의한다. 세 번째로 환경적 관점에서 대홍수사건이 일어난 시점의 방주 내부와 외부의 상황을 맥락적으로 정의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정의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학술논문을 비롯한 간행물과 관련 도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 역사적,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정의하고, 정의한 문제에 대한 디자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범위를 정한다.

### 3. 방주의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대홍수 사건을 주제로 한 문헌이나 예술작품의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중에 방주의 형태가 온전히 보이는 미술 작품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1483년에 독일에서 발행된 Nuremberg Chronicle에 수록된 목판화에 등장하는 방주(Figure 1)와 Simon de Myle의 1570년 유화 작품인 ‘Noah’s ark on the Mount Ararat’(Figure 2)과 르네상스 시대의 그리스 화가 Theodore Poulakis에 의해 17세기 후반에 템페라 화로 제작된 ‘Noah’s Ark’(Figure 3), 그리고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소장된 Edward Hicks의 1846년 작 유화 ‘Noah’s Ark’(Figure 4)까지 시대별로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방주의 형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방주의 외형은 유선형의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형적인 항해에 적합한 선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 방주에 사용된 목재가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가공된 널빤지를 이어 붙여 만들어진 형태이다. 셋째, 방주에 탑승하고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 다 자란 성체의 크기로 직접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Figure 1. Ark in the Nuremberg Chronicle, 1483.



Figure 2. ‘Noah's ark on the Mount Ararat’ of Simon de Myle, 1570.



Figure 3. ‘Noah’s Ark’ of Theodore Poulakis, The late 17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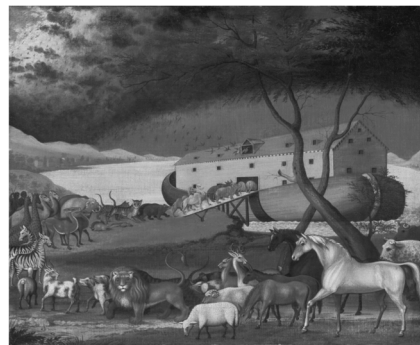


Figure 4. ‘Noah’s Ark’ of Edward Hicks, 1846.

예술작품에서 발견되고 있는 방주 형태뿐만 아니라 현대에 제작된 대표적인 두 가지 방주 모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2012년 네덜란드 Dordrecht에 Johan Huibers가 제작한 방주(Figure 5)와 2016년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에 제작된 테마파크인 Ark Encounter(Figure 6)의 경우도 앞서 언급했던 예술작품에서 보이는 방주의 형태적인 특징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Figure 5. Real Noah's Ark of Johan Huibers, 2012.



Figure 6. Ark Encounter in Williamstown, Kentucky, 2016.

이러한 예술적, 역사적, 교육적 자료들로 인하여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선입견을 성경에 제시된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Table 1).

선입견	차이점
외부 유선형의 굴곡으로 항해에 적합	물 위에 떠다니는 방주라 언급
일정한 크기 및 모양의 널빤지 사용	고페르 나무와 자세한 구조 언급
성체의 크기로 탑승한 동물들	탑승한 동물들의 크기에 대한 언급 없음

Table 1. Stereotypes and Differences in Ark Shape

이 차이점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통되게 보이는 널빤지의 경우 널빤지를 이어 붙이기 위해서는 내부에 단단한 기본 골격구조가 요구되고 그 위에 널빤지를 붙여야 하는데 기원전 2,300년이라는 시기와 방주의 크기 그리고 그 시대의 기술을 고려해 보았을 때 건조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유선형의 굴곡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방주의 형태도 방주의 건조 목적을 고려해 보면 그 적절성을 확인해 봐야 하고, 탑승한 동물들을 대홍수 기간에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경에 제시된 기록과 대중들의 방주 형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의 차이점을 기술적, 역사적,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 및 정의한 후 해결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주 디자인을 제안할 것이다.

## II. 기술적 관점

### 1. 동시대 선박 형태

홍수가 땅에 사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 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창 7:17-18)

위 말씀과 같이 노아의 방주 용도를 살펴보면 대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유선 형의 굴곡을 가진 항해가 목적인 선박의 형태보다 단순히 바닷물에 뜨고 가라앉지 않는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충분하다. 최초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이집트 제5왕조 사후라왕(Sahura) 사원의 부조에 나타난다(Figure 7). 그 함선의 길이는 17.5m, 폭 4m 정도로, 두께 10cm 길이 약 1m 정도의 널빤지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배들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16개 내외의 노와 사다리꼴 돛과 정박을 위한 닻을 가지고 있었다(Gilbert, 2008: 33).



Figure 7. A seagoing ship from the reign of King Sahura. Source: Ancient Egyptian Sea Power: And the Origin of Maritime Forces, p.48

또한 기원전 210년에 프톨레마이오스 4세(Ptolemy IV)가 건조한 테싸라콘테레스(Tessarakonteres)라는 거대한 선박은 길이 약 130m, 높이 약 17m이며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규모 의 목선(Figure 8)으로 이 선박은 항해를 위해 4,000명의 노꾼이 필요했다는 기록이 있다(Pierce, 2000: 46-48). 하지만 노아 시대인 기원전 2,300년 경과 시기적으로도 큰 차이가 난다. 위 두 가지 경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아가 만든 것은 노와 돛과 닻이 필요 없는, 선박이 아닌 방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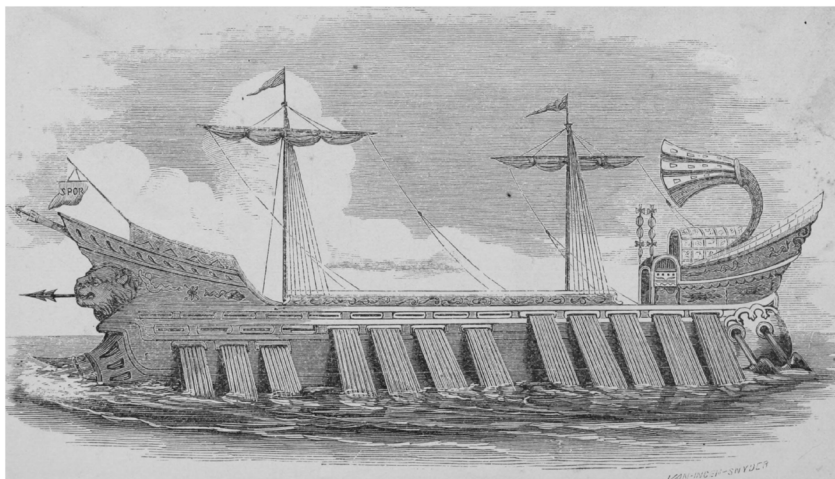


Figure 8. Tesseract Illustration 1858

## 2. 동시대 선박 제조 기술

성경에 의하면 방주의 규모는 길이 300규빗(cubit), 폭이 50규빗, 그리고 높이 30규빗이다(창 6:19). 규빗은 미터법으로 1규빗이 약 45.7cm에 해당하는 길이로, 환산하면 방주의 크기는 약 길이 137m, 폭 23m, 높이 14m이다. 내부 용적은 약 4만 3,200m<sup>3</sup>며 40ft 수출용 컨테이너 기준 340개에 해당하는 부피이다. 노아의 방주를 건조할 당시의 기술을 고려해 본다면 앞서 언급한 철기를 주로 사용하여 선박을 제조하던 테사라콘테레스와 비교해 2,000여 년 앞선 청동기 시대로, 선박 제조에 필요한 정교한 철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Figure 8에서 보이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형태와 잘 다듬어진 널빤지로 마감된 선박을 제조하는 것에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방주의 용도를 고려해 본다면 물살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보다 선택 받은 동물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컨테이너 역할로 충분하다. 다시 말해 항해를 위한 커다란 일체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 단단한 기본 골격구조가 요구되고 그 위에 널빤지를 붙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단지 보호를 위해 물 위에 떠 있는 용도라면 널빤지 형태로 가공할 필요가 없고 나무 본연의 크기와 형태를 이용한다면 방주 건조 시 선박 제작을 위한 특별한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다.

### III. 역사적 관점

#### 1. 성경에서의 방주 재료

방주 건조 시 성경에 나온 재료도 방주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설계지침에 대해 히브리어 원문과 언어별 번역본이 달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정의될 여지가 있다. 그중 재료에 대한 언급은 히브리어에 나오는 gopher wood(이하 고펜르 나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버전 외의 번역본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So make yourself an ark of cypress wood; make rooms in it and coat it with pitch inside and out(Genesis 6:14, NIV).

여기서 언급된 방주의 주재료인 Cypress wood(이하 사이프러스 나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고펜르 나무다. 사이프러스 나무로 번역된 이유는 고대인들이 조선 시 사용한 삼나무종의 상록침엽수 나무로 헬라어 ‘퀴파릿소스’와 ‘고펜르’ 발음에서 유사성을 지녔고, 히브리어 원문의 역청(瀝靑)으로 방주의 안팎을 칠하라는 것을 고려하여 송진이 많은 소나무의 일종으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 번역 시 수직으로 길게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와 유사한 잣나무 혹은 전나무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방주 주재료인 나무는 사이프러스 나무로 정의한다.

방주 제작에 사용되었을 사이프러스 나무를 살펴보면, 지중해에서 1,000년 넘게 자라며 최대 35m까지 크는 나무이다. 4만 3,200㎥ 부피의 방주에 필요한 목재는 뽕뽕한 배의 구조를 적용해도 부피의 20%인 약 8,200㎥다. 느리지만 네 명의 경험 있는 사람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사용하여 하루에 평균 0.42㎥(길이, 폭, 높이가 각각 75cm인 정육면체 크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한 해에 131㎥씩 지을 수 있다(주일은 쉬다고 가정). 전체 목재 부피 8,200㎥를 일 년 동안 가능한 양인 131㎥로 나누면 약 63년이 채 안 걸려 방주를 완성할 수 있고(이재만, 2005), 홍수가 발생하기까지의 약 100년의 세월 안에 방주를 만들기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 2. 성경에서의 방주 구조

다음으로 방주의 구조는 언어별 성경 모두 방과 창문, 출입구, 층수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단, 히브리어 원문에서 새롭게 해석될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한다.

- (1) rooms shalt thou make in the ark :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text{מִקְוֵה}$ (room)은 새들의 둥지(nest) 혹은 칸(cell)으로  $\text{בְּ$ (in)은 ~으로(with), 근처(near), 그리고 ~와 함께(together with)로 쓰였다. 기존 해석인 방주 안에 구성된 방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방들로 이루어진 방주로도 볼 수 있다.
- (2) A window shalt thou make to the ark :  $\text{חַלּוֹן}$ (window)은 단수형으로 쓰였는데 히브리어는 단수형과 복수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는 방주의 창이 여러 개가 아닌 하나의 창이었음을 의미한다.
- (3) and the door of the ark shalt thou set in the side thereof : 히브리어 해석의 경우에는 (side)의  $\text{צֶדֶד}$ 의미가 옆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람어로는 ‘그것의(thereof)’을 뜻하기도 한다.
- (4) with lower, second, and third stories shalt thou make it : 상중하의 구조를 지님으로써 방주가 3개의 층을 지님을 의미한다.

## IV. 환경적 관점

### 1. 방주 내부 환경

방주 내에 탑승할 동물에 관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창 6:19).

현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생물학계 보고에 의하면 학명을 얻은 생명체가 150만 종을 넘으며 이 중에서 식물이 약 50만 종이고 동물이 100만 종을 넘는다. 방주의 내부 용적이 4만 3,200m<sup>3</sup>기 때문에 동물 약 100만 종을 전부 방주 내에 들이기는 어렵고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동물들이 승선했을 것이다. 여기서 특정 조건이란 포유류의 경우 가장 어린 새끼 한 쌍과 양서류, 조류, 파충류나 곤충의 경우 수정란의 형태로 방주에 들어간다면 가능하다. 방주 내에 들어선 동물들의 수는 종(species)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분류학자인 Ernst Mayr의 문헌을 참고하여 17,600여 종으로 가정한다(Howells, 2008). 하지만 대홍수 기간 동안 17,600여 종의 동물 한 쌍씩을 8명으로 구성된 노아의



가족이 지속해서 먹이 조달 및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에버랜드는 2023년 기준 약 2,000마리의 동물을 300여 명의 사육사가 관리하고 있고 서울대공원도 2022년 기준 2,143마리를 500여 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7,600여 종의 동물 한 쌍 35,200여 마리를 관리하기 위해선 약 7,000명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먹이 공급 측면에서 먹이 섭취를 허락한다면 당연히 배변 활동도 동반하게 된다. 2020년 기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약 3만 마리의 가축을 기준으로 매일 17,000톤의 배설물이 발생하고(환경통계 포털, 2020) 이를 8명의 노아의 가족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육식동물의 경우 먹이 공급이란 다른 종의 멸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이 공급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방주 내에 동면 및 하면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동물이 먹이 섭취 및 배변 활동이 필요 없다면 가능하다. 수백만 년 전부터 시작된 빙하기를 거쳐 생존한 동물들의 생존방식이 동면이었음을 고려하면 약 1년간 지속되어 온 대홍수 기간에서도 방주 내에 온도를 맞출 수 있다면 그 동물들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동면과 하면 모두 수면과 비슷한 혼수상태의 일종으로, 동물들의 신진대사를 최소화하여 생체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이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문대연, 1999: 12).

## 2. 방주 외부 환경

동면 및 하면은 주변 외부 환경의 온도에 의해 동물에게 발현되는 현상이다. 이 상태의 동물들 체온은 외부 기온보다 1 또는 2도 정도 높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외부 온도는 영상 1도에서 5도 사이로 유지하고 동사를 피하고자 영하로 떨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강복순·강두희, 1972: 19). 따라서 대홍수 당시의 방주 외부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홍수에 관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11-12)

총 371일의 홍수 기간은 약 기원전 2,347년경으로 추정되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연대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오차 가능성이 있다(Panin, 2014: 118). 약 1년간 지속된 홍수로 인해 당시 지구의 기상환경은 오랜 시간 동안 내린 비와 흐린 대기 환경으로 인해 기온이 평소보다 낮았을 것이다. 물의 열전도율이 공기에 비해 32배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바닷물의 온도 또한 낮았을 것이다. 해양 해

수면의 온도는 극지방과 적도 등 위치에 따른 변화가 심하다. 태양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 2도 최고 섭씨 36도까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해저 500미터 이하의 수온약층과 바닷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해층의 경우 태양열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섭씨 1도로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Knauss & Garfield, 2016: 2). 대홍수 사건에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해수면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물 뿐만 아니라 궁창의 물까지 섞여 바닷물의 온도는 섭씨 영하 2도에서 3도 정도의 해수 평균 온도를 유지했을 것이고, 노아의 방주 1, 2층이 물에 잠겨있다면 방주 내부의 동물들에게 이 온도는 동면과 하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방주의 크기가 방주 중심부와 외벽 사이의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일정한 범위 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현대의 온도 유지 시스템을 살펴보면 액체나 기체의 온도를 변환하여 특정 위치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로 이를 위하여 원하는 온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 에너지를 통해 도달한 온도를 간직하고 있는 열 전달 물질(기체, 액체), 열 전달 물질을 적절한 위치에서 고정적으로 순환해 주는 3가지의 기술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났을 때의 온도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었던 환경적 자원은 나무, 역청, 날씨, 바다, 태양, 소수의 인력 정도이다. 노아의 방주 당시 한정적인 자원을 현대 온도 유지 시스템에 대입해 본다면 에너지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바닷물의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씨로 대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태양이 가려지고 홍수로 비와 바람이 계속 불었고 이는 주변 온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날씨는 바닷물을 낮은 온도로 유지하게 시켜줄 수 있게 되고 섭씨 2도 정도의 물들을 방주 내부로 순환시킬 기술이 있다면 방주 안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외부의 바닷물을 안전하게 방주 내부로 끌어들여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고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안으로 커다란 일체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된 육면체 구조의 방들이 나무껍질로 만들어진 끈으로 엮어있는 구조로 방과 방 사이에 공간에서 바닷물이 순환될 수 있게 되므로 바닷물과 접할 수 있는 표면적을 극대화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주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독립된 실들이 여러 개 엮여져 있어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주는 동물들을 동면에 들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Figur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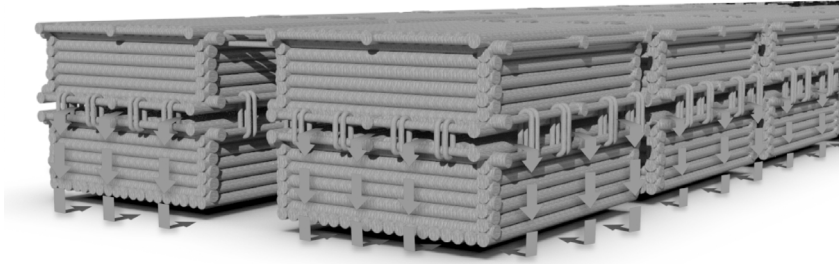


Figure 9. The circulation of water through the cracks

## V. 노아의 방주 재해석 디자인 제안

### 1. Vine Ark의 의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앞서 분석하여 정의 내린 방주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해를 위한 유선형의 굴곡이 필요 없고 홍수를 버티기 위한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분되어 각각 독립된 실들을 나무껍질로 엮어 틈새로 바닷물을 들여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방주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고 요한복음의 의미적 형상을 통해 포도나무(Vine)의 줄기와 같이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생명들이 담긴 분리된 각각의 실이 엮여있어 분리된 개체이면서도 연결되어 하나의 온전한 방주와 공동체의 덩어리를 이루어 구원의 역사와 공동체의 의미를 이루는 ‘Vine Ark’가 제작되었다(Figure 10). 나무껍질로 엮어 3층으로 구성된 방주는 멀리서 볼 때 하나의 큰 유닛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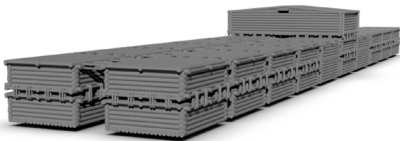


Figure 10. The new Noah's Ark Over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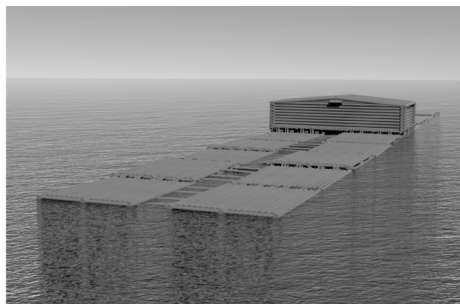


Figure 11. the Vine Ark floating in the sea

각의 실이 온도 유지를 위해 중앙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고 실과 실 사이의 틈새를 확보하기 위해 간격을 두고 엮여있어 바다에 잠기면 부력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띤다(Figure 11).

## 2. Vine Ark의 구체적 디자인

Vine Ark의 규모는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되(Figure 12), 각각의 실이 나무껍질로 엮여 하나의 방주가 되었다(Figure 13). 성경에 기록된 물 높이는 Vine Ark의 2층까지 잠길 수 있는 높이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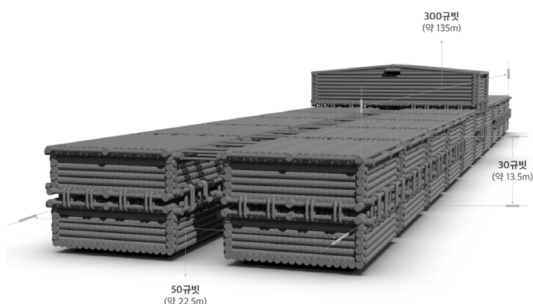


Figure 12. Detailed Size of Vine Ark



Figure 13. An ark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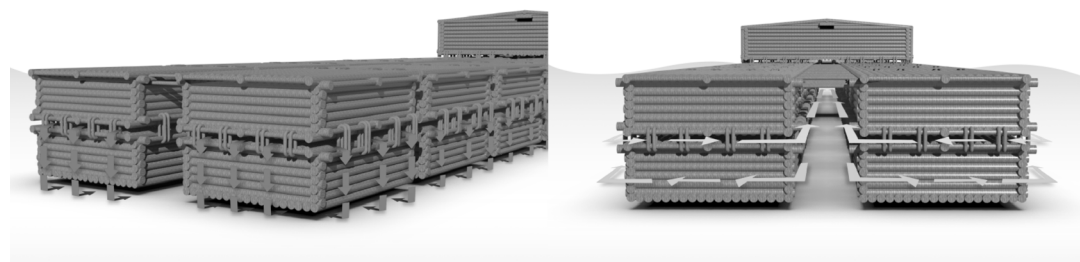


Figure 14. The circulation of water through the cracks

층으로 쌓인 실들 사이 공간뿐만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뉜 실들의 중앙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층은 각 실의 6개의 면, 2층은 각 실의 5개의 면에 바닷물이 닿아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Figure 14).

직접적으로 물이 닿는 층은 1, 2층이기 때문에 동면과 하면을 위한 공간으로 지정하고, 그 위에 3층은 동면과 하면이 필요하지 않은 동물과 노아의 가족이 머무는 공간으로 지정하고자 한다(Figur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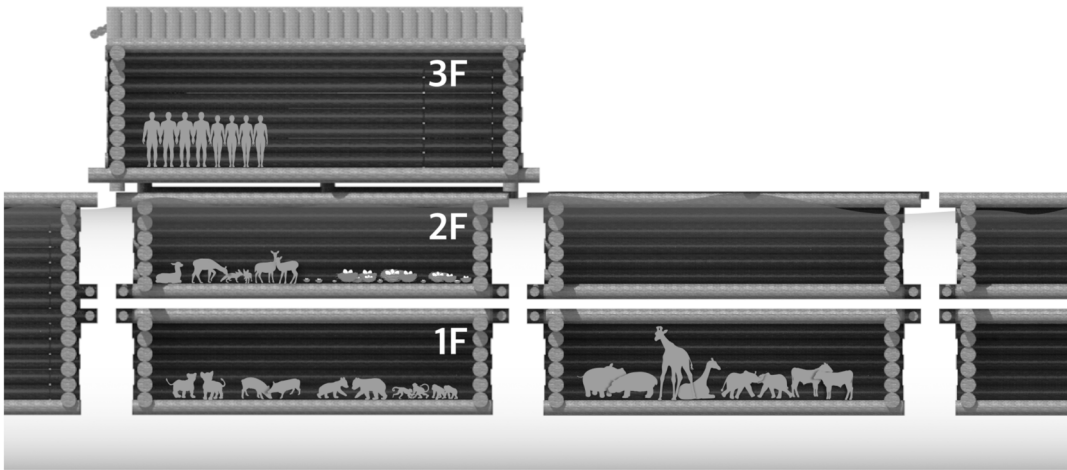


Figure 15. Internal structure by number of floors and Size Comparison

위 그림을 보면 동물들의 크기는 긴 동물인 기린의 새끼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부족하지 않으며 기타 포유류 새끼, 양서류, 조류, 파충류 또는 곤충의 알들이 동면 및 하면을 위해 1, 2층에 승선할 것이다. 노아의 가족을 남자 180cm, 여자 170cm로 설정하여 3층 내부에 넣고 비교했을 때 도 충분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에 탑승할 모든 생명체가 출입하기 위한 문과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에 대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 층으로 할지니라(창 6:16). 창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1규빗 아래에 내라는 명령과 함께, 많은 영어 성경에서 “a window”라고 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본 결과 창문의 단어가 ‘단수’ 명사로 쓰인 것을 통해, 방주에서의 창문은 여러 개가 돌려 난 것이 아닌 하나를 만들라는 말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디자인에 반영하였다(Figur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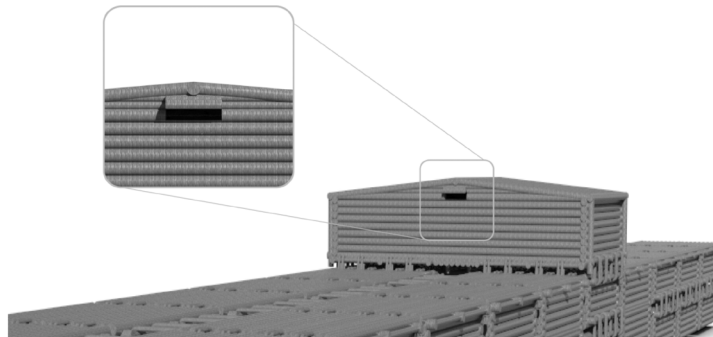


Figure 16. 3rd floor windows

마찬가지로 방주의 문에 대해서는 방주는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배가 아니므로, 방주의 좁은 면을 앞으로 보는 고정적이었던 생각의 틀을 탈피해 방주의 가로가 긴 쪽을 앞면으로 보고, 중앙의 복도와 연결되는 옆으로 문을 내었다. 1층은 지면을 통해 출입할 수 있고, 2층은 임시로 설치된 간이 통로를 통해 출입한다. 노아 가족의 3층 출입 시에는 간이 통로에 마련된 사다리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방과 방 사이의 같은 간격을 통해 바닷물이 일정하게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Figur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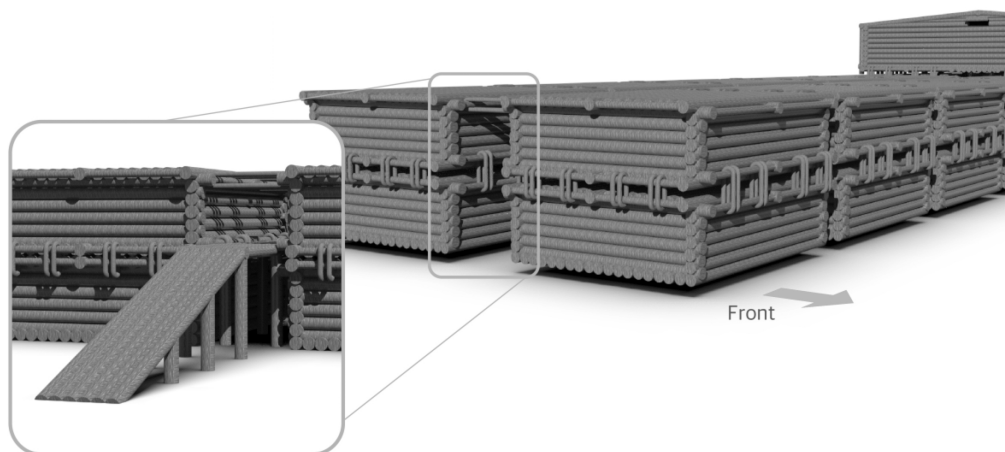


Figure 17. 3rd floor windows

## VI. 결론

본 연구는 노아의 방주를 성경적 맥락에서 역사적, 기술적, 환경적인 3가지 관점으로 분석한 후 디자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Vine Ark’를 제안하였다. 우선 역사적으로 성경책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를 언어별 성경 해석을 통해 방주에 사용된 재료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다음으로, 기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기원전 2,300년경에 고대 이집트 등 동시대 다른 문명의 해양기술과 비교했을 때 노아의 방주가 선박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것과 ‘방주(ark)’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생존을 위한 단순한 구조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관점에서 방주에 태운 모든 생물을 노아의 가족이 관리하기에는 먹이 공급, 배설물 처리, 생물 수 대비 부족한 관리 인원수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생물 들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동면 및 하면의 상태로 들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주의 구조를 결정하였다.



앞선 3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주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포도나무 비유를 참조하여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와 같이 하나의 중심에 여러 열매가 매달려 있는 형태를 형상화하였다. 3층 구조의 Vine Ark는 중심에 있는 통로를 기준으로 하여 양쪽으로 독립된 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붙어있다. 1, 2층은 물에 잠겨있는 부분으로 동면 및 하면을 위한 공간이고, 3층은 열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는 방주의 문을 중앙의 통로와 연결된 곳으로 지정하였다.

재해석된 노아의 방주 디자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타당한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검증함과 동시에 잘못 알려진 노아의 방주의 형태를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홍수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주의 형태를 단순히 배의 형태가 아닌 여러 가지 필수조건들을 고려한 형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복순·강두희 (1972). 동면에 관한 연구: 혈중 Insulin 농도의 변화. *대한생리학회지*, 6(1), 19-26.
- [Kang, B. S. & Kang, D. H. (1972). Studies on the Physiology of Hibernation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blood level of insulin.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6(1), 19-26.]
- 문대연 (1999). 동면현상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한국동물학회 뉴스레터*, 16(1), 12-16.
- [Moon, D. Y. (1999). Molecular Biological Study of hibernation. *The Zoological Society Korea : Newsletter*. 16(1), 12-16.]
- 조양기·최병주·남성현·조영현 역 (2019). *물리해양학*. Knauss, J. A. (2016). *Introduction to Physical Oceanography*. 서울: 시그마프레스.
- [Cho, Y. G., Choi, B. J., Nam, S. H. & Cho, Y. H. (2019). *Introduction to Physical Oceanography*. Seoul: Sigmappress. Trans. Knauss, J. A. & Garfield, N. (2016). *Introduction to Physical Oceanography*. WI: Waveland Press.]
- Gilbert, G. P. (2008). *Ancient Egyptian Sea Power: And the Origin of Maritime Forces*. Australia: Sea Power Centre.
- Howells, K. (2008). *Making Sense of the Genesis Flood*. UK: Lulu Enterprises.
- Panin, I. (2014). *Panin's Bible Chronology*. New England Bible Sales.
- Ward, C. (2006). Boat-building and its social context in early Egypt: interpretations from the First Dynasty boat-grave cemetery at Abydos. *Antiquity*, 80(307), 118-12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zzaro, C. & Ward, C. (2010). Evidence for Pharaonic Seagoing Ships at Mersa/Wadi Gawasis, Egypt.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39(1), 27-43
- 한국창조과학회 2005. 1. 19일자. “노아홍수 (9) -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어떻게.” <https://creation.kr/Ark/?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Jjt9&page=3>. (검색일 2022.10.11.)
- [“노아홍수 (9) -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어떻게”,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2005.1.19). Retrieved from <https://creation.kr/Ark/?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Jjt9&page=3> (2022.10.11.)]
- 환경부 2022.12.31.일자.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https://stat.me.go.kr/portal/stat/easyStatPage/T212473007348874.do>. (검색일 2023.2.6)
-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Ministry of Environment (2022.12.31.). Retrieved from <https://stat.me.go.kr/portal/stat/easyStatPage/T212473007348874.do> (2023.2.6.)]



# 노아 시대의 맥락적 관점에서 방주 형태의 디자인적 재해석

## Reinterpreting the Design of Noah's Ark in the Contextual Perspective of Noah's Era

이 중 섭 (한동대학교)

박 찬 송 (한동대학교)

### 논문초록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관여하시는 것을 인간 관점에서 기적이라 표현한다. 이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와 인간을 통해 행하시는 간접적인 관여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가르신 건 하나님의 직접 관여이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까지 데려온 건 간접적인 관여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간접 관여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선택받은 인간에게 주어지며 어렵지만 불가능한 명령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부분은 하나님의 직접 관여로 이루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형태를 기원전 2,300년 경 노아 시대의 역사적, 기술적, 환경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방주 건조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이다. 하지만 대홍수를 비롯하여 동물들을 방주로 모으는 것과 같이 노아에게 불가능한 일들은 하나님의 직접 관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일은 어렵지만 노아 가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주 형태를 노아 시대의 시대적 맥락을 통해 건조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냈으며 그 대안으로 노아 시대에 건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주 형태를 제안한다.

**주제어:** 방주, 포도나무, 선박 제조 기술, 동면, 온도 유지



# 성경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의 화행론적 접근 -출애굽기 33:12-23과 관련하여\*

## A Speech-act Theoretic Approach to Biblical Interpretation - The Text of Exodus 33:12-23

김상아 (Sangah Kim)\*\*

### ABSTRACT

As a reader we often encounter ambiguous passages in the Bible which came from the issues of translation related to the linguistic problems ‘there and then’ and interpreting biblical texts. This paper concerns the latter, hermeneutical issues dealing with a methodology and a technique for interpreting tex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linguistic approach as a methodology of hermeneutics. The Book of Exodus is typically understood as narrative genre characterized by characters who interplay with one another and events generated in the dynamic interaction of characters. It shows the features of discourse, the exchange of words between more than two participants and its structure which consists of sequences of speech acts. The participants has to rely on linguistic features and has to convey the intended meaning simultaneously using their utterances while abiding by conversational maxim. Thus this paper will apply speech act theory to the analysis of discourse in Exodus 33:12-23 known as ambiguous passages. The analysis shows that Moses used various request strategies by reference to the hearer’s willingness and by employing indirect speech acts to minimize the imposition of the hearer and show politeness as well.

**Key words:** ambiguous passages in Exodus, biblical interpretation, linguistic approach

\* 2023년 5월 12일 접수, 6월 5일 최종수정, 6월 7일 게재확정

\*\* 한양대학교(Hanyang University)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dearie98@hanmail.net

## I. 들어가기

성경에는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텍스트의 ‘번역’과 ‘해석’이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 전자의 경우는 텍스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당시 ‘언어 사용’과 관련한 형태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인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한 시원(始原)적인 성격의 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성경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된 원칙과 방법론에 관한 해석학적인 문제(Hermeneutical issues)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와 관련되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의 한 가지로서 언어학적인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출애굽기 본문 가운데 맥락의 흐름상 난해한 장면으로 꼽히는 부분인 ‘모세의 중보 기도’라 불리는 텍스트 중 33장 12-23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텍스트가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모세의 세 번에 걸친 요청 내용 간의 연관성과 그 의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들 중 출애굽기 33장 12-23절과 관련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없지만, 부분적인 해석을 참조할 수 있는 논의들이 있다. 후술할 국외의 두 논의는 출애굽기 전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과 신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논한다. 먼저 Widmer(2004: 156-158)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아는 것(knowing)’에서 ‘보이는 것(showing)’으로의 어조의 전환이라고 명하면서 모세가 이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함께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요청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에서 모세의 요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O’Brien(2012: 27-28)에서는 모세의 요청의 주된 실현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당시에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출 19:18)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넉넉히 추측하면서 이는 관계 회복의 ‘신호’로서 요청된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국내의 논의인 박철현(2014)에서는 내러티브 방법론과 텍스트 구조, 히브리 문학 기법을 모두 살피면서 본문의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24장 12절부터 40장 38절의 텍스트를 교차대구법(chiasm)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32-34장의 ‘황금 송아지 이야기’가 그 안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되면 성막 이야기와 황금 송아지 이야기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므로 32-34장의 텍스트는 강조되는 효과를 얻는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3번의 중보 기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컸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 제작 이전으로 다시 원상 복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서 33장의 12-23절의 내용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기도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그가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자비의 ‘작은 틈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앞선 논의들에서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주로 이야기의 흐름에 따른 원문의

표현 방식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은 33장 12-23절에서 이어지는 모세의 요청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을 남게 한다. 특히 첫째로 3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구가 계속 이어진 이유이다. 둘째로는 33장 18절의 모세의 요청은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데 이러한 요청이 인간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모세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전의 분석 방법들은 발화 행위의 출발점인 화자에 중점을 둔 일방향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의 효과를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해석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언어학적 방법 중에서도 화행론적 접근을 통하여 본문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출애굽기 32-34장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이야기로 보고 개인 번역을 한 후 화행론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때 내레이터의 진술은 역동적인 행위 참여로 간주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행위 참여만을 집중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겠다. 따라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간의 상호작용의 구조를 명시화한 후 그 맥락의 흐름에 따라 각 세부 텍스트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석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의 상호작용에 관한 부분은 개인 번역을 제시하여 언어적인 표현을 살필 것이다.

## II. 성경 텍스트 해석 방법으로서의 화행론적 접근

Wittgenstein이 언어의 의미를 사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이디어를 주창한 이래로 사용 이론(Use Theory)은 언어 분석 철학자인 Austin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본격적으로 언어를 체계가 아닌 사용에 기반을 둔 ‘행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화행 이론이 1962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Austin(1962)은 실제 언어의 사용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언어 행위’의 관점에서 언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화행의 개념과 이에 대한 분석은 언어에 있어서의 다른 차원의 새로운 발견이었는데 언어 형식으로 수행되는 언어 내용의 측면에서 중전의 단어 의미와는 다른 특성이 그 이면에 존재함을 보여 줌에 있어서 그러했다(장경희, 1998:45). 이 이론은 제자인 Searle(1969, 1976, 1979)에 의해서 보완되고 수정되면서 언어 행위를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발화행위를 통해 화자가 전달하는 의도인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그리고 발화행위에 따라 세계에 특정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발화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Searle은 발화수반 행위를 발화수반 행위의 요점인 화자의 의도와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성의 방향, 심리적 상태, 내용을 준거로 삼아 진술 화행, 정표 화행, 명령 화행, 약속 화행, 선언 화행의 다섯 가지로 하위 분류하였다. 각각의 화행을 살펴보면 진술 화행은 화자의 참과 거짓에 대한 가치 판단을 수반한 화행이며, 정표 화행은 화자의 감정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화행이다. 명령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명령하거나 요구 또는 제안을 하는 화행이며, 약속 화행은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 화자가 약속이나 맹세를 하는 의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선언 화행은 화자가 특정한 환경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화행으로 판결, 선고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화행은 Searle의 분류 외에도 사용 언어와 화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하위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초기 화행 이론이 화자의 단일한 발화 행위에 집중하였다면, 1970년대 이후로는 이에 대한 반성적 시각과 더불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 즉,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화행 이론이 텍스트와 담화의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1970년 중반 이후 대화 분석론이 유럽 언어학계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박용익, 2001:15). 이에 따라 대화의 분석 층위와 화행 연속체를 통해서 화행 간의 관계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화 참여자의 발화와 전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화행이 간단히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 언어의 무한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문장 유형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만이 화행으로 직접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는 ‘밥을 먹었니?’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판정 의문문이라는 질문 화행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이해의 과정에 작용하여 인사 화행이라고 판단하기도 하며, 때로는 ‘밥을 먹지 않았으면 함께 밥을 먹자’라는 요청 화행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만일 의문문의 형식을 가진 질문 화행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동일한 이해를 공유한다면 ‘밥을 먹었니?’라는 발화는 ‘직접화행’으로 수행된 발화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발화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이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간접화행’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의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청자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행동사의 사용이다. 결혼식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로써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는 성혼 선언문의 경우도 ‘선언하다’라는 명시적인 수행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선언 화행을 수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련의 화행들은 세계를 향하여 각기 다른 발화효과 행위로서 청자의 감정, 생각,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의사소통 참여자의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여타의 텍스트들과는 달리 성경 텍스트

에서는 이러한 발화효과 행위들이 갖는 중요도가 크다. 그러한 까닭에 화행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일견 하나님의 일방향적인 선포들이 다수를 이루는 듯 보이는 구약성경 텍스트들의 많은 부분이 발화수반 행위로서 하나님의 바라심을 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람들과 세계에 영향을 미친 발화효과 행위들에 관하여서도 증거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 텍스트는 내러티브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사건들이 전개되어 가는 특징을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두 명 이상의 구체적 대화 참여자가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며 언어적인 발화의 수행이 활발히 나타나는 화행 연속체로서의 ‘대화’의 형식이 잘 드러난 텍스트이다. 이러한 특징의 텍스트에 화행론적 분석을 적용하게 되면 미시적·거시적인 상호작용이 보다 명료히 드러남으로 인하여 난해 구절의 해석과 본문 텍스트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출애굽기 32장 11-13절과 31-32절, 그리고 33장의 12-18절은 소위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러한 명명은 일견 화자로서의 모세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일방향적인 소통으로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도에 대한 독자들의 편향된 이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왔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의사소통 작용이라는 맥락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도 본문의 바른 해석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의 본문 접근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화행 이론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언어 사용자들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하는 분야이므로 맥락은 화행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앞서 이루어진 담화의 맥락에 대한 정보는 대화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로서 대화 참여자들에게 사용되고 해석된다. 더불어서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는 그 담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해석을 가능케 하는 단서 정보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는 정경론적인 접근 방법으로서의 성경 텍스트 해석의 관점과 맞물릴 수 있다. 성경 텍스트들은 정경의 전체 내용과 부분적인 내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서 해석에 있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당 구절의 장면은 ‘언약의 파기와 갱신’에 관한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위하여 그 전체 이야기인 출애굽기 32-34장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 III. 화행론적 접근을 통한 33:12-23의 해석

성경 본문의 원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비평적 방법을 통해 성경 원문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고려하여 원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원독자인 1차 독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해졌는가를 조금 더 상세히 판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BibleWorks 9 프로그램을 이용하되, 본문 분석이라는 특성상 형식적 등가 번역을 시도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 번역을 할 것이다. 이에 히브리어 성경 중 레닌그라드 사본(BibleWorks 버전 약자: WTT)을 선택하여 번역을 하되 이때 참조하는 번역본으로는 이 사본을 등가 번역한 Young's Literal Translation<sup>1</sup>,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Rahlfs edition, BibleWorks 버전 약자: LXT)<sup>2</sup>과 이를 등가 번역한 Brenton의 칠십인역 번역(BibleWorks 버전 약자: LXE)<sup>3</sup> 그리고 한글 개역개정 4가지를 선택하였다. 또한 번역 내용 중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상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연구자가 덧붙인 것이다. 지면상의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에 대한 번역 내용만을 본고에서는 표로 제시하였다. 히브리어의 해석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분위기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최대한 형식적 등가를 지향하였으며 수용 언어인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도 감안하였다.

#### 1.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본 ‘언약 파기와 갱신’ 이야기의 구조

‘언약의 파기와 갱신’이라는 주제의 이야기에 속하는 출애굽기 32-3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32장 1-6절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는 배교적 상황의 맥락하에 언약의 파기라는 문제 상황 속에서 32장 7절부터 33장 23절까지의 상호작용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은 사전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텍스트의 맥락 정보를 알고 있다: 1)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완료(24:1-11), 2)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실(24:12-14), 그리고 3) 이 기간 내에 일어난 배교 행위(황금 송아지 사건)의 완료(32:1-6). 그러므로 이야기의 시작 지점부터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취하실 것인가와 관련하여 독자들의 긴장감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J. N. Young, The English Young'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1862/1887/1898).

2) LXX Septuaginta, edited by Alfred Rahlfs, (1935).

3)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by Sir Lancelot C. L. Brenton, (1851/1884).



Table 1. Prior contextual information

맥락 정보	공간	해당 부분 및 내용
맥락 1	산 아래	19-24장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맥락 2	산 위	24:12-18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간 정황
맥락 3	산 아래	32:1-6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

분석 텍스트인 출애굽기 33장 12-23절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전술한 대로 전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전체 이야기를 내용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구분의 근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호작용의 시간 변화이다. 연속된 사건들의 시간 간격에 대한 언어적인 전환 표지의 출현, 혹은 동시 동작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예를 들면 wayyiqtol 구문 등-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의 장소의 변화, 등장인물들의 변화이며 세 번째 기준은 내레이터가 등장하여 진술하는 경우이다. 내용 단락의 구분 후에는 다시 상호작용의 주도권을 가진 여호와와 반응을 중심으로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개의 하위 부분으로 나누었다.

Table 2. Major parts on the basis of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in Exod 32-34

상호작용	공간	해당 구절 및 내용	대화 참여자
첫 번째 상호작용	산 위	32:7-13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I	하나님, 모세
		32:14 내레이터 설명: 여호와와의 반응	하나님, 이스라엘
	산 아래	32:15-30 모세 주도적 상호작용	32:15-19 모세, 여호수아
			32:20-29 모세, 이스라엘, 아론, 레위자손
			32:30 모세, 이스라엘
두 번째 상호작용	산 위	32:31-34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II	하나님, 모세
	산 아래	32:35 내레이터의 상황 보도	하나님, 이스라엘
세 번째 상호작용	산 위	33:1-6 하나님 명령-이스라엘 반응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산 아래		
	산 아래	33:7-11 내레이터 보도: 만남의 장막	하나님, 모세
	?	33:12-23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III	
	산 위	34:1-28 언약 갱신 시작	하나님, 모세
	산 아래	34:29-35 새 증거 돌판과 하산	모세, 이스라엘

4) 해당 텍스트의 상호작용은 산 위인지 산 아래인지 장소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33장 7-11절의 ‘만남의 장막’에 대한 텍스트의 경우, 연대기적 서술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텍스트의 구체적인 장소의 위치를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물음표로 처리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세 번째 상호작용의 후반부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상호작용 부분과 두 번째 상호작용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상호작용의 전반부(33:1-11)는 분석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화행론적 접근을 통해 논한 뒤 33장 12-23절을 논하겠다.

## 2. 화행론적 접근을 통한 분석 텍스트의 맥락 이해

### (1) 첫 번째 상호작용의 분석

첫 번째 상호작용 부분은 공간의 변화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대화 참여자들에 따라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Figure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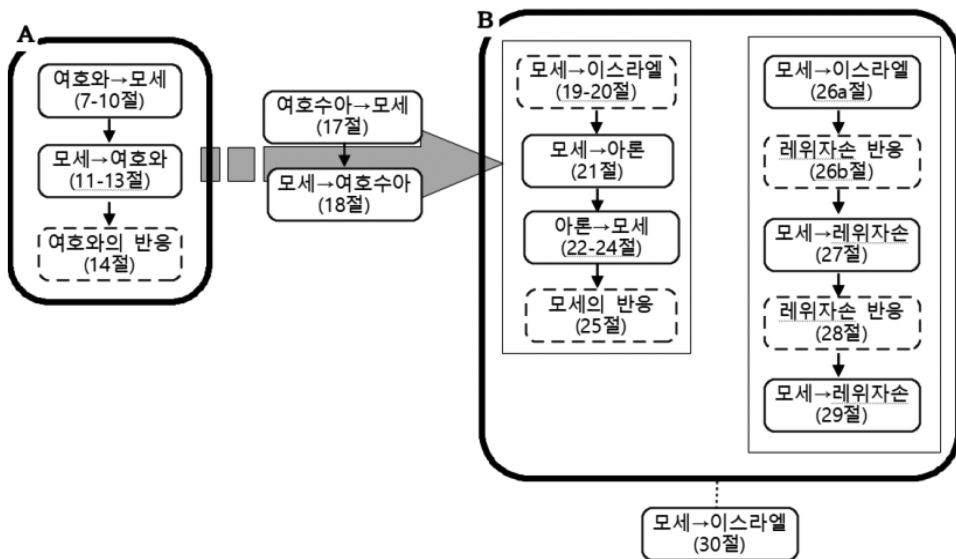


Figure 1. Analysis of Interaction in Exod 32:7-30

실선은 언어적 행위들인 발화 행위로 나타나는 텍스트를 표시한 것이며, 점선은 비언어적 행위로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텍스트이다. 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 다음 발화의 말차례(turn)는 모세로 이어지고, 여호와의 비언어적 반응으로 연속된다(A). 그리고 화살표로 표시된 여호와의 말씀의 발화효과 행위는 산 아래의 연속적인 행위들의 연속체(B)를 이루어 낸다. 이러한 A와 B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을 함의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의도들에 대한 모세의 해석과 정으로 나타난 행위들을 보여 준다. 그 가운데 텍스트의 연결 부분으로서 ‘산 위’라는 위치에서 ‘산

아래'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호와와 모세의 대화가 나온다. 더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세부적인 상호작용 후에 나타나는 텍스트인 30절은 담화표지인 **וְהָיָה** (“그리고 되었다”, 출 32:30)와 시간 변화를 알리는 **בַּיּוֹם הַבָּא** (“다음 날”, 출 32:30)가 더불어서 나타남으로 전 단락과의 내용적 구분을 문법적 장치로 표시한다. 즉, 30절의 텍스트는 그다음 단계의 상호작용으로 넘어가는 연결 지점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ranslation of Exodus 32:7-13

화자		발화 내용
여호와	32:7-8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라, 내려가라. 왜냐하면 이집트 땅으로부터 네가 데리고 나온 <b>너의 백성들이</b>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빠르게 내가 그들에게 지시한 그 길로부터 벗어났다. 그들이 그들을 위해 송아지 주조물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 그들이 절하고 그것을 향해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너희들을 데리고 나온 너희들의 신이라. 이스라엘아’ (하였다.)
	32:9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 <b>הָעָם הַזֶּה</b> )을 보았다. 그리고 주목하라. <b>그는(סֵי) 목이 굳은 백성이다.</b>
	32:10	그러므로 이제 나를 그냥 두라. 그들 가운데 나의 진노가 불이 붙었고, 그들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모세	32:11-13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간청했다. 그가 말했다. “여호와여, 왜 당신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신 <b>당신의 백성들</b> 가운데 당신의 진노가 불이 붙었습니까? 애굽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하기를 ‘그(여호와)가 악함 가운데 그들을 그 산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 지면으로부터 끝내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할 것입니다.) 불타는 당신의 진노로부터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b>당신의 백성</b> 을 향한 그 악함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겨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안에서 그들을 위해 맹세하셨던 당신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한 이 모든 땅을 그들이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문의 형식을 가진 명령 화행으로 먼저 시작된다; “너는 가라, 내려가라(**וְהָיָ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문으로 서두를 시작하신 것은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다(10절 OYqt형식<sup>5</sup>, “그들을 끝낼 것이다”: **וְהָיָה לָאֵשׁ**).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진멸과 모세의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행위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7절의 명령문 바로 다음의 문장에서 여호

5) 10절의 해당 부분은 주어나 다른 통사 구성요소들이 Yiqtol 앞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OYq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OYqt은 겐세니우스 문법에 따르면 양태를 나타내게 되므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의 변화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7절 이후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변함없이 지칭해 오셨기 때문에 더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문의 의미는 맥락을 따라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자리매김을 한 이상,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진멸을 막기 위한 막대한 책임이 부여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계신 것이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황금 송아지 배교 사건은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붙게 되었다.<sup>6</sup> 언약 파기의 상황은 ‘부패함(7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길을 벗어난 것(8절)’, ‘목이 굳은 것(9절)’으로 표현된다. 이제 막 체결된 언약은 파기될 위협에 처하였고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시급하다. 그래서 모세는 11-13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관계성을 연결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이라는 특히 언약과 관련된 족장들의 이름을 들면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언급하는 것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일부였음을 상기시켜 드리는 전략과 함께 이를 여호와와 속성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요청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시는 반응을 보이신다(14절).

15절부터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한 요청 행위는 모세의 중재 역할을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발화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청자인 모세에게 문맥의 추론을 요구하는 화행 연속체를 사용하셨으며(7-10절), 모세는 자신의 인식 체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제 저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모세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데, 15-16절에 모세의 손에 들린 돌판에 독자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 이는 모세의 부재 상황에 대한 32장 1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진술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자의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반한 계명이 바로 그 돌판에 쓰여 있는 것임을 독자들로 하여금 상기시킨다. 이어지는 모세의 돌판을 깨는 행위는 언약 파기를 암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한다. 그 이유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였던 ‘나의 진노가 불이 붙었다’(וַיִּחַר-אַףִּי)라는 표현이 19절 모세의 분

6) Joo, S. (2006)는 신명기서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분석하였는데 אַף וַיִּחַר라는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연구한 부분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신성(divine)의 진노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노를 표현할 때에는 ‘모세의 진노가 불이 붙었다’(וַיִּתְּרָא מֹשֶׁה)라고 주어만 바꾸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재자적 행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한다(20절). 이 행위는 1) 그들이 신이라고 경배하였던 대상이 한낱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가공의 것임을 인지하게 하였을 것이며, 2) 죄의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제거하였다. 두 번째로 모세가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론을 문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아론과 훌에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겼기 때문이다(24:14). 그러나 아론의 발언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집단과 분리시킴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22절에 나타난다(22절, ‘이 백성’: הָאֵלֶּה, הָאֵלֶּה). 이는 또한 독자들에게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대비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언급하시면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중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부패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론의 발화(22절)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아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노가 멈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배교 행위의 근원에 아론의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억제되지 않은 속성(טָמְאָה)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25절). 죄의 결과물은 가시적으로 제거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율법의 위반은 계속될 소지가 존재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이 백성’(9절)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세가 레위 자손을 통하여 삼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한 것은 학자들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고에서는 제안한다. 즉, 모세의 그러한 행위는 25절에 그가 죄성이 발현되는 마음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26-28절의 행위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들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는 해결 방안의 한 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30절과 같이 담화표지 וַיֹּאמֶר (‘그리고 이제’)를 사용하여 청자의 이목을 집중시켜 중요한 문제인 ‘이스라엘의 속죄’, 다시 말하면 언약의 파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 다시금 여호와께 간청드리기 위해 올라가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모세는 그가 이해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발화효과 행위를 ‘중재자로서’ 행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이는 31절의 표현 וַיֵּשֶׁב (‘돌아왔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Table 3 참조).

(2) 두 번째 상호작용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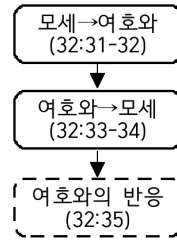


Figure 2. Analysis of Interaction in Exod 32:31-35

두 번째 상호작용은 모세와 여호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텍스트가 주를 이루는데, 이제는 모세의 발화 순서가 먼저 시작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의도대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Table 4. Translation of Exodus 32:31-35

화자		발화 내용
모세	32:31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וַיָּשֹׁב). 그리고 말했다. “아, 이 백성이 그들을 위해 금으로 된 신을 만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32:32	그렇지만 이제(הַיּוֹם) 만일 그들의 죄를 들(/취할) 수 있다면,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기록하신 책으로부터 부디 나를 지워 주십시오.”
여호와	32:33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죄를 범하는 자는 나의 책으로부터 내가 그를 지울 것이다.
	32:34	이제(הַיּוֹם)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라. 주목하라(וַיִּבֶן). 나의 사자가 너의 앞에 갈 것이다. 그러나 값은 날에 내가 그들 위에 그들의 죄를 값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배역 행위를 한마디로 진술한다(31절). 여기서 그는 죄의 내용과 이를 ‘큰 죄(הַגָּדֹל הַחֲטָא)’라고 명명함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표현한다. 32절에서는 여호와의 의도를 자신이 이해하고 행한 중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만일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을 지워달라고 요청한다. 이 또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여기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최근의 견해들이다(박철현, 2014: 274). 이에 대한 해석은 모세의 발화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명제로부터 유추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여호와께 범죄



한 자는( $p$ ) 여호와와 책에서 지워진( $q$ )’라고 하는 명제(proposition)에 기반하여 볼 때, 모세가 자신을  $p$ 의 범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넣어 성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모세는 아론과는 다른 범주의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였고(22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이에 대한 여호와와의 응답은 모세가 전제로 하는 명제를 여호와 자신을 주어로 넣어 재(再)진술하는 것이었다(33절).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모세의 요청의 수락이나 거부의 여부 혹은 모세의 발언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닌 모세의 전제를 다시금 재확인시키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진술하여 강조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저자가 독자들에게 언급하기를 원하는 내용-토라의 준수와 어김에 관련된 것, 더 나아가면 언약의 지속과 파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1)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서, 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신다(34절). 이제 다시금 모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해야 한다. 그러나 죄는 죄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적인 힘을 가지고 산 아래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낸다(35절). 여기에서 저자가 마치 아론의 태도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아론이 만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 이는 22절의 아론의 말과 다시금 대비를 이루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으셨다는 점과 황금 송아지는 아론의 지도하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지도자로 세워진 자가 가진 책임감의 무게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 (3) 세 번째 상호작용의 전반부 분석

세 번째 상호작용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 앞의 상호작용들과는 달리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와서 전하는 중재적 과정이 나타나는 텍스트들은 생략되었다. 이는 이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르며 사건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함의한다. 33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정보와 함께 그 발화의 내용에 대한 직접화법의 기술 후 바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도하는 텍스트가 WayX 구조로<sup>7</sup> 연결되는 방식으로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내용의 시작을 알린다. 그 결과 [여호와-모세-이스

7) 33장 1절의 וַיְהִי כִּי יִשְׁמַע יְהוָה בְּקוֹל מֹשֶׁ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를 보면 wayyigtol로 시작하면서 주어가 함께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구문론에 따르면 이러한 문장을 WayX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본다. WayX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표지로 기능한다.

라엘)의 관계 구도가 좀 더 명확하게 부각되어 나타난다. 7-11절에는 ‘만남의 장막’에 관한 텍스트 부분이 들어있다. 여기에서의 기술 방식은 종전의 등장인물들의 직접화법이 아닌 내레이터가 상황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Table 5. Translation of Exodus 33:1-6

화자		발화 내용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33: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여기로부터 너와 네가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그 백성은 올라가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말하기를 ‘네 자손에게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라고 한) 그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또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몰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운데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 길(안)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반응	33:4	그리고 그 백성이 이 악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애통해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장신구를 자신 위에 하지 않았다.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33:5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한순간에 네 가운데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끝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의 위로부터 너의 장신구를 내려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할지 내가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반응	33:6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벗었다.

33장 1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화행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모세에게 요청되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기를 ‘네(모세)가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그 백성’이라고 하신다. 그러나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32:13)을 경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여전히 이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레닌 그라드 사본의 출애굽기 전반부(출 2:24-25)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로운 ‘나라’로 구성되게 되는 시발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눈을 돌리신 것-직역하면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보고 아신 것’-의 이유는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로 이어진 중요한 근간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시내산 언약이 유보된 상태인지 파기된 상태인지에 대한 의문이 독자들에게 제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하시되(1절), 당신께서는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신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지금까지의 모세의 중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운 속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려’ 당신과의 위험한 동행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발화 가운데 사용된 히브리어 문형을 보면 알 수 있다(Yiqtol 형식: “너희 가운데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וְלֹא אֶעֱלֶה בְּקִרְבְּכֶם).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그것은 다시 행동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으켰다. 먼저 그들의 감정적 반응은 ‘애통함’이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한 반응임을 감안해 볼 때 그 애통함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으심’에 대한 애통함이자, 그 근원에 있는 그들 자신 안의 죄성-목이 굳은 속성-에 대한 애통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신구를 그들의 몸에 하지 않았다. ‘장신구(תְּכֵלֶת)’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그것 자체가 유대인의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견해도 있고, 혹은 미드라쉬 전승에 따르면 검과 왕관이라는 견해(I. Zolli, 1939: 72), 또는 고대 근동의 우상이었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증은 없으므로 명확한 정의를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본문상에서는 애통함과 장신구를 하지 않는 행위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그들의 감정의 변화는 그들 개개인의 어떠한 행동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뒤이어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5절). 그런데 흥미롭게도 3절의 말씀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앞의 여호와와의 말씀(1-3절)이 명령 화행(1절)과 진술 화행(2,3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5절의 여호와와의 말씀은 진술 화행-3절과 유사하되 발전된 형태-과 새로운 요구가 담긴 명령 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화표지 וַיֹּאמֶר과 함께 쓰인 5절은 주화행으로 명령 화행이며, 진술 화행은 이에 대한 발화수반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그런데 여호와와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4절에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적 기법 중 히브리어의 수사적 특징인 반복법의 사용으로 이해해야 한다<sup>8</sup>. 그러므로 모세를 중재자로 한 여호와와

8) 혹자는 이를 하나님의 ‘자비의 틈’의 해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명령 화행은 명제내용 조건(content condition) 자체가 미래의 청자의 행위와 관련하기 때문에 4절에 이미 이스라엘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금 요청하시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발화 자체가 명령 화행이 아닌 일종의 특수한 간접 화행으로 보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식구를 때는 행위를 보시면서도 이것을 다시금 일부러 집짓 모르는 척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해석하는 접근도 모순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화법은 인간에게는 가능한 ‘개성 있는 말 습관’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다수의 독자들을 생각해 볼 때는 수용 가능성의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심각한 어폐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어법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반어법의 주된 기능은 명제 내용을 강조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반어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너는 절대로 장신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의 강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현 관계에서는 ‘장신구를 떼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신구 착용’이라는 상징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굳은 속성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일례로 이사야서 3장 16-21절의 텍스트를 보면, 장신구는 치장, 사치, 물질 지상주의 등을 가리키는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 중 하나로 나타남을 생각해 볼 때 장신구에 대한 구약성경 내 텍스트들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절은 4절의 반복으로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것이지만 특히 장소 정보가 부가된다.

출애굽기 32-34장의 주제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에 33장 7-11절의 만남의 장막 텍스트가 세 번째 상호작용 안에 배치된 이유는 더욱 명확해진다. 편집비평학자들은 연대기적 배열이 아니라는 것에 치중하여 논의의 주안점으로 삼지만, 이것은 주제적 연결성에 의한 텍스트 배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앞서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상호작용과 두 번째 상호작용에서 모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언약 파기의 갈등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장막에 관한 텍스트는 진 밖의 장막과 그것을 자신들의 장막 문에 서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으로 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의 발생을 강조하며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저자는 이러한 기법을 매우 치밀하게 사용하고 있다. 시내산 언약의 시작 때부터 발생한 모세의 ‘산 위로 올라감’과 ‘산 아래로 내려감’의 동작 표현은 거룩함의 거리감을 더욱더 독자들에게 부각시킨다. 이는 황금 송아지 배교 사건 이전부터 시작된 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변되는 모든 인간 존재 안의 죄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33장 7-11절의 텍스트는 산 위와 산 아래의 가시적 장소의 구분으로 계속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주시시켰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관계적 거리의 발생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주제적 긴밀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 3. 화행론적 접근을 통한 분석 텍스트의 해석

세 번째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전반부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상호작용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멀어짐은 7-11절의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다시금 모세와 여호와의 상호작용이 시작된다(Figure 3 참조).

33장 12절부터 34장 9절까지는 모세와 여호와가 말차례를 각기 가지면서 직접화법의 형태를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며 진행된다. 그리고 34장 1절부터는 여호와와 모세의 상호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제인 ‘돌판’으로 변화된다(‘두 개의 돌판’ :  $\text{תַּבִּיטִּים} : \text{תַּבִּיטִּים}$ ). 이것이 34장부터 시작되는 언약 갱신에 관한 주제이다. 그러므로 33장까지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모세의 중재적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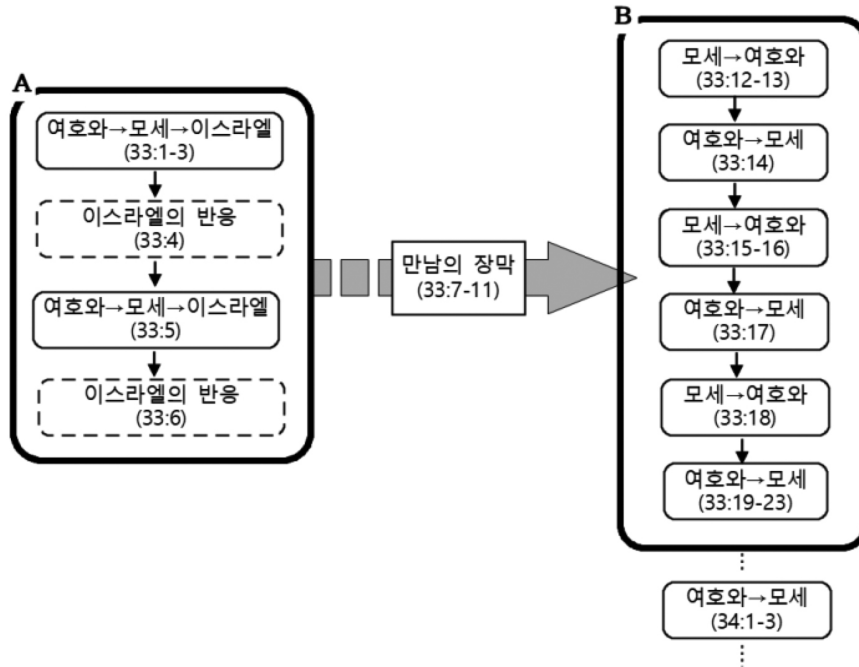


Figure 3. Analysis of Interaction in Exod 33:1-34:35

감당하는 의사소통 목적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독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 34장 10-27절은 언약의 갱신과 관련한 여호와의 말씀과 28절에는 새로운 돌판이 수여되는 장면을 내레이터가 보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배교에서 고조되었던 긴장과 갈등의 상황들이 해소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Table 6. Translation of Exodus 33:12-23

화자	발화 내용
모세	33:12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나 나와 함께 보내신 누군가를 당신이(נָתַן) 내가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OQtI). 그리고 또 너는 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xQtI).’
	33:13 그러므로 이제 만일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부디 내가 당신의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이 족속이 당신의 백성임을 알도록,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33:14 그가 말씀하셨다.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Yiqtol). 그래서 내가 너로 편하게 할 것이다.”
모세	33: 15-16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의 얼굴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여기로부터 올라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당신이 걸으심이 아닙니까? 나와 당신의 백성을 그 지면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여호와	33:17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는 이 일을 또한 내가 행할 것이다 (Yiqtol). 왜냐하면 나의 눈에서 은혜를 네가 발견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모세	33:18	그러자 그가 말했다. “부디 당신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33:19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나의 선함을 너의 얼굴 위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너의 얼굴을 향해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또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33:20	또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וְשֵׁנִי 생략으로 볼 경우)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33:21-2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목하라. 너의 곁에 한 장소가 있다. 그리고 너는 그 바위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또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틈(갈라진 틈)에 둘 것이다.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손을 치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발화는 간접 화행의 치밀한 고도의 전략이 사용되었다(Table 7 참조). 1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와 명령(33:1)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의 명령 화행(1-3절)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속 행동을 요청하였지만, 모세는 갑자기 2절 발화(“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의 명제 내용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간접 화행을 사용하여 공손하게 요청한다(33:12). 모세는 명시적인 주어(‘당신’: אַתָּה)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말씀하시기를 간접적으로 요청한다(“나와 함께 보내신 누군가를 당신이 내가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וְלֹא הִזְדַּמְתִּי אֶת אֲשֶׁר-רָשָׁלַח עִמִּי). 즉, 모세는 ‘나와 함께 갈 누군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 화행은 화행이 연속될수록 직접 화행의 Cohortative 서법으로 바뀌면서(13절: “부디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וְאַתָּה יְיָ) 요청의 내용이 변경된 것처럼 보인다. 12절에서는 동행하는 ‘누군가’에 대한 정보의 요청이었다면 13절에서는 ‘당신의 길(즉, 여호와의 행로)’에 대한 정보의 요청으로 바뀐 것처럼 일견 보인다. 그러나 모세가 대화 참여자로서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을 지키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모세의 12절의 진술 화행은 동행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이신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요청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화행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간접 화행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설득 전략을 엿볼 수 있다.

Table 7. Strategies in Moses' utterances (Exod 33:12-18)

화행	발화 내용	화행 전략	기능
진술화행 (33:12)	(그 땅으로 가는 행위를 명령하셨으나) 나와 함께 당신이 보내신 <u>누군가</u> 를 내가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이전 발화 언급, 간접 화행 사용	요청
연결화행 (33:12)	하나님의 이전 발화 언급 1)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OQtI) 2) 너는 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xQtI)	상대의 이전 발화 언급	요청의 기반
명령화행 (33:13)	당신의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1) 내가 당신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2) 이 족속이 당신의 백성임을 알도록	담화표지 <sup>74</sup> 사용, 연결화행(12절) 활용, 대화 함축	요청
↓ 여호와와의 반응 (33:14) ↓			
명령화행 (33:15-16)	발화 1 (15절): 주화행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올라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발화 2 (16절): 보조화행 자문: 은혜를 찾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자답: 나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걸으심이 아닙니까? 나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발화 1: 대화 함축 조건명령문 형식을 사용한 요청 발화 2: 발화수반력 조정 주화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자답 형식. 자답에서 부정 의문문 사용으로 강조	요청   근거 제시
↓ 여호와와의 반응 (33:17) ↓			
명령화행 (33:18)	부디 당신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특정 대화 함축	요청
↓ 여호와와의 반응 (33:19-23)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간접 화행에서 직접 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 화행으로 하나님의 이전 발화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이전 발화의 명제로 OQtI, xQtI 형식의 사실 기술 방식을 모세가 연결 화행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발화는 언제나 사실이라는 것을 발화자 모세가 히브리어 문장 형식으로 더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

썸의 사실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다는 사실(xQtl)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요청하는 기반이 된다. 한편 13절에서는 여호와와 눈 안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들이 당신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3절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12절의 내용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33장 12절		?	33장 13절	
하나님의 동행 여부 요청의 기반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 내가 하나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동행 여부 요청의 목적	이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Figure 4. Differences between verse 12 and 13

13절의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는 모세 요청 행위의 기반이 앞 문장 즉, 12절임을 보여 준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의 기반은 하나님의 이전 발화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12절의 요청의 기반이 13절에서는 요청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은 ‘동행 여부를 알려 주시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발화인 요청 기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13절에서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아는 첫 번째 목적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이 되어야 하지만 모세는 그 내용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한 개연성을 가지고 내용을 바꾸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름을 아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De Vaux, 1997:43).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아시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세가 13절에서 바꾼 내용은 주어 자리의 ‘모세’를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을 준수함과 동시에 12절의 발화 내용과 모순이 되지 않으면서 13절의 요청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세가 선택한 논리는 ‘대표성의 원리’이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전략을 사용한 요청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더욱 강력한 이유는 그의 주장의 기반이 바



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호와와의 반응은 당신께서 가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약속 화행이었다(14절 Yiqtol 형식, “나의 얼굴이 같 것이다”:  $\text{פָּנַי יִלְכּוֹ}$ ). 그럼에도 모세는 거듭하여 15,16절에서 동행을 요청한다. 여기서 모세가 사용하는 첫 번째 전략은 관계성의 주체 전환과 은혜의 대상의 전환이다. 모세가 12절에서 하나님을 설득하였을 때의 전제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기초하여 은혜의 대상에 자신을 넣었다면, 13,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시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넓히면서 그 은혜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시킨다(15절).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이다(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1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나타난다(16절). 32장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자신을 규정하였다면, 33장 12절부터는 자신 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집어넣음으로써 논리의 역을 성립시킨다(*vice versa*).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자리매김이었던 ‘이 백성’, ‘너의 백성’이라는 재수용 표현을 ‘당신(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는 재(再) 자리매김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성의 수용을 대담하게 요청한다. 모세가 사용한 두 번째 전략은 문장 형식에 변화를 주면서 발화수반력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15절의 모세의 첫 발화는 조건문인 선행문장과 명령문인 후행문장으로 이루어진 조건 명령문이다(“만일 당신의 얼굴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여기로부터 올라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 실현될지도 모르는 가정 조건하에 명령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명령 화행의 하위 화행으로서 지시의 기능은 약화된 화행으로 보아야 한다<sup>9</sup>. 그러므로 모세의 발화는 ‘우리와 함께 여기로부터 올라가 주십시오’라는 공손한 요청 행위를 함으로써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전환시켜 상대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요청 행위의 근거로서 일종의 자문자답형의 의문문을 사용한다. 자문자답 형식은 일반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15절의 첫 번째 발화가 주화행으로 요청 행위였다면 두 번째 발화인 16절은 요청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기서 모세는 다시 자답의 형식을 강조의 기능을 갖는 ‘부정의 의문문’을 사용하여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요청의 행위를 극대화하였다.

모세의 전략적 호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목적어 명사구(‘네가 말하는 이 일을’)를 먼저 문장 앞에 놓음으로써 바로 ‘그 일( $\text{הַדָּבָר}$ )’을 행하실 것을 수행 동사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신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8절에서의 모세의 요청 행위는 난해하다고 꼽히는 장면

9) 이지수(2016)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조건 명령문은 ‘유사 명령문(pseudo-imperative)’이라고 불리는데, 명령문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화행 가운데 조건 명령문은 지시의 힘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범언어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조건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이 지시 화행인지 진술 화행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자들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반적으로는 조건 명령문은 지시 화행의 기능이 거의 약화된 것으로 본다.



중의 하나이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임에 대한 의지 표명을 이미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2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즉, 현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모세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단서는 맥락 정보이다. 모세의 이전 발화 내용인 33장 12-13절, 15-16절을 살펴보면 그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동행하실지 여부가 주안점이었다. 그렇다면 18절의 요청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모세의 발화에 나타난 언어 단서이다. 보기를 요청하는 ‘대상’에 대한 모세의 인식에 접근해 봄으로써 발화 의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현현(theophany)은 구약성경에서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모세는 삶 속에서 현현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 왔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을 처음 경험한 사건은 이후의 현현 사건들의 계기적 사건이자 정초적 사건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당신께서 모세와 함께 계실 것인데 이것이 그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관한 증표(nisṯ)라고 말씀하셨다(출 3:12).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의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이다. 모세의 입장에서 재진술하면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소명을 주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사건이다. 모세는 이를 통하여 소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으며,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알았다. 그것은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듯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현현’인 가시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세가 경험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임에 대한 확실한 증표(nisṯ)가 된다. 이것은 첫 번째 단서인 이스라엘과의 동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지금까지의 모세의 발화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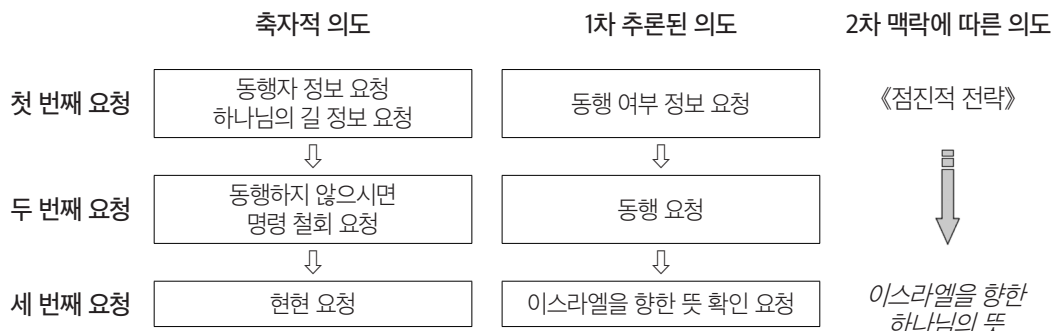


Figure 5. Request strategies by Moses in Exod 33:12-18

과도 상통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33장 12절부터 이루어진 모세의 요청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Figure 5 참조). 모세의 화행을 분석해 보면 간접 화행을 사용함으로써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대의 부담감을 덜려는 전략, 상대 중심적인(hearer-oriented) 요청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며 요청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자 하는 전략 등의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텍스트를 난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각각의 요청 내용이 서로 달라 보인다는 점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요청 내용 정보로부터 1차적으로 발화의 의도 추론 과정 다음에 다시 맥락에 따라 2차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모세의 세 번에 걸친 요청의 원래 의도가 드러난다. 1차적인 과정으로서 ‘추론된 의도’라 함은 언어의 보편적이고 관습화된 방식대로 해당되는 문맥 정보를 통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2차적인 과정으로서 ‘맥락에 따른 의도’라 함은 추론에 있어서 보다 넓은 맥락상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단서와 배경 지식을 요하는 보다 복잡한 의도 추론 과정이다. 이처럼 해당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서 난해함을 유발하였던 원인은 제한된 발화 안에서 모세가 다양한 전략을 치밀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신자인 독자들의 편에서는 해석의 부담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요청 행위는 주변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원래 의도하였던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단계별로 점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궁극적인 의도는 마지막 요청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요청 행위는 특정 대화 함축을 사용함으로써 요청의 진의를 해석하기 위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맥락적 지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해석의 과정이 소통에서 요구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모세와 독자들은 알게 되고 나아가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함의하는 것이므로 드디어 34장부터 본격적인 언약 갱신의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IV. 나가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텍스트는 언약 체결 이후의 첫 파기라는 역사적 선례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황금 송아지 사건은 다양한 구약성경 저자들에게 신학적 통찰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신약성경 저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문의 난해한 구절

로 인하여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경에서 맥락의 흐름상 난해한 장면이라고 꼽히는 구절인 출애굽기 33장 12-23절 텍스트의 화행론적 접근을 통하여 본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화행론적 분석의 결과 모세가 하나님께 거듭하여 요청을 하였던 이유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치밀한 전략들에서 드러났다. 그는 요청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이전 발화 언급, 다양한 문장 형식을 이용한 간접 화행을 사용하면서 공손함을 드러내고 단계적으로 자신의 발화의 의도를 드러내어 요청한 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그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기반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말씀하심’으로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공기 입자들의 진동에 의한 물리적 차원이나 상대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적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를 생성시키고 존재하게 하는 힘으로서의 ‘말’이라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적 사유 체계를 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화행론적 접근 방법은 성경 해석의 방법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희석·강소라·기동연·김성진·김아윤·문은미·방정열·석진성·이희성·임용섭·정원석·조휘·최윤갑 역 (2017). *성경신학적 구약개론*. Van Pelt, M. V. (2016). *A Biblical-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서울: 부흥과 개혁사.
- [Kim, H. S., Kang, S. R., Ki, D. Y., Kim, S. J., Kim, A. Y., Moon, E. M., Bang, J. Y., Suck, J. S., Lee, H. S., Lim, Y. S., Jung, W. S., Cho, H. & Choi, Y. G. (2017). *A Biblical-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Seoul: Revival & Reformed Press. Trans. Van Pelt, M. V. (2016). *A Biblical-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llinois: Crossway.]
- 길성남 역 (2016).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제2판). Fee, G. D. & Stuart, D. K. (2001).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서울: 성서유니온.
- [Gil, S. N. (2007).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2nd ed.). Seoul: Scripture Union Korea. Trans. Fee, G. D. & Stuart, D. K. (2001).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Nashville: Zondervan.]
- 김대웅 (2016).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한 성경 내적 해석. *Canon & Culture*, 10(2), 185-218.
- [Kim, D. W. (2016).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of the Golden Calf Narratives. *Canon & Culture*, 10(2), 185-218.]
- 김영진 역 (1977). *말과 행위*.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경기도: 서광사.
- [Kim, Y. J. (1977). *How to Do Things with Words*. Gyeonggido: Seokwangsa. Trans.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류호영 역 (1997). *성경해석학 총론*. Klein, W. W., Blomberg, C. L. & Hubbard, R. L. (1993).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 [Ryu, H. Y. (1997).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Seoul: Lifebook. Trans. Klein, W. W., Blomberg, C. L. & Hubbard, R. L. (1993).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Nashville: Word Inc.]
- 박경식 (2018). 금송아지 본문(출32-34장)에 대한 최근 연구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0, 7-35.
- [Park, K. S. (2018). A Critical Analysis of the Most Recent Scholarship on the Golden Calf Episode(Exodus 32-34).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0, 7-35.]
- 박문재 역 (2005). *구약신학: 그 역사, 방법론, 메시지*. Smith, R. L. (1993).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method and message*.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Park, M. J. (2005).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method and message*. Goyang: Christian Digest. Trans. Smith, R. L. (1993).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method and message*. Nashville: Broadman & Holman.]

박용익 (2001). **대화분석론**. 서울: 역락.

[Park, Y. I. (2001). *Discourse Analysis*. Seoul: Youkrack.]

배정훈 (2004). 출애굽기에 나타난 회복의 원리. **기독교사상**, 540, 254-261.

[Pae, C. H. (2004). Principles of Recovery in Exodus. *The Christian Thoughts*, 540, 254-261.]

배정훈 (2011). 출애굽기 33:7-11에 나타난 회막전승. **장신논단**, 43, 13-33.

[Pae, C. H. (2011). The Tent of Meeting Tradition in Exodus 33:7-11.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3, 13-33.]

박철현 (2014). **출애굽기 산책**. 서울: 솔로몬.

[Park, C. H. (2014). *Walking Through Exodus*. Seoul: Solomon.]

손석태·채천석 역 (2000). **WBC 성경주석: 출애굽**. Durhan, J. I. (1987). *Word Biblical Commentary: Exodus*. 서울: 솔로몬.

[Son, S. T. & Chae, C. S. (2000), *Word Biblical Commentary: Exodus*. Seoul: Solomon. Trans. Durhan, J. I. (1987). *Word Biblical Commentary: Exodus*. Nashville: Zondervan.]

신승환 (2012). 히브리적 사유의 특성과 의미. **동서사상**, 13, 43-64.

[Shin, S. H. (2012).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the hebraistic Thought. *Journal of East-West thought*, 13, 43-64.]

이성범 역 (1996), **화용론**. Mey, J. L.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서울: 한신문화사.

[Lee, S. B. (1996). *Pragmatics: An Introduction*. Seoul: Hanshin. Trans. Mey, J. L.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2nd ed.). MA: Wiley-Blackwell.]

이승진·김정호·장도선 역 (2007). **구약의 내러티브 해석**. Richard L. & Pratt, Jr. (1993).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Lee, S. J., Kim, J. H. & Jang, D. S. (2007).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Seoul: CLC Book. Trans. Richard L. & Pratt, Jr. (1993).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P&R Publishing Company.]

이지수 (2016).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Lee, S. J. (2016). *A Study on the Grammar and Speech Acts of Korean Imperative Sentenc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장경희 (1998). 화행의미론, **한국어 의미학**, 2, 41-56.

[Jang, K. H. (1998). Speech Act Theoretic Semantics. *Korean Semantics*, 2, 41-56.]

지주호 (2003). 설득커뮤니케이션과 수사학. **독일학 연구**, 19, 137-164.

- [Ji, J. H. (2003). Persuasive communication and rhetoric. *Specialist journal for German Studies*, 19, 137-164.]
- 한동구 (2016). 시내산 예배의 신학적 의미(출 24:9-11). **신학논단**, 84, 223-249.
- [Han, D. G. (2016). The Worship at Mount Sinai and It's Theological Interpretation(Exodus 24:9-11). *Theological Forum*, 84, 223-249.]
- 허혁 역 (1975). **히브리적 사상과 그리스적 사상의 비교**. Boman, T. (1970).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서울: 분도출판사.
- [Heo, H. (1975).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Seoul: Bundobook. Trans. Boman, T. (1970).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NewYork: W. W. Norton & Company.]
- De Vaux, R. (1997).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ruction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 Joo, S. (2006). *Provocation and Punishment: The Anger of God in the Book of Jeremiah and Theology*((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61). Berlin: Walter de Gruyter.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Brien, M. A. (2012). The Dynamics of the Golden Calf Story(Exodus 32-34.) *Australian Biblical Review*, 60, 18-31.
- Widmer, M. (2004). *Moses, God and the Dynamics of Intercessory Prayer: A Study of Exodus 32-34 and Numbers 13-14*. Tübingen: Mohr Siebeck.
- Zolli, I. (1939). The Ornament "From Mount Horeb(Ex. 33.6). *The Jewish Quarterly Review New Series*, 30(1), 71-75.

# 성경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의 화행론적 접근 -출애굽기 33:12-23과 관련하여

## A Speech-act Theoretic Approach to Biblical Interpretation - The Text of Exodus 33:12-23

김상아 (한양대학교)

### 논문초록

본고에서는 성경의 난해 구절과 관련하여 언어학적 접근을 통하여 성경 해석의 방법론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출애굽기는 등장인물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이를 통하여 전개되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언어적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난해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출애굽기 33장 12-23절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아 화행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 해당 구절들의 난해함이 유발되었던 이유는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 전략 때문이었다. 모세는 발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밀한 요청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의지를 언급하는 것과 다양한 문장 형식을 통한 간접 화행의 사용, 특정 대화 함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모세의 요청 행위는 치밀한 전략 가운데 단계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출애굽기의 난해 구절, 성경 해석, 언어학적 접근



#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 Inclusiv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Jesus Christ's Disabled Healing Ministry in the Four Gospels

김기흥 (Ki Heung Kim)\*\*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rue meaning of inclusive education based on the healing ministry of Jesus Christ and examines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inclusive education. Two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element of inclusive education is human dignity. Second, inclusion is not only dependent on the will and efforts of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but also on the active and coopera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ose around them. To this en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church's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of humanity, are developed and practiced, because the church and Christians have a unique mission and responsibility to lead the inclusion and reconcili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Key words:** inclusive education, disabled person, healing, Jesus Christ

---

\* 2023년 2월 13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9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대시대 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져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중세에도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잔존했지만, 특히 기독교의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자선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또 15세기 르네상스 이후 인문 및 자연과학, 의학 등의 발달로 공교육이 도입되었지만,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에서 분리된 교육과 삶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졌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북유럽의 정상화 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와 탈수용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은 장애인의 분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통합교육의 계기로 작용했다. 오늘날 통합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각국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다(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ue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2010: 12-21).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을 볼 때 통합은 교육과 사회정책의 중요한 지향점이라 할 것이다.

기독교는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복지에서 사회 인식과 실천적 측면에서 공과(功過)를 동시에 보인다. 우선 중세 기독교의 이웃사랑, 자선 사상 등을 기초로 빈자, 장애인, 병자들의 보호 시설이 처음 설립되었다. 13세기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는 자신의 구제론(救濟論)에서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부자에게 빈자는 구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Schilling & Klus, 2022: 20-22). 또 기독교계에서 개신교의 대표적인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의 예는 독일 디아코니(Diakonie Deutschland)이다. 이는 1848년 독일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신학자인 비헤른(J. H. Wichern)의 연설로부터 시작해 기독교의 이웃사랑을 배경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이민자, 난민, 빈곤자, 중독자, 노숙자, 여성, 호스피스 환자 등을 돕는 사회복지 기관이다(<https://www.diakonie.de>). 또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자선구호 단체는 까리타스(Caritas)가 있는데, 이는 1897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 설립되었고, 현재 세계 약 200여 회원국의 국제 까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 조직이 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점으로 출신, 지위, 종교 등과 무관하게 가난, 폭력, 차별, 장애, 질병 등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다(<https://www.caritas.de>). 우리나라 역시 일반교육과 최초의 근대식 특수교육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의사인 홀(R. S. Hall)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기흥, 2020a: 205).

한편 초기 기독교의 장애인관 중에서는 장애 원인과 관련하여 죄의 결과로 보는 인과응보 사상이 지나치게 팽배했다. 4세기 로마 주교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로마서 10:14절을 두고 청각장애인은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여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온전한 인간도 아니라고 보았다. 또 16세기 루터(Luther), 칼빈(Calvin)도 장애아동은 소위 ‘영혼이 없는 악마의 작품’으로 ‘체인지링(changeling)’이나 ‘갑상선종(keel goiter)’이라 폄하하며 안락사나 익사의 대상으로 보았다(Mattner, 2000: 22). 특히 20세기 히틀러의 인종주의(racism)나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이 국가의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로 대량 희생되었다. 당시 기독교계는 나치의 범죄행위에 소수의 신·구교 지도자만이 저항했고, 대부분 암묵적인 동조나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김기홍, 2020a: 161-170).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장애인 인식조사에서도 동정, 시혜, 자선적 차원 등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이만식, 2009: 54; 한정우·장옥례, 2018: 201-206). 또 교회 중 장애인 부서 설치 비율은 1% 미만이며, 장애인 교인의 비율이 비장애인 교인에 비해 극히 낮다(박명우, 2012: 36;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98-99). 또 장애인 호칭도 개정된 한글 성경이나 설교에서조차 불구자, 절름발이, 병어리, 소경, 곱배팔이 등 비속어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이은미, 2013: 22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65-67).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의 장애인 이해수준도 무관심, 동정심이나 구제의 대상으로 보며, 장애인 관련 설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회의 장애인 인식과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특히 담임 목회자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이천수, 2005: 73-77; 김요섭, 2007: 177; 오영환, 2007: 50). 이러한 목회자들의 태도 개선을 위해 목회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복지 관련 필수 교과목의 개설이 요구된다(이금섭·배내윤·이민호, 2005: 311).

더군다나 장애인과 관련하여 통합교육의 기본 사상과 실천은 학교에서의 교육적 통합을 넘어 사회적 통합으로 까지 지속되므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합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장애인들에 대한 무지나 편견 등의 태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회적인 차별이나 거부적 행동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 및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62-267). 이러한 통합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지상사역, 죽으심과 부활 등의 역사적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로 분리되고 떨어진 하나님(그리스도)과 인간(왕하 18:6; 렘 50:5; 사 56:6 등), 인간과 인간(창 2:24; 시 133:1; 골 2:19 등) 간의 관계성을 온전히 통합하고 연합하도록 화목제물이 되셨다(렘50:5; 시133:1; 롬3:25, 6:5). 특히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다양한 치유 사역 중에 인간에 대한 존중을 비롯하여 이해와 용서, 협력 등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셨으므로 하나님-인

간, 인간-인간 간에 화목과 하나 됨을 이루신 것은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장애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분리된 자아, 가족 및 사회 공동체뿐 아니라 영적 관계까지 이르는 전인적 회복을 이루셨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23; 정기철, 2017: 97-100).

그러나 장애인의 통합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인식과 실천적 노력은 여전히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60- 267; 김기흥, 2022: 51-56). 특히 기독교계나 일반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이나 하나 됨을 방해하는 선입견, 이질감, 거부감 등 다양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에는 신학자나 설교자들의 성경 속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가르침도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이은미, 2013: 233-23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17). 이에 본 연구는 사복음서 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 과정을 통합 교육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과 비장애인 간의 통합교육에 주는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사복음서 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을 통합 교육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방법상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치유 사역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여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장애인 또는 환자들 간의 대화 및 주변 상황 등을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이나 문법적 혹은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본 주석과 참고 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사복음서 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사역의 대상 범위를 장애(인)만 아니라 질병까지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이다. 사실 장애와 질병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도 선천적(유전적 혹은 염색체 이상 등)보다는 후천적(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원인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김기흥, 2020a). 따라서 많은 경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만성적 질병은 개인의 인지, 정서, 사회성, 의사소통, 신체운동, 감각 영역 등에서 기능과 역할수행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의학적, 기능적인 면을 부각하는 개인

적 모형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적 문제 등을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모형이 강조되고 있다(이선우, 2009: 41).

## II.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기본 개념

독일 교육학자이며 통합교육의 선구자인 무트(J. Muth)는 통합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과제로 보았다. 통합운동의 계기는 50년대 덴마크의 뱅크 미켈슨(Bank-Mikkelsen)과 스웨덴의 니르예(Nirje)의 정상화 원리이다. 이는 그 당시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삶이 지나치게 열악한 것을 비판하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인 환경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60년대와 70년대 유럽의 대형 장애인 수용시설의 비인간적 환경에 반대하며 일어난 탈수용시설화 운동도 한 몫을 했다. 즉 장애인들이 열악한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사회적, 가족적으로 분리된 채 살아가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격리된 시설 거주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 속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사회 운동이었다(Groeschke, 2000: 134-140).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차원의 통합운동은 70년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에서 최소제한 환경(LRE)이라는 개념의 도입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합의 개념이 교육 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소제한 환경이란, 장애아동을 가능한 한 분리 교육(특수학교)에서 일반 교육 환경(일반학급 혹은 특수학급)에 배치하여 이들의 학교생활도 비장애 또래들과 같은 보편성을 지향했던 것이었다.

통합의 영어 개념 ‘integration’은 라틴어 ‘integrare’의 ‘원상 복구하다’ ‘완전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이는 원래는 철학, 사회학 및 심리학에서 사용했는데, 오늘날 교육학에까지 확대되었다. 초기 교육적 통합 ‘integration’은 ‘선 분리 후 통합’이나 ‘모음식 통합’으로 이해했다. 그 후 1994년 6월 7-10일 스페인 살라망카(Salamanca)의 유네스코 회의에서 ‘integration’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inclusion(선 통합 후 분리/포함식 통합)’으로 대체되었다(김기홍, 2020a: 79-83).

우리나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 제6항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정의에서 통합교육은 결국 각자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수용하고 인정받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학교 구성원들

간에 편견, 차별, 거부 등의 부정적 태도 대신에 상호 존중, 인정, 이해, 배려, 소통, 협력 등을 핵심적인 가치와 덕목으로 요구되는 교육 패러다임(paradigm)이다. 이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라는 이중적인 구조보다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학교’(one school for all)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Hinz, 2002: 354-359; <https://www.bildungsserver.de>).

한편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네 가지 목적과 가치는, 먼저 각자가 가진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또 다양성의 인정으로 갈등이나 분쟁보다는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협력 등을 통해 조화성을 지향한다. 아울러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에게 일반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교육과 수업에 참여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수월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통합교육은 특히 장애아동의 입장에서는 모방학습의 향상, 비장애아동에게는 인성교육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기흥, 2020a: 154-157).

그 밖에 통합교육 수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물리적 통합을 비롯하여, 또래들과 함께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 과정적 통합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즉 통합교육의 절정은 장애아동이 교사와 또래들로부터 사회·정서적으로 학급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 및 수용되는 사회적 통합을 들 수 있다.

### III. 장애인 치유 사역의 통합 교육적 고찰: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 1. 사복음서의 장애인 관련 기록의 개관

오세철(1986: 16-19)은 성경에 장애(인) 언급은 총 164회로 보았다. 그 중 구약이 56%이며, 또 시각(49%), 지체(35%), 청각장애(16%) 순이다. 성경의 분류법에 따라 구약은 율법서(16%), 역사서(12%), 시가서(7%), 예언서(21%) 순이며, 신약은 복음서(36%), 역사서(4%), 서신서(3%), 예언서(0.6%)로 이어졌다. 사복음서의 총 59회 중 시각(50%), 지체(36%), 청각장애(14%) 등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사복음서(개역 개정 NIV 한영 해설 성경, 2013년)에 장애나 질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기록은 <표 1>과 같다. 이는 총 56곳으로 마태복음 19, 누가복음 18, 마가복음 16, 요한복음 3곳 등인데, 일부 동일한 몇 사건들은 타 복음서에서 중첩적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어인 ‘간질’, ‘나병’, ‘눈멀고’, ‘다리 저는’, ‘귀먹고’ 등도 아직 있다. 또 사복음서의 장애나 질병의 유형 중 ‘귀신 들린 자’ 24회, ‘눈멀고’ 10회,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



6회,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못 걷는 자’ 6회, ‘중풍’ 5회로 나타난다. 이를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별표 1]에 따라 범주화하면, 정신장애(귀신 들린 자), 시각장애(눈멀고), 청각장애/언어장애(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 지체 장애(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못 걷는 자, 중풍) 등의 순이다. 또한 치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장애인·환자 및 주변인들과의 대화형이 36곳, 나머지 20 곳은 단순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Records of the Disabled Person and the Sick in the Four Gospels

	장·절	장애·질병 유형(중복 구절)	비고
마 태 복 음	4:23-24	각색 병, 고통,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	서술형
	8:2-4	나병환자(막1:40-45; 눅5: 12-16)	대화형
	8:5-13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눅7:1-10; 요4: 43-54)	대화형
	8:14-15	베드로의 장모 열병(막1:29-34; 눅4: 38-41)	서술형
	8:16-17	귀신 들린 자/병든 자(막1:29-34; 눅4: 38-41)	서술형
	8:28-34	무덤가의 두 귀신 들린 자(막5:1-20; 눅8: 26-39)	대화형
	9:2-8	중풍병자(막2:1-12; 눅5:17-26)	대화형
	9:20-22	열두 해 혈루증 여자(막5:21-43; 눅8:40-56)	대화형
	9:27-31	두 맹인	대화형
	9:32-33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서술형
	9:35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서술형
	12:10-15	안식일의 손 마른 자(막3:1-6; 눅6:6-11)	대화형
	12:22	귀신 들린 자(막3:20-30; 눅6:43-45, 11:14 -23, 12:10)	서술형
	14:35-36	모든 병든 자(막6:53-56)	서술형
	15:22-28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막7:24-30)	대화형
	15:30-31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서술형
	17:15-18	귀신 들린 아이(간질)(막9/14-29)	대화형
	19:2	무리의 병	서술형
	20:29-34	두 맹인(막10:46-52; 눅18:35-43)	대화형



마 가 복 음	1:23-27	귀신 들린 자(눅4:31-37)	대화형
	1:30-31	베드로의 장모 열병(마8:14-17; 눅4:38-41)	서술형
	1:32-34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서술형
	1:39	귀신을 쫓으심	서술형
	1:40-44	나병환자(마8:1-4; 눅5:12-16)	대화형
	2:3-12	중풍병자(마9:1-8; 눅5:17-26)	대화형
	3:1-6	안식일의 손 마른 사람(마12:9-14; 눅6:6-11)	대화형
	3:10	많은 병든 자	서술형
	5:2-15	무덤 사이의 군대 귀신(마8:28-34; 눅8:26-39)	대화형
	5:22-43	회당장 아이로의 딸/열두 해 혈루증(마9:18-26; 눅8:40-56)	대화형
	6:55-56	병든 자(마14:34-36)	서술형
	7:25-30	수로보니게 여자의 귀신 들린 딸(마15:21-28)	대화형
	7:32-37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대화형
	8:22-26	벧새다 맹인	대화형
	9:17-29	귀신 들린 아이(마17:14-20; 눅9:37-43)	대화형
누 가 복 음	10:46-52	맹인 바디매오(마20:29-34; 눅18:35-43)	대화형
	4:33-36	귀신 들린 자(막1:21-28)	대화형
	4:38-39	베드로 장모의 열병(마8:14-17; 막1:29-34)	서술형
	4:40-41	각색 병, 귀신들린 사람	서술형
	5:12-15	나병환자(마8:1-4; 막1:40-45)	대화형
	5:18-26	중풍병자(마9:1-8; 막2:1-12)	대화형
	6:6-11	손 마른 자(안식일) (마12:9-14; 막3:1-6)	대화형
	6:17-19	더러운 귀신	서술형
	7:2-10	백부장의 종의 질병(마8:5-13; 요4:43-54)	대화형
	7:21-22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 맹인, 나병환자, 못 걷는 사람, 귀먹은 사람 등	서술형
	8:2	악귀, 병 고침, 일곱 귀신	서술형
	8:26-39	무덤 사이의 군대 귀신(마8:28-34; 막5:1-20)	대화형
	8:41-56	회당장 아이로의 딸/열두 해 혈루증 여자(마9:18-26; 막5:21-43)	대화형
	9:38-43	귀신 들린 아이(간질)(마17:14-18; 막9:14-27)	대화형
	11:14-26	병어리 귀신(마12:22-39, 43-45; 막3:20-27)	서술형
여 한 개 음	13:11-17	18년간 귀신 들리고 등을 펴지 못하는 여자	대화형
	14:2-6	안식일의 수종병(고창병)의 여자	대화형
	17:12-19	열 명의 나병 환자	대화형
	18:35-43	여리고의 맹인(마20:29-34; 막10:46-52)	대화형
	4:46-53	신하 아들의 병(마8:5-13; 눅7:1-10)	대화형
	5:3-18	38년 된 병자	대화형
	9:1-34	선천성 맹인	대화형

## 2.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

본 장에서는 주님의 치유 사역을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한센인, 중풍병자, 귀신들린 자, 맹인 등의 치유사건들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기록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 또 치유와 회복의 과정들이 단순히 서술형보다는 주님과 장애인 혹은 주변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나 행동 등을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인식을 오늘날 통합 교육적 맥락에 접목하여 파악하기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 (1) 한센인(Hansen's Disease)의 치유(마 8:2-4; 막 1:40-45; 눅 5:12-16, 17:12-19)

한센인 등 악성 피부병 환자(레 13-14장 등)는 이스라엘 율법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 원칙적으로 여호와와의 전, 즉 예배 참여(대하 23:19)나 성문 출입 금지 등 공동체로부터 일정 기간이나 평생 분리(레 13:45-46; 민 5:2; 눅 17:12 등)되어 사회적 배제와 거부의 대상이었다(Martin, 이명준 역, 2011: 62; 송영목, 2011: 5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71-72, 215).

한센인들에 대한 주님의 치유과정(마 8:2-3; 막1:40-41; 눅 5: 12- 13)에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다(김홍덕, 2020: 24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95).

첫째, 예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따르거나 또는 당시 이방인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 인식보다 더 본질적 의미인 모든 인간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시고 치유하셨다. 주님은 당시 전통적인 사회법을 어기고 자신의 앞까지 온 한센인을 질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민망히’(스플랑크니조마이 (Splanchnizomai, NIV, filled with compassion)’ 여기시고 한센인의 고통과 외로움을 깊이 공감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또한 치유된 열 명의 한센인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눅 17:14) 에게도 동일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주님은 치유된 한센인으로 하여금 개인적 재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도우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그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막 1:44)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한센인의 완전한 치유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온전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통합되도록 도모해주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과정을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통합교육은 무엇보다도 어떤 조건이나 전통적인 사회적 인식을 넘어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실천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도 주님의 치유는 개인의 신체적인 면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관계의 회복까지 이르는 전인적 치유가 가능한 것이었다(송영목, 2011: 52).

(2) 중풍병자의 치유(마 8:5-13, 9:2-8; 막 2:1-12; 눅5:17-26, 7:1-10, )

로마군 장교이자 이방인인 백부장(마 8:5-6)은 자신이 가족처럼 소중하게 아끼는 하인이 중풍병을 앓았다. 그는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했고, 주님은 내방하여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질적 관계를 알고 있고, 군의 명령체계에 익숙한 백부장은 주님의 직접적인 치유보다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hiatheto, 아오리스트 수동명령 3인칭 단수)’라고 청한다(송영목, 2011: 288). 장애인의 개인적 재활이나 사회적 통합의 실현은 사회적인 지위나 이방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백부장과 예수님의 협력적인 인간 존중 사상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33-34).

또 마가복음 2:3-12에서 가버나움의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려 했지만, 무리로 인해 당시 가옥의 평평한 지붕을 뜯어낸 후에 그를 상(krabattos, 빈곤한 사람의 침대)에 매달아 내렸다. 이때 주님은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여기에서도 특히 중풍병자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큰 관심과 사랑 등 인간 존중의 사상은 교육적, 사회적 통합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apeheontai, 현재 완료 신적 수동태)’라고 중풍병자의 치유 과정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송영목, 2011: 177). 성경에서 ‘장애·질병=죄의 결과’로 보는 부정적 견해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참고 레 21:17-18, 21, 23; 요 5:14; 약 5:13-18 등). 그러나 동시에 보호나 차별금지, 치유나 영적 회복(참고 행 3:1-8, 눅 19:1-10 등),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표현, 하나님의 섭리 등(참고 렘 7:18; 고후 12:7, 9 등) 등 긍정적 인식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왜곡되고 치우친 해석은 결국 장애인의 개인적 재활과 교육적,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면, ‘장애·질병=죄의 결과’라는 인과관계의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 형성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104-106; 김홍덕, 2020: 222, 266). 이에 중풍병자들의 치유 과정을 통합교육의 관점으로 보면, 먼저 주변 친구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실천적 행동을 통한 인간 사랑이 주님의 긍휼의 치유능력과 연합하여 놀라운 전인적(全人的)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3) 귀신 들린 자의 치유(마 8:28-34, 15:22-28, 17:15-18; 막 1:23-27, 5:1-20, 7:24-30, 9:14-29; 눅 4:31-37, 8:26-39, 9:37-43, 13:11-17)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치유 사역 중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다. 송영목(2011, 26)에 의하면, 특히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것은 특별계시의 침묵 기간에 속하는 신·구약 중간

기와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영적 암흑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이방인들의 지역인 가다라(또는 게르게사/거라사, Gerasenes)의 무덤가에 거하는 군대(legion, 약 3,000-6,000명의 군인)귀신 들린 두 사람의 치유(마 8:28-32; 막 5:1-20; 눅 8:26-39) 장면이 등장한다. 특히 마가는 그 중 더 심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반사회적 일탈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마을공동체로부터 거부되어 분리되어 살았다(Barbieri, 정민영 역, 2011: 78; 송영목, 2011: 190, 239).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모두가 혐오하는 이방인 지역과 동시에 공동묘지라는 부정한 곳까지 가셨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메시아적 비밀)을 알고 달려와 절하는 군대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었다(막 5:6-8). 여기에는 치유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진 예수님과 귀신들린 자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가다라의 이방인 주민들은 군대 귀신의 간구와 예수님의 명령으로 약 2,000여 마리의 돼지 떼를 잃게 되어 예수님께 떠날 것을 요구(막 5:17)했다는 점이다. 즉 이들에겐 돼지 떼가 영적 구원이나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다(Gramics, 김도훈 역, 2011: 98).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한 인간과 그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인간관은 통합교육의 가장 기초적이고 궁극적 가치라 할 것이다. 또한 주님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후 자신의 가정, 친족 및 지역 공동체로 복귀하여(막 5:19)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통합되어 함께 살도록 지시하셨다는 점이다(김홍덕, 2020: 223-224; 송영목, 2011: 55, 191).

이어서 귀신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마 15:22-28, 막 7:24-30)와 귀신들린 아들의 치유를 간구하는 아버지(마 17:14-20, 막 9:14-29)의 이야기가 각각 등장한다. 먼저 이방 지역인 가나안(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간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른바 구원의 특정주의, 즉 이스라엘의 우선적 구원을 강조하시며 거절하셨고, 이어서 여인을 (애완용)개(kynarion)로 비유하시며 무시하셨다. 이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계속 절하며(미완료) 거듭된 믿음의 고백과 간구에 마침내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다. 이어지는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들을 간질(腦電症, epilepsy)로, 다른 복음서(막 9:14-29; 눅 9:37-43 등)는 귀신 들린 것으로 보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고, 제자들에게 축귀의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믿음(막 9:19, 24)과 기도(29)의 부족을 책망하시고 큰 무리 앞에서 외아들을 치유하심으로 이 두 자녀들은 모두 신체적 고통,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전인적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다(김홍덕, 2020: 226, 243; 송영목, 2011: 94, 206, 300). 여기에서도 통합 교육적 맥락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결국 이웃(부모)의 연약한 자(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감적 이해라 할 것이다.

끝으로 누가복음 13:11-17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등이 꼬부라진 소위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gynei pneuma echousa astheeias)을 만나셨다.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달리 먼저 이 여인의 치유 간구가 없었음에도 주님은 안수하셔서 건강을 회복시키셨다. 이때 회당장은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역에 대해 무리들에게 신랄하게 비난하였다(14절). 이에 회당장의 저의를 간파하신 주님은 안식일에 가축들을 풀어 물을 먹이는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해방시키는 일이 합당하며 당연하다고 갈파하신다(15-16절).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과거의 고통과 차별로부터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 영적인 속박에서도 해방시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셨다(김홍덕, 2020: 243-244; 송영목, 2011: 318).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인간이 어떤 재산적 가치(마 12:12의 양, 막 5장 돼지 떼 등)나 사회적 제도 및 전통(안식일, 율법 등)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공적이고 본질적인 통합교육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하고 요소는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의 인정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차별적 태도나 거부적 행동이 아니라 수용적인 태도와 협력적 실천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맹인의 치유(마 9:27-31, 20:29-34; 막 8:22-26, 10:46-52; 눅 18:35-43; 요 9:1-34)

먼저 여리고 지역의 두 맹인(마9:27-31, 20:29-34, 막10:46-52, 눅18:35-43)과 이름이 알려진 맹인 바디매오(Bartimaeus)(막10:46-52)의 치유 사건이 각각 등장한다. 그 당시 이들의 삶은 대체로 장애와 가난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신체적, 경제적 고통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hyos Dayid)이여’라 외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한다. 이러한 외침은 대부분 질병 치유 시 자주 보이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정치적 논리보다는 죄와 질병의 전인적 치유와 구원을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 공통적으로 주변인들(특히 제자들)은 예수님 일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맹인들을 계속 꾸짖으며(epetimon, 미완료 직설법 3인칭 복수), 배척하고 무시했다(Gramics, 김도훈 역, 2011: 192).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처지를 통감하시며 회복시켜 주셨다(김홍덕, 2020: 227; 송영목, 2011: 59, 72-73, 110, 346). 이러한 주님의 치유 사역의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의 주요 의미는 먼저 제자(무리)들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무시나 배척 행동은 통합교육의 매우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에 대해 주님의 공감적 이해와 실천하시는 사랑의 결과는 결국 이들로 하여금 개인적 회복과 교육적,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이어서 두 가지 서로 대조적인 치유 사건이 등장한다. 먼저 마가복음 8:22-26에는 벳새다 지방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안수해주시길 바랐다. 이에 주님은 두 눈 안에(eis) 침을 뱉으

시며(23) 두 손으로 거둬 안수하시며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어서 요한복음 9:1-34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상에서 거지이자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셨다. 이때 주변인들은 맹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감적 이해 속에서 치유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비본질적으로 전통사상에 따라 누구의 죄의 결과로 장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장애의 특별한 연관성을 모두 일반화하는 대신에 획기적인 중요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셨다. 즉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참고 갈 4:13; 고후 12:7). 여기에서도 특이한 점은 이 맹인의 경우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치유 사역이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는 예수님의 전적인 의지에 따라 회복이 된 것이다(김홍덕, 2020: 267-268; 송영목, 2011: 419-422). 아울러 주변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나 안식일의 참 주인도 모르는 채 단지 안식일 치유에 대해서 주님을 정죄하고 부정하기도 했다(24). 이들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 공감적 이해보다는 안식일 치유나 장애가 누구의 죄의 결과인지 등의 비본질적인 전통과 형식에 집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 본 통합 교육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소중함의 사상 위에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결국 성공적이고 본질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5) 기타 치유: 혈루증 여인(마 9:20-22; 막 5:21-43; 눅 8:40-56), 손 마른 자(막 3:1-6; 마 12:9-14; 눅 6:6-11), 고창(수종)병(눅 14:2-6)

끝으로, 주님의 대화체 형태의 치유 사역은 혈루증 여인, 손 마른 자 및 고창병 환자 등으로 이어진다.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 맥락을 살필 수 있는데, 즉 환자의 치유와 율법과 안식일 등 전통과 제도에 대한 당시 주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12년 동안 혈루증(혈우병)으로 고통 하는 여인을 만나셨다. 이 여인은 오랜 투병으로 인해 증세는 가중되어 신체적 고통과 많은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빈곤하게 되었다. 또 그녀는 당시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 개인 및 사회생활 전반에 심한 차별과 고독 가운데 살았던 것이다(Gramics, 김도훈 역, 2011: 103). 이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나아가서 몰래 겉옷을 만짐으로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 그때 이 모든 과정과 여인의 마음을 간파하신 주님은 이를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막 5:34)’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나 사회의 전통적인 인식을 넘어 그 여인의 삶의 아픔에 대해 공감적 이해로 접근하셔서 결국 영육의 회복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난 전인적 구원이 성취된 것이다(김홍덕, 2020: 224, 242-243; 송영목, 2011: 59, 192).



이어서 ‘한편 손(오른손) 마른 자(ekserammenen, dried up, 완료형)’와 고창(수종)병(dropsy, 부종;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언급된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고통과 한계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 특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주 관심은 이들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혹은 영적 회복에 있기보다는 오로지 율법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두 사람을 치료하시며 안식일을 문자적, 의식으로만 지키는 것보다는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참고 호 6:6)을 베푸는 것이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라고 설교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도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심으로써 고쳐주셔서 진정한 안식을 통해 가족과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Gramics, 김도훈 역, 2011: 71; Barbieri, 정민영 역 2011: 101; 송영목, 2011: 71- 72, 182; 김홍덕, 2020: 241-242).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치유 과정의 통합 교육적 의미는 결국은 세상의 전통이나 제도보다도 인간 자체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이 기초적 요소라 할 것이다.

#### IV.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통합교육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인 및 환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장애인 통합교육에 주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치유 사역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복음서 상 33곳에 나타난 7가지 주요 질병과 장애의 치유 과정에서 주님은 성별, 사회적 지위의 고하, 질병이나 장애 유형, 민족(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어떤 차별도 없이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셨다.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떠한 물질적 가치(참고 마 12:12)나 제도 및 전통(안식일, 율법 등)보다도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신체적, 영적, 사회·정서적 측면에서의 전인적 치유와 회복을 우선시하셨던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존중 사상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창조과정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육신(Jesu Incarnation), 공생애, 십자가 사건, 부활 등(창 1:26; 시 3:3-8; 마 9:13; 요 3:16 등) 일련의 사건 자체가 만물들 중에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는 방증



일 것이다(김기홍, 2018: 19-23).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칸트(Kant)는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하는 유일한 피조물이자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등 교육적 인간 존재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제①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법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장애인도 교육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닌 것이다. 특히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운동, 감각,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과 문제를 보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존엄성 사상을 골자로 하는 인간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학문이다. 더 나아가 통합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동일 공간에서 개인의 특수성과 일반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교육과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이 가장 기초적 사상이자 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사에서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교육과 일상생활 중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권은커녕 생명권까지 박탈당한 역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이후에도 나치의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싱어(P. Singer)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 플레처(F. Fletcher)의 상황윤리, 자기결정권(right of self-determination) 등의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인간관의 대표라 할 것이다(김기홍, 2018: 26-28). 따라서 오늘날 인간의 존재 가치나 존재 의미가 주로 경제성, 합리성, 생산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무서운 시대정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점을 특수교육뿐 아니라 일반교육에서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장애인과 환자들에 대한 전인적 치유 사역은 사회 주변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 과정의 일부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간구(한센인과 맹인 등)나 주님의 일방적 치유 사역(귀신들린 자, 한편 손 마른 자 등)도 소수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중풍병자, 귀신들린 자, 맹인 등)은 부모, 친구 및 주변인들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인적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교육도 장애인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공동체적 정신으로 실천적 참여가 더 요구된다. 장애학생들이 비장애 또래들과 함께 놀고 배우며 살아가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나 법률의 제정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를 비롯하여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협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특수학교나 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반대나 장애인 공동거주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거부감, 장애인 이동권의 결여 등의 모습은 여전히 교육적, 사회적 통합에

저해 요소로 사회의 부정적 인간(장애인)관과 비협력적인 점은 우려할 만하다 할 것이다(<http://www.ichannela.com>; <http://www.ablenews.co.kr>).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상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수용, 연합, 하나 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기본 사상과 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먼저 모든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이 전제되는 인간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 관심과 실천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장애인과 환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형 치유사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신구약 전체에서 장애인 및 환자들의 치유과정을 교육적,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보다 더 다양한 학문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기홍 (2018).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본 히틀러(Hitler)의 정치이념에 따른 인간관(人間觀) 비판. **신앙과 학문**, 23(3), 5-37.
- [Kim, K. H. (2018). A Criticism of Hitler's View of Humanity According to Hitler's Political Ideology from the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Faith & Scholarship*, 23(3), 5-37.]
- 김기홍 (2020a).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집문당.
- [Kim, K. H. (2020a). *Understand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oul: Jipmundang.]
- 김기홍 (2020b).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회의 태도. **신앙과 학문**, 25(2), 153-182.
- [Kim, K. H. (2020b). The Christian Church's Attitude toward Hitler's National Socialist Policy. *Faith & Scholarship*, 25(2), 153-182.]
- 김기홍 (2022).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독교 세계관적 차별성 탐색. **신앙과 학문**, 27(1), 39-66.
- [Kim, K. H. (2022). Exploring Christian Worldview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Faith & Scholarship*, 27(1), 39-66.]
- 김도훈 역 (2011). **BKC 강해주석 마가복음**. Gramics, J.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Mark. 서울: 두란노.
- [Kim, D. H. (2011). *Gospel of Mark. BKC Commentary*. Mark Seoul: Duranno. Trans. Gramics, J.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Colorado: SP Publications.]
- 김요섭 (2007). 교회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기독교육정보**, 16, 157-180.
- [Kim, Y. S. (2007). A Survey on the Attitudes of Teachers in the Church's Disability Department. *Christian Education Information*, 16, 157-180.]
- 김홍덕 (2020). **장애신학 2**. 충남 논산: 도서출판 대장간.
- [Kim, H. D. (2007). *Disability Theology 2*. Chungcheongnam-do Nonsan: Daejanggan.]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 준비위원회 편 (2015). **장애인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Ministry of Social Services, Disability Theology Preparatory Committee (2015). *Disability Theology*. Seoul: Hangujanglogyochulpansa.]
- 박명우 (2012). **한국 개신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Park, M. W. (2012). *A Study on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Disabled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 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7(10), 97-126.
- [Park, H. J., Kim, J. I. & Cho, Y. G. (2012). A Study on Disability Awarenes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Includ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s) in Korean Churches. *Faith & Scholarship*, 17(10), 97-126.]
- 송영목 (2011). **신약주석**. 서울: 쿰란출판사.
- [Song, Y. M. (2011). *New Testament Commentary*. Seoul: Qumran.]
- 오세철 (1986). **聖書에 나타난 障礙者觀**.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Oh, S. C. (1986). *Disability in the Bible*. Maste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오영환 (2007). **장애인의 통합예배 참여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Oh, Y. H. (2007). *General Christians' Perception of Participation in Integrated Worship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te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이금석·배내윤·이민호 (2005). 목회자 양성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97-313.
- [Lee, G. S., Bae, N. Y. & Lee, M. H. (2005).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Education-related Courses in Pastoral Training Colleg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4), 297-313.]
- 이만식 (2009). 성경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장애인을 향한 선한 행위의 진정한 의미.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교회**, 377, 52-57.
- [Lee, M. S. (2009). The True Meaning of Good Deed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Education Church*, 377, 52-57.]
- 이명준 역 (2011). **BKC 강해주석 누가복음**. Martin, J.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Luke. 서울: 두란노.
- [Lee, M. J. (2011). *Gospel of Luke.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Seoul: Duranno. Trans. Martin, J.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Colorado: SP Publications.]
- 이선우 (2009).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Lee, S. W. (2009).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Seoul: Jipmundang.]
- 이은미 (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Lee, E. M. (2013). A Study on Issues and Direction of Christian Approaches to People with Disability. *Theology and Mission* 42, 215-246.]
- 이천수 (2005). **장애인에 대한 신학생의 윤리의식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Lee, C. S. (2005). *A Research Study on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Seminarians toward the Disabl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정기철 (2017).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 서울: 쿤란출판사.
- [Chung, K. C. (2017). *Jesus who Teaches, Preaches and Heals*. Seoul: Qumran.]
- 정민영 역 (2011). **BKC 강해주석 마태복음**. Barbieri, L.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Matthew*. 서울: 두란노.
- [Jung, M. Y. (2011). *Gospel of Matthew. BKC Commentary*. Seoul: Duranno. Trans. Barbieri, L.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Colorado: SP Publications.]
- 한정우·장옥례 (2018).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지역사회 통합예배에 대한 비장애성도들의 인식. **신학과 사회**. 32(2), 169-210.
- [Han, J. W. & Jang, O. L. (2018). Awareness of Non-Disabled Christians on Community Integrated Worship of Disabled welfare Facility Users. *Theology and Society*, 32(2), 169-210.]
-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ue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2010).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Hausdruckerei BMAS.
-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the Interests of Disabled People (2010).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In-House Printing BMAS]
- Groeschke, D. (2000): Das Normalisierungsprinzip-zwischen Gerechtigkeit und gutem Leben: eine Betrachtung aus ethischer Sicht. In: *Zeitschrift für Heilpädagogik*. 51, Nr. 4, 134-140.
- [Groeschke, D. (2000): The Normalization Principle between Justice and a Good Life: an Ethical Perspective. In: *Journal of Curative Education* 51, No. 4, 134-140.]
- Hinz, A. (2002). Von der Integration zur Inklusion-terminologisches Spiel oder konzeptionelle Weiterentwicklung? *Zeitschrift fuer Heilpaedagogik* 53, 354-361.
- [Hinz, A. (2002). From Integration to Inclusion-Terminological Game or Further Conceptual Development? *Journal of Curative Education* 53, 354- 361.]
- Mattner, D. (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 Kohlhammer.
- [Mattner, D. (2000). *Disabled People in Society*, Kohlhammer.]
- Schilling, J., Klus, S. (2022). *Soziale Arbeit. Geschichte-Theorie-Profession*. 8. Aufl. UTB GmbH.
- [Schilling, J.& Klus, S. (2022). *Social Work. History Theory Profession*. 8th Edition UTB GmbH.]
- Caritas Deutschland. [https://www.caritas.de/diecaritas/wir-ueber-uns/die-caritas-in-zahlen/statistik\(2022.12.27.\)](https://www.caritas.de/diecaritas/wir-ueber-uns/die-caritas-in-zahlen/statistik(2022.12.27.))
- [Caritas Germany. [https://www.caritas.de/diecaritas/wir-ueber-uns/die-caritas-in-zahlen/statistik\(2022.12.27.\)](https://www.caritas.de/diecaritas/wir-ueber-uns/die-caritas-in-zahlen/statistik(2022.12.27.))].

- Diakonie Deutschland. [https://www.diakonie.de/fileadmin/user\\_upload/Diakonie/PDFs/Diakonie\\_Charta\\_Fuer\\_ein\\_Soziales\\_Europa\\_Leichte\\_Sprache\\_final.pdf](https://www.diakonie.de/fileadmin/user_upload/Diakonie/PDFs/Diakonie_Charta_Fuer_ein_Soziales_Europa_Leichte_Sprache_final.pdf)(2022.12.27).
- [Diakonie Germany. [https://www.diakonie.de/fileadmin/user\\_upload/Diakonie/PDFs/Diakonie\\_Charta\\_Fuer\\_ein\\_Soziales\\_Europa\\_Leichte\\_Sprache\\_final.pdf](https://www.diakonie.de/fileadmin/user_upload/Diakonie/PDFs/Diakonie_Charta_Fuer_ein_Soziales_Europa_Leichte_Sprache_final.pdf)(2022.12.27).].
- Bildungsserver. <https://www.bildungsserver.de/Inklusive-Schule-11008-de.html>(20 23.3.3.)
- [educationserver.<https://www.bildungsserver.de/Inclusive-School-11008-de.html>(20 23.3.3.)]
- [다시 간다] “또 무릎 꿇어야 하나” 곳곳에 ‘서진학교’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1734](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1734) (2023. 2.7.).
- [Going again] “Should I kneel again?” ‘Seojin School’ everywhere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1734](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1734) (2023. 2.7.).
- 국정감사, 장애인 고용 분야 이슈 진단<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40>(2023.2.7.).
- [National audit, diagnosis of issues in the field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40>(2023.2.7.)].

#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 Inclusiv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Jesus Christ's Disabled Healing Ministry in the Four Gospels

김기흥 (부산교육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예수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을 바탕으로 장애인 통합교육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장애인 통합교육에 주는 교육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두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통합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심과 참여가 결정적인 요소에 속한다. 이를 위해 특히 기독교 세계관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정립과 실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과 화목을 선도해야 하는 고유한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통합교육, 장애인, 치유, 예수 그리스도





## 중독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이해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그리스도교 교양을 중심으로-\*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world-view  
on the addiction: focusing on Augustine's  
CONFESSIONES and DE DOCTRINA CHRISTIANA

남규열 (Gyuyeol Nam)\*\*

### ABSTRACT

Gerald May argued that the biggest disaster which addictions cause to people is to destroy healthy relationships. This understanding is in line with Augustine's view of addiction. Of course, Augustine did not explicitly use the word "addiction." Augustine suggested that people should have in a triple relationship through the concept of 'Frui(enjoyment) and Uti(use)'. But what if people pursue love beyond this orderly relationship? Augustine calls it 'Abusio(abusion)'. Abusio is that people forget God and enjoy(Frui) the world that is the object of use(Uti).

What happens when we fall into 'Abusio'? we will not have a healthy relationship with the triune God. Naturally, we cannot enjoy the true joy and happiness that God gives us. In addition, we will not be able to see or experience God's nature that God reveals through the created world.

So how can we be freed from this abuse and addiction? So can we love God, fellow humans, and the world in harmony? Augustine says it is possible when men repent and welcome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Furthermore, Augustine proclaims that They are completely free from 'Abusio(abusion)' when men fully enjoys the triune God.

**Key words:** addiction, enjoyment, use, abuse, order, joy

\* 2023년 5월 12일 접수, 6월 7일 최종 수정, 6월 12일 게재 확정.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기독교상담 전공) 박사과정 수료, 부산광역시 대동로 64번길 25, barnabas123@naver.com

## I. 서론

현대 한국사회의 중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현대문명이 발전할수록 중독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중독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음란물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 결과 점차 중독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연스럽게 게임과 음란물, 도박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대사회에 있어 중독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는 보편적 증상이 되었다.

신성만은 중독상담학 개론에서 중독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물질중독이다. 물질중독에는 약물, 알코올, 담배 등이 있다. 둘째는 행동중독이다. 이 영역에는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성/관계 등이 있다(신성만 외, 2020: 33). 시대가 갈수록 중독의 영역은 더욱 다양화되어 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중독증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제랄드 메이는 놀랍게도 모든 인간이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 안에 온갖 종류의 중독 작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중독 증상이 단지 알코올과 마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 관념, 관계, 권력, 유행, 상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도 알코올과 마약중독에 이르는 메커니즘이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제랄드 메이는 이런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관찰하고 연구한 후 인간은 모든 의미에서 중독된 상태라고 설파한다. 그는 그의 책에서 저자 자신조차도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한다(May, 이지영 역, 1991: 22).

그가 지적하는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중독은 인간을 이상숭배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중독의 사슬에 매인 사람은 강박적으로 중독의 대상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소진해 버린다. 그 결과 중독자는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여분의 에너지를 갖지 못하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인간의 중독을 어떻게 진단할까? 더 나아가 이런 인간의 중독적 성향을 치유하는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까? 본 논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과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어거스틴 사상을 통해 중독의 문제를 직접 연결해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쉽지만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교회사학자나 철학자들 중에도 어거스틴의 향유(Frui)와 사용(Uti)의 개념을 인간의 삶과 연결해 설명하는 경우는 자주 있다. 김은우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유하

고 다른 대상들은 사용하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은우, 2016: 62). 이것은 어거스틴의 질서 있는 사랑의 이론에 기초한 지적일 것이다. 윤석후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향유하려는 무질서한 사랑(cupiditas) 대신에 하나님을 향유하는 질서 있는 사랑(caritas)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모든 악은 결국 무질서한 사랑(cupiditas)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윤석후, 2010: 136). 여기 나오는 악의 개념과 중독은 광의적 의미에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윤석후는 이 악의 개념 안에 구체적으로 중독이 포함된다는 언급은 하지 않는다. 양선건도 어거스틴의 향유와 사용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다. 특별히 그는 어거스틴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자기사랑에서 찾는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의 괴로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유하려 한 데 있다는 것이다(양선건, 2018: 129).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질서 있는 사랑 즉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유하므로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양선건이 말하는 괴로움도 사실 중독과 광의적으로 일맥상통한 개념이다. 그러나 양선건도 이 괴로움을 중독과 구체적으로 연결해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럼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어떤가?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중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거스틴 사상과 연결해 중독을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기독교 상담학자들에게 있어서 어거스틴 사상은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기독교 상담학자들 중에도 어거스틴을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어거스틴 사상을 중독과 직접 연결해 논증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이걸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주된 연구주제가 인간의 임상적 정신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제랄드 메이는 그의 책 ‘중독과 은혜’에서 어거스틴을 인용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선물하려 하시지만 우리 손이 늘 가득 차 있어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May, 이지영 역, 1991: 30). 물론 제랄드 메이가 어거스틴을 인용해 말한 우리 손에 가득 찬 것은 우리의 중독의 대상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제랄드 메이는 어거스틴 사상에 기초해 중독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그는 어거스틴 사상의 중요한 개념인 ‘향유(Frui)와 사용(Uti)’의 개념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이걸 그가 정신의학자로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연구자는 어거스틴의 ‘향유(Frui)와 사용(Uti)’ 개념이 상담학의 중요주제인 중독의 원인과 치유에 매우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거스틴 사상과 중독을 긴밀하게 연결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어거스틴 사상의 원류인 성경을 참고해 중독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인간과 중독에 대한 성경적 조명

#### 1) 쾌락(기쁨)의 성경적 기원

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중독의 대상을 만들어 내는 걸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쾌락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창세기에서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자. 창세기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예리하게 드러내는 책이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한다. 당연히 이 때에 지음 받은 사람은 원죄에 오염되기 이전 상태였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강이 네 갈래로 갈라져 온 땅을 돌려 흘렀다고 묘사한다(창 2:10-14). 인류의 4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강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을 인간의 젖줄이라고 부른다. 창세기를 묵상하면 이런 인류문명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의 강과 인류문명의 발달을 촉진한 강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성경의 강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젖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의 이미지는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 회복된 에덴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강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계 22:1,2).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을 묘사한다. 이를 통해 사도요한은 종말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 성은 죄악 된 인류역사를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닌 원래 선하게 창조되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의 회복이다(Boring, 소기천 역, 1989: 310).

어떻게 종말에 죄로 깨어지고 파괴된 세상 문명과 인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가 깨어지고 타락한 영혼과 세상을 치유하기 때문이다(계 22:2).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통해 날마다 풍성한 생명과 치유를 누렸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생명과 치유의 강이다.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에덴동산의 특징은 기쁨이었다. 창세기의 에덴(עֵדֶן)은 히브리어 동사 아단(אָדָן)과 같은 어근이다. 아단(אָדָן)의 뜻은 ‘기뻐하다’ 또는 ‘즐거워하다’이다. 그래서 70인 역(SEPTUAGINT)은 에덴을 헬라어로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하고 있다(이병철 편, 1987a: 1569).

제랄드 메이는 에덴동산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라

고 언급한다. 그는 이사야서 51장 3절을 인용해 하나님이 메시아 시대에 이루실 일의 풍성함은 회복된 에덴과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May, 이지영 역, 1991: 151). 그는 성경 속의 광야의 이미지를 우상을 숭배하는 중독의 불모지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그는 중독에서 자유롭게 된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한 에덴동산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한다. 쉽게 말해 그에 의하면 인간은 중독의 광야를 지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인 것이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목적지 에덴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May, 이지영 역, 1991: 152).

송병현은 에덴을 ‘행복의 땅’이나 물댄 동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송병현, 2010: 109). 이 건 70인역(SEPTUAGINT)의 영향을 받아 에덴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해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땅이다. 더 나아가 송병현은 에덴동산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성막의 모형이라고 말한다. 이 성막을 통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성막의 지성소에는 에덴동산처럼 여러 나무가 있고 요한계시록(20,21장)에서는 성전과 낙원의 이미지가 겹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한다. 요한복음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한다. 이때 거하다(σκηνώω)는 ‘장막을 치다’는 뜻을 갖고 있다(이병철 편, 1987b: 4637).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장막을 치시고 인생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라는 뜻이다(Milne, 정옥배 역, 1995: 56). 이와 동일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타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계 7:15-17)”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이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생명과 기쁨은 구약성경에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자리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Mayes, 신정균 역, 2002: 132). 그러므로 시편 16편이 묘사하는 생명과 기쁨은 부활의 주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여 회복된 에덴으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타락 전에 태초의 아담이 누렸던 생명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 2)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

태초의 아담은 이런 거룩한 쾌락 속에서 완벽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 그런데 아담이 이런 행복한 삶을 상실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이 영원한 에덴(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바로 선악과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었다.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과 열매는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창 3:16,17). 이 명령에 순종하므로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청지기임을 신앙고백하게 된다. 이런 신앙고백 하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복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 명령을 어기고 만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선악과를 취한 것이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에덴동산(기쁨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만다(창 3:22).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비를 하셨다. 에덴동산 동쪽 입구에 하나님의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이다(창 3:24). 이 때문에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만다.

여기에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쾌락(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 받았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진정한 쾌락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 갈망은 믿음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 안에 잠재된 욕구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갈망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에덴동산(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 3)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심령은 에덴(쾌락)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갈망을 채울 길은 없다. 그야말로 범죄 한 인간은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딜레마는 인간의 내면에 끝없는 갈등과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인은 이런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문제는 이런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더 큰 영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제랄드 메이는 이렇게 잘못된 갈망으로 고통 하는 인간의 상태를 성경의 광야 이미지를 채용해 설명한다. 한 마디로 광야를 헤매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모습이다. 제랄드 메이는 이



런 바짝 마른 인간 영혼의 해갈은 오직 하나님의 생수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제랄드 메이는 인간 영혼을 적시는 생수를 이사야서에 나타난 에덴동산 이미지 통해 제시한다. “나 여호와와가 ~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사 51:3)” 그는 에덴동산 즉 하나님의 생명수야말로 인간영혼의 황폐함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May, 이지영 역, 1991: 151).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중독과 우상숭배의 유혹이 가득한 광야를 잘 통과하면 종말에 완성될 회복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맘껏 누릴 것이라고 강조한다(May, 이지영 역, 1991: 229).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 한다. 인간의 근원적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태도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태도를 우상숭배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상숭배 하면 보이는 형상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이런 행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 갈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모든 시도가 우상숭배적 행위다. 시편기자 다윗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시 16:3)” 이런 괴로움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인간의 중독의 고통과 거의 일치한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골 3:5)” 여기 나오는 탐심(πλεονεξία)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탐심은 세상의 다른 대상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시도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추구하는 대상을 우상화시켜 버리고 만다.

그럼 이런 탐심의 대상은 어떤 것일까? 누가복음 12장 15절은 풍부한 소유가 인간의 탐심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9절은 무절제한 성욕이 탐심의 대상이라고 암시한다(엡 4:19). 이외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 대신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모든 게 탐심이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다(갈 5:19-21).

에드워드 웰치는 이런 인간의 모든 행태를 우상숭배라고 설명한다. ‘우상숭배’란 인간의 상태를 가장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말인 동시에 통제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중독 경험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Welch, 김준 역, 2015: 77). 그는 이런 중독의 정의에 근거해 모든 중독의 본질이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우상의 땅에서 복을 찾는 데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연인은 창조주에게서 돌아서 피조물 안에서 내면적 갈망의 만족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요 탐욕이다. 이런 인간의 우상숭배적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재앙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데 무능해지는 것이다(May, 이지영 역, 1991: 14).

## 2. 인간과 중독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

### 1) 어거스틴의 향유와 사용

어거스틴은 그의 책 그리스도교 교양(DE DOCTRINA CHRISTIANA)에서 인간이 질서 있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건 바로 향유와 사용이다. 향유는 라틴어 ‘Frui’를 번역한 것이다. 사용은 라틴어 ‘Uti’를 번역한 것이다. 영어로 번역한다면 향유는 ‘enjoy’라고 번역하고 사용은 ‘use’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어거스틴의 교리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것들이다.

그럼 ‘향유’란 무엇일까? 어거스틴은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 그 자체 때문에 그 사물에 애착함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사용은 용도로 쓰이는 사물을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위해 쓰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귀향하는 나그네’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정의한다. 그럼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 당연히 삼위 하나님인 계신 에덴이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그네 된 우리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만 진정 행복할 수 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은 삼위 하나님만을 향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고향(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어거스틴은 사용(Uti)의 개념에 대해서도 ‘귀향하는 나그네’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진정 향유해야 할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 지상이나 바다의 탈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귀향 중에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나 운송수단의 움직임에 취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들을 향유하기로 변심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세상의 것을 향유하는 데 심취한 인간은 점점 삼위 하나님과 에덴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그는 그리스도교 교양 1권에서 향유의 바람직한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한다. 그는 향유하기 위한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7). 다시 말해 향유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사용의 대상은 우리가 행복에 이르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그는 만약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할 때 일어나는 비극적 상황을 제시한다. “만일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하려고 한다면 우리 갈 길이 막히고 때로는 비뚤어진다. 그 결과 열등한 사물에 대한 사랑에 말려들어 향유해야 할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수가 있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적 순례자인 인간이 목적지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이 세상을 사용해야지 향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그

의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향유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에덴의 어원에 근거해 표현한다면 그의 안에만 진정한 쾌락(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삼위 하나님만을 향유해야 한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 2) 질서 있는 사랑의 체계

어거스틴은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질서 있는 사랑에 대해 설명한다. 기독교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삼중적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둘째는 동료 인간과의 관계다. 셋째는 세상 만물과의 관계다. 어거스틴은 이런 삼중적 관계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뤄지려면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바로 이해해 합당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향유와 사용의 적절한 적용일까?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향유의 대상이다. 그분 안에 완전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른 대상을 의존해서 기쁨을 얻거나 행복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 자신 안에 완전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향유의 대상 이시다.

둘째 동료 인간은 인간의 향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처럼 향유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 자체 안에 행복과 기쁨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향유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용의 대상이다. 여기서 인간이 사용의 대상이라는 건 인간을 대상화하고 사물화하는 개념이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인간을 사랑할 때 이런 향유와 사용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료 인간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동료 인간을 사랑하고 향유할 때 하나님과는 구별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향유하는 동료 인간을 통해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은 동료 인간 자체 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인간 모두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적 향유의 대상이 아니다. 향유의 대상인 동시에 사용의 대상이다. 여기서 사용이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동료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나와 동료 인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는 관점에서 인간관계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  
기 위한 사용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어서 어거스틴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말한다. 필자는 어거스  
틴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의 놀라운 통찰력에 놀랐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침  
받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의 언급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다.

그는 그리스도교 교양 1권에서 이렇게 교훈한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  
똑똑히 지켜본다면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향유해야 하는 그분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까닭이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101).”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향유하  
는 것처럼 자기자신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원  
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인 이상 모든 인간의 자아는 행복과 기쁨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결코 향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통해 어거스틴은 자기  
우상화를 경계한다.

여기서 필자는 좀 어거스틴의 설명에 모호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향유의  
대상인 동시에 사용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자기자신을 향유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아닌가? 필자는 이런 의문을 이렇게 해석했다. 인  
간인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향유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다른 동료 인간처럼 나  
도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 둔 의존적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처럼 나 자신을 절대적 존재로 여기고 향유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나의 자아와의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배워간다는 관점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도 사용의 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더 엄밀히 지적한다면 사실 내가 나의 자아를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환대를 통해 나도 나의 자아를 환대할 힘을 얻기 때문이다. 대상을 통해 하나님  
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관계가 바로 사용이다. 이런 면에서 나의 자아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사용의 대상이다. 내가 나의 자아와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 하  
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어거스틴이 나 자신이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말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처럼  
자신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걸 나 자신을 향유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  
니다. 나 자신도 동료 인간에 대한 태도처럼 향유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기독교 교양의 전체  
적 문맥상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향유하  
되 자신의 피조성을 인식하므로 자기우상화를 경계해야 한다.

셋째 세상 만물은 사용의 대상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용의 개념을 자연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어거스틴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인간이 잘 관리해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용’의 개념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만물을 사용하므로 만물의 창조주를 더 깊이 이해하는 복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만물을 신격화하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 왔다. 성경 속 이집트의 ‘태양신 라’로부터 시작해 인류 역사 속에서는 태양과 달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그만큼 해와 달의 위용과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이 해와 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 해와 달은 우리 인간의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해와 달을 비롯한 자연만물을 신격화하고 숭배하지 않는다. 만약 자연만물을 숭배한다면 그건 남용이나 오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교양 1권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부당한 사용은 남용이나 오용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남용이나 오용 대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만물을 사용해야 한다. 즉 자연만물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한다.

이런 어거스틴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을 착취하는 현대 인류도 자연을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도리어 현대 인류의 자연 관리는 남용이나 오용에 가깝다. 어거스틴의 관점은 자연에 대해서도 인간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사용의 태도다.

삼중적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취할 향유와 사용의 적절한 태도를 라틴어로 정리해 보자. 1. Frui Deo(하나님을 향유하라) 2. Frui et Uti homo(인간을 향유하고 사용하라) 3. Uti mundo(세상을 사용하라). 향유(Frui)의 대상은 그 자체가 절대적 선인 존재여야만 한다. 이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도구 즉 사용(Uti)의 대상이다. 하나님 외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사용(Uti)의 대상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다. 인간은 절대적인 선을 가진 존재가 아니므로 사용(Uti)의 대상이다. 이와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향유(Frui)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독립적으로 향유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윤석후, 2010: 58). 도리어 철저히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향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인간은 자신에 대한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 살 때 인간은 질서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질서정연한 사랑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 3) 인간과 중독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

제랄드 메이는 중독이 인간에게 끼치는 가장 큰 재앙은 건강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이해는 어거스틴의 중독에 대한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어거스틴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어거스틴은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통해 인간이 삼중적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질서 있는 사랑의 길을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이런 질서 있는 관계를 벗어난 사랑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다. 그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한다. 나그네는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탈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아름다운 경치들을 감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인생이 자신의 운송수단과 스쳐 지나가는 경치에 빠져들어 그것들을 향유하게 되면 고향에 대한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거스틴은 이걸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선택이라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고향의 감미로움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미로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용의 대상인 세상을 향유하는 걸 오용(abusio)이라 부른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오용(abusio)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삼위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조된 세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보고 깨달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자연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향유하다가 오용(abusio)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세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찾거나 볼 수 없다. 영적인 눈과 귀가 잘못된 사랑에 취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점점 더 깊은 오용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 교양 1권에서 하나님 대신 천사나 인간을 향유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천사도 인간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종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탁월한 사도들조차도 신자의 향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안내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125). 그는 이를 성경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바울의 교훈을 인용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전 1:12,13)”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인용해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교훈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의 교훈을 한다. 여기서 그는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선물하신 사역자들과라고 말한다. 고린도교회를 위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결국 고린도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고전 3:4-7). 이런 말씀들을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사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향유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사역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 모든 성도의 향유의 대상인 하나님 대신에 사역자들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 싸웠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아닌 사람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만다. 이런 행태를 어거스틴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오용(abusio)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질서 있는 향유와 사용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용(abusio)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두가 파괴되고 만다. 당연히 관계적 존재로 지어진 본질적인 인간됨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삶에 처하게 된다.

어거스틴의 오용(abusio)의 개념에 근거해 로마서 1장의 인간의 우상숭배와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우상숭배를 이렇게 설명한다. “찍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찍어 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로마서 1:23)” 하나님 대신 사용의 대상인 동물의 모양을 본 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향유하는 인간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묘사다. 이게 무엇인가? 어거스틴의 개념으로 말하면 바로 오용(abusio)이다. 특별히 이 오용은 사용의 대상인 사물이나 동물을 절대적 존재로 향유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어거스틴이 볼 때 무질서한 사랑이다.

질서의 파괴는 인간의 삶에 도미노 현상과 같은 부정적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오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한 인간은 또 다른 관계적 왜곡을 일으킨다. 바로 조화롭고 건강한 인간관계의 파괴다. 그는 오용(abusio)의 열매가 관계를 파괴하는 온갖 악덕들이라고 설명한다(롬 1:26-31).

어거스틴이 말한 오용(abusio)은 인간 안에 중독과 집착의 성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오용하는 대상에 인간이 더욱 집착하게 한다. 이런 현상이 깊어지면 인간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더욱더 파괴적 중독현상에 빠져드는 것이다.

오용의 결과에 대한 어거스틴의 설명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중독현상과 유사한 묘사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라도 행로의 아름다운 경치라든가 탈것의 움직임이 우리를 유쾌하게 한다 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을 향유하기로 변심한다면 여행을 빨리 끝내기도 싫어지고 그릇된 감미에 빠져 고향에서 멀어지게 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세상의 것에 빠져 사용할 것을 향유할 때 믿음의 여정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릇된 감미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감미로운 기쁨에 대한 열망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중독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 3. 오용과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 1) 어거스틴의 경험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사람은 누구나 정도 차가 있지만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경험을 실례로 소개한다. 소녀 시절 모니카는 부모님의 술 심부름을 자주 했다. 모니카는 술을 병에 담기 전에 호기심에 술맛을 보았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반복되자 모니카는 술에 인이 박혔다. 어느 날 모니카는 하녀로부터 술꾼이라는 비난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즉시 술을 끊었다. 이 이야기 통해 어거스틴은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유하려 할 때 누구든지 악습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05-206). 이처럼 어거스틴은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중독의 문제는 평생 씨름했던 문제였다. 특별히 그는 고백록에서 성 중독에 대한 고백을 자주 한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성적 갈등을 고백한다. 그는 정욕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 향해 돌아가려 했지만 이를 방해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 한다. 어거스틴의 내면의 소리는 그를 향해 그 여자들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외쳤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87). 이것은 선을 열망 하지만 악을 선택하고 마는 바울의 고뇌와 매우 비슷하다(로마서7장).

고백록에는 어거스틴의 여성편력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동거한 여성 통해 아들까지 얻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권유로 다른 여성과 정식 결혼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식 결혼 전 그 여인과 정혼을 했다. 어거스틴은 결혼을 위해 아들까지 낳은 동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어거스틴은 정혼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2년간의 기다림에 돌입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는 중에 참을 수 없는 정욕에 굴복해 또 다른 여인과 동거하는 죄를 범했다. 그는 이게 순전히 정욕 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고백록에서 그의 습관화된 성적 갈

망이 심각한 질병이 되었다고 말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38). 뿐만 아니라 자신은 정욕과 악습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그의 모습은 인간을 향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탐닉했던 그의 오용(abusio)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

어거스틴이 친구 알리피우스와 네브리디우스에게 한 말은 이 당시 그가 얼마나 성적 쾌락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만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육체적 쾌락을 누리되 그것을 상실할 두려움도 없이 즐긴다 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39)” 이를 통해 회심 전 어거스틴이 얼마나 육체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노예화된 상태를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실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했지만 다른 사람의 죄사슬이 아니라 내 의지의 죄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적은 내 의지를 포로로 붙잡았고, 내 의지를 결박하는 사슬을 만들어, 그것으로 나를 묶어 두었습니다. 나의 타락한 의지는 육욕을 생산하고 또 육욕은 습관을 생산하고 습관은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 유혹을 생산했습니다. 이것들은 조그만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단단한 사슬처럼 나를 꼼짝 못 하게 가두어 버렸습니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74).”

그는 여기서도 오용(abusio)이 중독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향유해야 할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향유하는 오용은 왜곡된 의지로부터 나온다. 그 결과 육욕이 따라오고 그 육욕을 계속 따를 때 습관이 형성된다. 그는 여기에 더해 습관이 더욱 더 강하게 자기 자신을 거슬러 자신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했다고 고백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74).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습관에 매여 오용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중독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서 7장:22,23절을 인용하며 자신 안에서 습관이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사로잡고 영적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마음을 이끌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바울 사도의 외침(롬 7:24,25)을 인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75).

그는 이런 악습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갈망한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기쁨과 행복을 갈망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기쁨을 원하는가라고 물으면 모두 예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이 기쁨 그 자체를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길은 각기 다르지만 모든 인생의 목표는 동일하게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44).”

그런데 어거스틴은 모든 인생이 행복과 기쁨을 원하지만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 이유를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복락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정상보다는 자기 힘으로 손쉽게 오를 수 있는 기쁨에 머무른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얕은 세속적 기쁨으로 대치하며 사는 것이다 (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45). 문제는 어거스틴 자신도 이런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악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68).”

그럼 그는 어떻게 이런 세속적 기쁨과 악습에서 자유케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향유하는 진정한 기쁨에 이르렀을까?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한다. 그는 구원을 귀향으로 설명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7). 쉽게 말해 생명과 기쁨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성전으로의 귀향이다. 이를 통해 그는 오용과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어 삼위 하나님을 향유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질서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를 통해 우리가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총 밖에 없다고 선포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7).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 강조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5).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유하게 하는 일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회심경험을 고백록에서 설명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89). 어느 날 그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자신의 죄악과 노예상태에 대해 고민하며 번민했다. 이때 담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읽은 성경본문이 로마서 13장이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3,14)” 이때 그는 즉시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내면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나는 경험을 했다. 이를 볼 때 어거스틴의 회심은 들고 읽으라는 어린이의 외침에 따라서 읽은 성경 말씀과 그의 영혼을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예상태(중독)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 은총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거스틴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향유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달았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에덴의 기쁨이 그의 안에서 회복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향유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가 평생 갈망해 왔던 기쁨과 안식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45). 이런 그의 경험은 오용과 남용으로 얼룩진 노예상태(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향유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81).

## 2) 수가 성 여인의 경험

요한복음 4장의 수가 성 여인의 사례도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향유함으로 가능하다는 진리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고통과 번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관계에 매달렸다. 그렇지만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당시 이미 다섯 명의 남자를 갈아치웠고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그녀의 남성편력은 그녀가 어거스틴처럼 관계 중독의 죄사슬에 매인 바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그녀가 어떻게 이 죄사슬에서 자유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가능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자기 파괴적 관계중독에 탐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유하므로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용과 중독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유함으로써만 온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배정훈 외, 2022: 76). 그러므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물에 대한 오용이 아닌 하나님을 향유하므로 에덴의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 III. 결론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마음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한다. 자연인은 이 와중에 끊임없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는다. 이런 자연인의 모든 시도는 결국 오용으로 흐르고 만다. 오용이 반복될 때 인간은 악습의 굴레에 빠져 오용의 대상에 매인 노예가 되고 만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교훈하는 자기파괴적 중독의 진행과정

이다. 어거스틴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향유하려는 갈망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닮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세상의 늪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못했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1).

그럼 자연인이 어떻게 이런 오용과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세상을 조화롭고 규모 있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이는 치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아담은 불멸을 약용하여 멸망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을 선용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으로 죽은 인생들을 해방시키신 것이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3,94).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한다. 어거스틴은 성자를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이른다고 말한다.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성령의 역할도 동시에 강조한다. 그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키셔서 우리가 죄하지 않는 최고 선 안에 늘 머무르게 해 주신다고 말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129). 인생이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성전을 되찾으려면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인간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향해 자기의 온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때 은혜가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고 작용케 된다. 어거스틴이 오랜 영적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기쁨을 찾은 이유는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께 순복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소개된 신용원 목사의 체험은 중독에서 해방되는 영적원리를 잘 보여준다. 그는 젊은 시절 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마약중독 때문에 연이어 수감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마약을 끊지 못하고 더욱 집착했다. 그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자살을 결심했다. 그는 자살 전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그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때 그는 강력한 성령체험을 했다. 그는 성령체험을 통해 마약을 능가하는 커다란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이를 통해 마약이 주는 쾌감보다 성령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똑똑히 체험했다(국민일보 2015. 04. 17.). 이후 그는 34세에 신학대학에 입학해 목사가 되었다. 현재 그는 마약중독자 재활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는 이 모든 게 성령님의 은혜라고 간증한다(국민일보 2015. 04. 22.). 그의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그의 순종의 열매다.

이런 실례는 하나님을 향유하는 진정한 기쁨이 오면 세상의 것을 향유하는 왜곡된 기쁨은 자연히 물러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향유할 때 우리 안에 에덴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인생의 진정한 고향 에덴으로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고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고향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의 실존이다. 이런 자는 지금 여기서 회복된 에덴을 누린다. 그리고 종말에 넉넉히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에 안겨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은우 (2016).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과 교육: 인식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 [Kim, E. W. (2016). Augustine's Happiness and Education: concerning epistemology.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김준 역 (2015). **중독의 성경적 이해**. Edward T. W. (2001).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Kim, J. (2015)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Seoul: DMIBooks. Trans. Edward, T. W. (2001).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New Jersey: P&R Publishing.]
- 김평옥 역 (1998). **성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Augustinus, A. (400). 서울: 범우사.
- [Kim, P. O. (1998). *St. Augustine's Confession Book*. Seoul: Beomwoosa. Trans. Confessiones. Augustinus, A. (400).]
- 배정훈·우병훈·조윤희 (2022). **초대교회와 마음의 치유**. 군포: 도서출판 다함.
- [Bae, J. H., Woo B. H. & Cho, Y. H. (2022). *The first church and healing of the mind*. Gunpo: Book Publishing Daham.]
- 소기천 역 (2011). **요한계시록**. Boring, M. E. (1989). *Revelation*.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 [So, K. C. (2011). *Revelation*. Seoul: Korea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Trans. Boring, M. E. (1989). *Revel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 성염 역 (2011). **그리스도교 교양**. Augustinus, A. (397). *DE DOCTRINA CHRISTIANA*. 서울: 분도출판사.
- [Seong, Y. (2011). *DE DOCTRINA CHRISTIANA*. Seoul: Bundo. Trans. Augustinus. A. (397). *DE DOCTRINA CHRISTIANA*.]
- 송병현 (2010). **엑스포지멘터리-창세기**.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 [Song, B. H. (2010). *Genesis*. Seoul: International Disciple Training Institute for Book Publishing.]
- 신성만 (2020). **중독상담학개론**. 서울: 학지사.
- [Shin, S. M. (2020). *Introduction to Addiction Counseling*. Seoul: Hakjisa.]
- 신정균 역 (2002). **시편**. James, L. M. (1994). *Psalms*.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Shin, J. K. (2002). *Psalms*. Seoul: Korea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Trans. James, L. M. (1994). *Psalms*. Louisville: John Knox press.]
- 양선건 (2018). **아우구스티누스의 덕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Yang, S. G. (2018). *On St. Augustine's virtue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윤석후 (2010).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나타난 행복의 문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Yoon, S. H. (2010). *The issue of happiness in Augustine's thought*.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이지영 역 (2002). **중독과 은혜**. Gerald, G. M. (1991). *Addiction and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서울: IVP.
- [Lee, J. Y. (2002). *Addiction and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Seoul: IVP. Trans. Gerald, G. M. (1991). *Addiction and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San Fransisco: Harper One.]
- 이병철 (1987a). **성서원어대전 구약신학사전 II**. 서울: 브니엘 출판사.
- [Lee, B. C. (1987a). *Old Testament Theological Dictionary II*. Seoul: Beniel Publishing Company.]
- 이병철 (1987b). **성서원어대전 헬한 완벽사전 IV**. 서울: 브니엘 출판사.
- [Lee, B. C. (1987b). *Biblical Native Language Exhibition Greek-korean Perfect Dictionary IV*. Seoul: Beniel Publishing Company.]
- 정옥배 역 (1995). **요한복음 강해**. Bruce M. (1993). *The Message of John*. 서울: IVP.
- [Jeong, O. B. (1995). *The exegesis of John's gospel*. Seoul: IVP. Trans. Bruce M. (1993). *The Message of John*. Leicester: IVP of England.]
- “역경의 열매. 신용원 편”, 국민일보
- [Kook Min daily news. The fruit of hardship. Shin, Yong-won]

## 중독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이해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그리스도교 교양을 중심으로-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world-view  
on the addiction: focusing on Augustine's  
CONFESSIONES and DE DOCTRINA CHRISTIANA

남 규 열 (고신대학교)

### 논문초록

제랄드 메이는 중독이 인간에게 끼치는 가장 큰 재앙은 건강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이해는 어거스틴의 중독에 대한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어거스틴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어거스틴은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통해 인간이 삼중적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질서 있는 사랑의 길을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이런 질서 있는 관계를 벗어난 사랑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용의 대상인 세상을 향유하는 길 오용(abusio)이라 부른다.

오용(abusio)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삼위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를 통해 드러내시는 당신의 본성을 보거나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어거스틴이 말한 오용(abusio)은 인간 안에 중독과 집착의 성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오용하는 대상에 인간이 더욱 집착하도록 만든다. 이런 현상이 깊어지면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더욱 더 파괴적인 중독현상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럼 자연인이 어떻게 이런 오용과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세상을 조화롭고 규모 있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인생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환대할 때 가능하다 말한다. 더 나아가 인생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향유할 때 오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된다고 말한다.

주제어: 중독, 향유, 사용, 남용, 질서, 기쁨

## 그룬트비의 경제사상: 그 발전과정과 배경\*

### The development and backgrounds of Economic thoughts of N.F.S. Grundtvig

이명현 (Myungheon LEE)\*\*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Grundtvig's economic thoughts focusing on his two important works. In "Mands Minde", Grundtvig found the engine of British economic prosperity in "work based on th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 and "freedom". His economic ideas were deepened and systematized in "The Danes," in which he emphasized "protection of ownership" and "freedom of business", proposing a set of concrete liberal economic policies. Nevertheless, he presented a vision of a society in which the middle class constituted the majority, for the realization of which he urged his country to set limits on the exercise of ownership by landowners concerning the level of rent, lease period, and the choice of the buyer. Among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his thinking were the tense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situation of the constitution-building process and the First Schleswig War, as well as the intensified class conflict in the countryside. On the other hand, it is worth noting that an ideal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underlies the argument for restrictions on the private land property, and that he also emphasized enlightenment to make economic agents recognize and pursue the common good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economy.

**Key words:** Grundtvig, economic sytem, freedom, property rights, peasant farmers

\* 2023년 5월 12일 접수, 6월 12일 최종 수정, 6월 1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1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세 분 논문심사자들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Inche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교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moseslee65@gmail.com

## I. 서론

덴마크는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GDP, 사회복지 수준, 혁신적 경제활동, 국민들의 행복도(幸福度) 등이 모두 높아서<sup>1</sup> 모범적 국가로 손꼽힌다<sup>2</sup>. 덴마크가 이러한 성취를 이루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는데 그중 19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인 그룬트비(N.F.S. Grundtvig, 1783~1872)의 활동 및 그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그룬트비주의자(Grundtvigian)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인정된다. 즉 민주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되는 19세기에 그가 제시한 사상과 그룬트비주의자들의 실천을 통해서 덴마크 사회가 높은 통합성을 갖게 되었고, 독립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청소년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 제도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Jespersen, 2004: 110-112). 또한 그의 이상에 영향을 받은 ‘국민대학(Folk High School)’에서 교육을 받은 농민들이 덴마크 농업과 덴마크 사회 전체의 특징이 되는 협동조합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Jespersen, 2004: 153).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의 사상은 덴마크는 물론 국제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예컨대, Allchin et al. 1994: 2000).

그룬트비는 신학, 문학, 역사, 정치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근현대 덴마크의 정신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sup>3</sup>. 목사로서 목회 활동은 물론 교회와 신앙의 자유에 관하여 깊은 사유를 전개하였다. 고대언어문학자로서 북유럽 신화를 덴마크어로 번역하여 보급하였고, 덴마크의 언어유산을 연구하고, 교회 회중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찬송시를 썼다. 역사가로서 세계사를 자신의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그 가운데 덴마크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강연과 저서를 통해서 대중에 확산시켰다. 특히 당시 고전어와 형식적 지식 전수 중심의 학교 교육을 비판하면서 모국어와 실생활에 기반한 진정한 인간, 건강한 덴마크인 양성을 위한 ‘삶을 위한 학교’ 사상을 설파하여 후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이상 분야에 대한 대표저작으로 Grundtvig, 1808, 1827, 1832, 1837, 1838a, 1838b, 1845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848년 덴마크가 의회민주주의로 이행한 후에는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현실정치에도 참여하면서 당대의 정치와 경제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 논문은 그룬트비가 영향을 미친 방대한 영역 중에서 경제사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제체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활동 자유, 소유권, 그리고 중요한 생산요소인 토지의 분배와

1) 2023년 IMF 보고에 따르면 덴마크는 1인당 GDP 68,830달러이고(www.imf.org), EU 혁신 상황판(innovation scorebord)에서 혁신 선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22년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순위에서 2위였다.

2) 오연호(2014)는 바람직한 사회경제 모델로서 덴마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중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3) 그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으며 그 대부분을 <http://www.xn-grundtvigsvrker-7lb.dk/>에서 볼 수 있다.

소유에 대해서 그의 사고(思考)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러한 사고가 기독교적 사상 및 그의 인문사상 중 핵심인 ‘계몽’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룬트비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그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예컨대 김기환, 2020, 정해진, 2015). 최근의 대표적 연구인 김기환(2020)은 다른 교육사상가들과 함께 교육사상이 가진 사회적 함의와 가치 그리고 방법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단, 송순재(2020)는 기독교와 민족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룬트비와 함석헌의 사상을 비교하고 있다.

덴마크와 그 밖의 외국에서도 그룬트비에 대한 연구는 그의 인문적 계몽과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사상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 Wählin (1989)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룬트비 경제사상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상세하고 근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룬트비 시대에 사상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경제사상들을 정리하고 19세기 덴마크의 계급과 경제적 조건의 맥락 속에서 그룬트비 경제사상의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그룬트비가 경제활동을 인간론, 사회론의 틀 속에 어떻게 위치 짓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소유권, 계급, 빈곤대책,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Wählin(1994)은 그룬트비 시대에 최대의 정치적 문제였던 솔레스비히-홀슈타인 분쟁의 맥락 속에서 그룬트비의 정치사상을 설명하면서 그의 경제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보다 폭 넓은 연구 주제를 잘 보여주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으로 Hall et al.(2015)를 들 수 있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민족 형성(Nation Building)이라는 정치학적, 역사학적 개념의 틀로 덴마크가 근대민족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에 그룬트비와 그룬트비주의자들이 끼친 영향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이 중 Vind(2015)는 그룬트비와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Broadbridge and Korsgaard(2019)는 그룬트비의 저작 중 정치, 사회, 경제문제에 대한 논설들을 선택하여 영역(英譯)한 문집으로 주제별로 그룬트비 문헌과 사상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덴마크 연구자들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룬트비가 남긴 원전들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그의 경제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그룬트비의 저작 중 경제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지목하는 두 개의 저작, 즉 “삶의 기억”(1838) 중 영국에 대한 언급들과 “덴마크인”(1848, 1849, 1850) 중 경제문제에 대한 논설들 사이에 어떤 변화 혹은 발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두 문헌들에 나타난 그룬트비의 경제문제 대한 견해들을 주제별로 제시함으로써 그룬트비의 경제문제에 대한 사고를 하나의 체계로 재구성하려고 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두 문헌을 비교해 보면 전자에 비해서 후자에서 그룬트비의 경제문제에 대한 사고가 훨씬 체계화,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두 문헌 각각을 검토하고 그사이에 보이는 차이점이 무

엇인지를 찾고,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 가설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같은 검토를 통해서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발전해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발전에 개인적 체험, 구체적 시대 상황, 그리고 그의 역사 인식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룬트비의 인문적, 교육적 사상의 핵심인 ‘계몽’(Oplysning)이 경제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룬트비 경제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그의 경제사상에 아담스미스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룬트비가 가지는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반면 그가 평생에 걸쳐 구축한 사상체제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몽’의 개념이 그의 경제문제에 대한 사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브로드브릿지와 코스가르드(Broadbridge and Korsgaard, 2019; 288)의 간략한 언급 외에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그룬트비가 바랍직한 덴마크의 경제체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 특히 자영농민이 공동선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갖도록 ‘계몽’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살핌으로써 그의 사상체제 전반과 경제역역에 대한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로 그룬트비가 덴마크의 바랍직한 경제체제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자영농민(自營農民) 육성을 위해서 제시한 구체적 정책의 내용과 그 사상적 배경을 보다 상세히 살피고자 한다. “덴마크인”에서 그가 밝힌 자영농민 육성 강조에 대해서는 이미 볼린(Wahlin, 1989; 279-281)과 브로드브릿지와 코스가르드(Broadbridge and Korsgaard, 2019; 287-288)가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정책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바탕에 어떤 사상적,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를 작은 범위에서나마 보충하고자 한다. 즉, 자영농민 육성을 위해서 그가 제안했던 정책의 핵심이 토지 관련 소유권 행사에 대한 규제였음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이 사상적으로는 일종의 토지공유개념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덴마크가 성취한 농업개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그룬트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정치적, 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살핀(2장) 후에 그의 경제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문헌의 내용을 저작 순서대로 검토함으로써 그의 경제사상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먼저 1831년 발표된 ‘덴마크와 홀스타인에 관한 정치적 고찰’이라는 논설 속에서 그룬트비가 자본주의적 공장제도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덴마크의 농업개혁의 성과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볼 것이다(3장). 다음으로는 1838년에 행한 강연 시리즈 ‘삶의 기억(Mands Minde)’ 중 특히 영국에 관한 강연들을 통해



서 그가 영국에서 보았던 이익 추구에 입각한 경제활동과 시민적 자유를 번영의 기초로 찬양하는 입장이었으면서, 동시에 영국의 경제 및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즉 자본주의적 공장 체제가 초래하는 비인간화,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토지 독점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것이다(4장). 그리고 1848년부터 1851년까지 발행했던 주간지 ‘덴마크인(Danskeren)’에 실었던 논설들을 통해서 그의 사상 중 자유주의적 경향이 어떻게 보다 명료해졌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자영농민 육성을 핵심적 과제로 설정했는지, 이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제안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5장).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제시한 이 논문의 세 가지 관심사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6장).

## II. 시대적 배경과 그룬트비의 기여

그룬트비가 살았던 19세기에 덴마크에서는 이른바 이중혁명(二重革命), 즉 정치체제면에서 절대왕정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Jespersen, 2004; 140-143). 덴마크의 특징은 그러한 과정이 국토상당 부분의 상실로 인해서 중규모의 다민족-다언어 국가에서 동질성이 높은 소국(小國)으로 바뀌는 변화와 중첩되었다는 점이다.

정치적 전환은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촉발된 코펜하겐 자유주의자들의 시위로 의회가 성립되고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일어났다. 그 이전의 절대주의 시기에도 덴마크의 왕정은 국민과의 계약적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1831년에 이미 지방자문회의(Rådgivende Provinsialstænder (Stænderforsamlinger))가 구성되어 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고 있었다. 1848년 혁명으로 입헌군주제로 전환되고 나서 정치무대에서는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대립하였고 후에 자영농민 계층도 중요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의회권력과 왕권의 관계, 선거권의 확대, 쉘레스비히-홀스타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경제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룬트비 생전에 산업사회로 본격적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는<sup>4</sup> 나 18세기말에서 시작된 농업개혁(agrarian reform)을 통해서 중세적, 절대주의적 농업구조가 근대적 자영농 체제로 전환되었다. 농업개혁이 시작되기 전 덴마크 농업은 왕실을 포함한 귀족 장원주들(Herremænd)이 대부분의 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차지농(借地農)(tenants)들이 실

4) 덴마크에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1870년대 이후라는 데에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Lampe and Sharp, 2018: 210-214)



제 경작을 대부분 담당하는 구조였다. 장원주들은 차지농에 대해서 사법권, 체벌권, 징세권, 청년들의 거소(居所) 지정하는 권리(adscription) 등 경제외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기반하여 차지농들을 장원에서 일정한 시간 강제로 노역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작지는 분산착포제(分散錯圃制) 및 삼포제로 경영되고 있었고 새로운 농업기술(윤재식(輪栽式)농업)이 도입되면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선진적 지주들과 농업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국가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했던 국가 및 관료지식인들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으로서 덴마크의 농업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개혁은 경제외적 강제 및 봉건적 부담의 철폐, 안정적 법적 지위를 가진 차지농 및 자영농의 창출, 경영단위로의 농지통합, 분산착포제의 극복과 균등한 규모를 가진 농장의 창출, 취락구조의 개편, 차지농의 강제노동이 아니라 임금노동에 입각한 장원주 대농장의 출현, 근대적 윤작체계 도입 등 종합적인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국 이를 통해서 균질적인 자영농 중심의 농업구조가 출현하였고 그 결과 19세 말부터 덴마크가 농업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덴마크의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져서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sup>5)</sup>.

이처럼 중대한 정치, 경제적 변화를 겪는 시기에 덴마크는 영토와 인구 면에서 소국으로 축소된다. 중세에 지금의 덴마크, 영국 일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북부(슐레스비히-홀스타인)에 걸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덴마크 왕국은 18세기 말에는 이미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북부로 축소되어 있었는데,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1814년에 노르웨이를 상실했고, 다시 1864년에는 슐레스비히-홀스타인을 대(對) 프러시아 및 오스트리아 전쟁(2차 슐레스비히 전쟁)을 통해 상실하였다. 이 과정은 국세(國勢)를 크게 축소시켰지만, 다른 한편 ‘덴마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와 논의가 전개되게 하였고 이를 통해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문화적, 사상적 틀이 형성되었다. 즉, 덴마크가 복합민족-복합언어를 지닌 중규모 국가에서 단일민족-단일언어를 가진 소규모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Østergård, 2015: 특히 127-128).

이처럼 근대국가로서 덴마크가 재구성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과정에서 그룬트비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정치영역에서 그룬트비는 1848년 혁명 이전에 의회주의자가 아니었고 혁명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집단을 형성하거나 구체적 정치적 의제와 관련하여 지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의회제가 성립한 후에는 의회제와 시민적 자유의 확대를 일관되게 지지하였고, 1860년대 2차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자유주의 세력이 권력을 상실하고 보수화가 진행될 때 이에 대해서 반

5) 이 단락은 Baack(1977), Jespersen, K. (2004)의 제6장, 그리고 Lampe and Sharp(2018)의 1장과 2장을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다.

대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의회 성립 이전에 이미 문화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그의 이러한 행보는 덴마크 민주주의 정착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전쟁을 거치며 두드러지게 된 덴마크의 민족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그룬트비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저작, 중세 덴마크어를 포함한 북유럽언어 연구 및 문학작품 번역, 강연을 통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는 로마, 독일, 프랑스와 구분되는 북유럽 정신의 건강성을 강조하였고, 덴마크 민족 정체성의 중심으로 북유럽 신화와 덴마크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근대적 국가의 중심이 될 일반 국민의 계몽을 위한 교육에서 이러한 고유의 역사, 신화, 언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룬트비의 사상은 서론에서 언급한 덴마크 특유의 교육체계 형성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로써 그는 덴마크의 영토와 구성 민족의 외연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 내 주권자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대중(mass)’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국민(people)에 속해 있음을 자각시키는데’에 (Broadbridge & Korsgaard, 2019: 288)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경제적 영역에서 농지개혁, 산업화의 진전은 대외 전쟁 못지않게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긴장 속에서 그룬트비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직시함과 동시에 덴마크의 조건을 반영한 바람직한 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려 하였다. Wählin(1984)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계기를 통해서 변화해 갔다. 그의 저작 안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강조, 공공선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그리고 평등사회에 대한 지향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서 덴마크의 모든 정파들이 그룬트비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Vind, 2015: 263). 예컨대 그의 시구(詩句)인 ‘지나치게 부자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몇 명 되지 않는(Faa har for meget og faerre for lidt) 나라’는 정파를 막론하고 덴마크인들이 지향하는 경제적 이상을 나타내는 표어가 되었다<sup>6</sup>.

### III.“정치적 고찰”과 “삶의 기억”에 드러난 ‘농장(農莊)’의 이상화

그룬트비가 자신의 경제사상을 피력한 중요한 문헌으로는 1831년에 발표한 ‘덴마크와 홀스타인에 관한 정치적 고찰’이라는 논설, 1838년에 행한 강연 ‘삶의 기억(Mands Minde)’ 중 특히 영국에

6) 이 시구의 배경과 후대 정치세력들이 그것을 인용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s://danmarkshistorien.dk/vis/materiale/myte-var-grundtvigs-ord-naar-faa-har-for-meget-og-faerre-for-lidt-velfaerdsstatens-daabsattest>

관한 강연들, 그리고 1848년부터 1851년까지 발행했던 주간지 ‘덴마크인(Danskeren)’에 실린 경제 문제에 관한 논설들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서 그가 경제에 대해서 가졌던 사상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831년 발표된 ‘덴마크와 홀스타인에 관한 정치적 고찰’은 그룬트비가 현실 정치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글이다(Broadbridge & Korsgaard, 2019: 76). 여기서 그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의를 가진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보수적인 정치관(政治觀)의 피력이라고 볼 수 있다.<sup>7</sup> 그룬트비는 1848년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을 일으킨 3월 혁명 이전까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견해의 밑바탕에는 1660년 프레데릭 3세 때 이루어진 봉건제의 절대군주제로의 평화적 전환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보고 또한 그 후 군주제하에서 이루어진 업적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의 인식이 깔려있다(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

경제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순수한’ 군주제를 지지하고 과두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덴마크의 농장(Gods)과 역시 ‘잘 관리되고 있는’ 영국의 공장을 비교한 부분이다(Wählin, 1994: 158).

전자(덴마크의 농장을 말함: 필자)에서는 모든 것이 일반의 복지와 미래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반면, 후자(영국의 공장을 말함: 필자)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되는 한편 노동자들은 기계를 대하는 것 같은 무관심 속에 소모되고 버려진다. 다른 한편 일을 맡은 사람은 관련자들을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온갖 흥정과 술수를 통해서 빼어먹음으로써 자기자신이 한몫을 잡으려고 한다(Grundtvig(1831), 1절)<sup>8</sup>.

여기서 ‘덴마크의 농장’과 ‘영국의 공장’은 군주제와 과두제를 비교하기 위한 비유(譬喩)의 보조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두 생산 단위의 특징을 ‘운영의 목적(일반의 복지인가 소수자의 이익인가)’과 ‘운영에 고려되는 시간의 길이(미래인가 순간인가)’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공장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들을 소모하고 폐기하는 공장제의

7) 이 논설의 역사적 배경과 거기서 그룬트비가 정치체제에 대해서 전개한 논리에 대해서는 Wählin(1994)를 참조하라.

8) 덴마크어 전문가의 질정(叱正)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하 그룬트비를 인용할 때 각주에 원문을 보인다. Hist seer Man da Alt beregnet paa almindelig Velstand, og paa Frem-Tiden, her derimod Alt beregnet paa Øieblikket, og paa Eiernes Vinding, mens Arbeiderne slides op og casseres med samme Ligegyldighed som Machinerne; og mens han, der staaer for Værket, seer til at skabe sig en uafhængig Formue, om ikke ved at bedrage Interessenterne, saa dog ved at prutte og hokre saa det svider til Stympene.

문제점도 직시하고 있다. 즉, 이윤추구 원리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가 단기적 이익 추구, 공공적 가치의 경시, 인간의 도구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룬트비가 옹호하고자 하는 군주제의 비유 대상으로서 ‘농장’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당시 덴마크에는 영국과 달리 산업화가 진전되지 않아서 가장 주요한 경제활동 단위가 농장이었다는 데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배경 요인은 그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이루어진 덴마크의 농업개혁을 매우 중시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1838년 그가 행한 강연 시리즈 “삶의 기억”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그 개혁과 1834년 설치된 국민자문위원회(folkelige Statsraad)를 덴마크가 이룬 위대한 성취로 평가하고 있다.

프레데릭 6세의 아버지와 같은 통치 아래에서 최근 50년간 이루어진 농민계층의 성장, 덴마크어의 존중과 계발, 국민정신의 재각성과 국민심성의 회복, 이것은 바로 사회의 행복을 위한 진보였다. 나 뿐만 아니라 눈밝은 모든 세계인들이 이러한 발걸음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즉 1788년 영주의 농민 출향제한권 폐지와 1834년 국민자문회의의 설치를 ‘거인(巨人)의 걸음’으로 부르고 있다 (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sup>9</sup>.

1733년 창설된 영주의 농민 출향제한권(出郷制限權:덴마크어 stavnsbaand, 영어 adscription)은 일정한 연령대의 농민 남성들이 영주의 허가 없이는 자신이 출생한 영지를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1730년대 덴마크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서 곤궁에 처한 농민들이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로 이동하자 자신의 장원경작을 위해서 노동력 확보를 원했던 영주계급과 군(軍) 병력 확보가 필요했던 절대왕정의 이익이 서로 부합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sup>10</sup> 이같은 영주의 경제외적 강제 폐지는 절대왕정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근대적 사회로의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된 농업개혁의 중요한 고리이기도 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룬트비는 이러한 영주의 강제력 폐지와 농민계층의 성장을 19세기 전반<sup>11</sup>에 이루어진 덴마크의 중요한 진보로 인식하

9) alt, hvad der i de sidste halvtredsindstyve Aar under Frederik den sjettes faderlige Styrelse [er sket] til Bondestandens Opkomst, til Modersmaalets Adling og bedre Dyrkelse, til Folke-Aandens Oplivelse og Folke-Hjærtets Vederkvægelse, det er lige saa mange Fremskridt til borgerlig Lyksalighed; og det er ikke blot mig, det er hele den oplyste Verden, der kalder to af disse Skridt Kæmpe-Skridt, nemlig Stavnsbaandets Løsning 1788 og Oprettelsen af det folkelige Statsraad 1834.

10) Jespersen(2004), p.55, <https://danmarkshistorien.dk/vis/materiale/stavnsbaand-1733-1800>

11) 프레데릭 6세는 1808년부터 1839년까지 재위했다.

고 있었고 이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농민의 자기 소유에 입각한 자영 농업을 경제체제의 중심으로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 IV. “삶의 기억”에 드러난 영국 찬양과 비판

그룬트비는 “삶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1838년에 51회에 걸친 연속강연을 행하였다. 이 강연은 유럽 각국에서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와 교훈을 자신의 시각으로 정리한 것으로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Broadbridge & Korsgaard, 2019: 43). 여기서 경제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의 성취에 대한 그의 찬탄과 비판이다<sup>12</sup>. 여기에는 당시 영국 사회의 특징이었던 이익 추구, 노동과 산업, 자유에 대한 그의 긍정적 입장과 그러한 원리에 기초한 산업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그의 예리한 비판이 모두 나타나 있다.

### 1. 찬탄: 이익추구와 자유

그룬트비는 1829, 1830, 1831년 3차례에 걸쳐 국왕의 재정지원을 받아 영국에 체류하면서 당시 유럽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직접적 관찰에 근거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과 기업이 인간의 삶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찬탄한다.

대부분 곳에서 사람들은 채찍 때문에 일한다. 독일에서 근면(Arbejdsmhed)은 그 자체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미덕으로 여겨지며, 일(Arbejde)에서 얻는 이익이나 즐거움이 적을수록 더 순수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 이 수고는 충분히 할 만하다. 왜냐하면 근면이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오랫동안 의심해 왔지만, 근면의 대가(代價)가 가장 높고, 그것만이 인간의 삶과 그 모든 힘과 유익하게 교환되는 것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렇다, 자유롭게 활기 있는 기업활동, 이익이 되는 것을 능숙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진정으로, 영속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에 대한 밝은 안목, 이것이야말로 내가 영국에 대해서 내가 감탄해 마지않는 점이다(Grundtvig(1838), 11월 9일 강연)<sup>13</sup>.

12) 이 강연에는 프랑스 대혁명의 의미와 그것이 공포정치와 나폴레옹의 독재로 이어지게 된 이유, 독일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독일통일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도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그룬트비는 ‘도덕’이 아니라 ‘이익 추구’가 일과 근면의 동기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동기에 이끌린 근면이 ‘인간의 삶(Minneske-Livet)’과 ‘결실이 풍부한(frugtbart)’ 교환작용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룬트비는 그 사상체계 전반에 걸쳐서 ‘삶(Livet)’을 죽음과 대비시키면서 인간과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로 부각하고 있다.<sup>14</sup> 따라서 이익 추구에 기반한 근면을 인간의 ‘삶’이라는 가치와 연결함으로써 그는 근면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용인(容認)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익추구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 위에서 그룬트비는 영국의 발달한 산업과 그로 인해 축적되는 부의 근원이 ‘자유’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후술할 “텐마크인”이라는 주간지에 게재된 논설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본 이후로는 두 가지 악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자유 없는 질서보다는 질서 없는 자유가 낫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힌다(Grundtvig(1848), 3월 14일 자 논설).

경제적 번영의 전제 조건으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영국 자유주의의 특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기심(self-love)’이 교환과 시장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발전하는 분업과 생산력의 증대가 국가의 부(富)를 가져온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개별 주체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중상주의적 국가개입을 비판했다. 이러한 이론은 당시 유럽 지성인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룬트비도 이 이론을 알았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sup>15</sup>

그러나, 그룬트비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적 번영의 기초로서 경제적 이익 추구의 자유뿐 아니라 시민적 자유, 특히 신앙과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인이든 대장장이든, 그 어떤 자유로운 영혼이 질서를 배우려고 감옥에 있기를 바라겠는가? 또한 밀치고 밀어냄을 아무리 당하더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쓸 수 있고, 자신의 먹을 것을 벌고 자신의 견해를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유럽 어

13) Ja, m. H., de fleste Steder arbejder man for Prygl, og i Tyskland ansér man Arbejdsomhed for en Dyd, der bør øves for dens egen Skyld og bliver renere, jo mindre enten Nytte eller Fornøjelse man har af sit Arbejde; men vil man se Folk arbejde udelukkende for Nyttens Skyld, da maa man rejse til England, og det er nok Umagen værdt; thi lad det længe nok være tvivlsomt, om denne Arbejdsomhed er Mennesket værdigst, saa er det dog lige vist, baade at den betaler sig bedst, og at den alene staar i frugtbart Vexel-Virkning med Menneske-Livet og alle dets Kræfter. Ja, m. H., den fri og levende Virksomhed, det mesterlige Greb paa det gavnlige og det klare Syn for det virkelig og varig ærefulde, det var egentlig, hvad jeg beundrede i England.

14) 예를 들어 1838년 발표한 학교에 대한 논설 ‘소외의 삶을 위한 학교와 아카데미(Skolen for Livet og Akademiet i Soer borgerlig betragtet)’에서 이 대비가 두드러진다.

15) Vind(2015)는 그룬트비가 스미스의 ‘국부론’ 책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가 스미스를 인용한 적은 없으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알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Vind(2015), p.257, 264). 또한 그가 영국의 자유주의적 학술자들을 정기구독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Vind(2015), p.257).



디에도 이 모든 것을 영국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야말로 바로 영국의 산업과 영국의 부의 근원이며, 이야말로 영국의 위대한 업적을 설명해주는 바이며, 내가 영국을 찬양하는 이유이다.(Grundtvig(1838), 11월 12일 강연)<sup>16</sup>

그룬트비는 1827년 발표한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Om Religions-Frihed)’라는 논설에서 국가가 개인의 신앙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격한 바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행했던 신앙 문제 관련 강제 조치들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강제는 신약성경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며, 그 후 기독교의 전개 과정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잘못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Grundtvig(1827)). 또한 그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정신적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통찰하였다(Broadbridge & Korsgaard, 2019: 206-207, 211-216)<sup>17</sup>. 또한 언론의 자유는 그룬트비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다. 그는 1825년 신학교수 클라우젠의 저서를 문서로 격렬히 비판한 결과<sup>18</sup> 클라우젠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종신 감옥 대상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계기를 떠나서도 ‘자유’는 그룬트비의 전체 사상체계에서도 ‘입으로 하는 말’, ‘삶’, ‘문화적 민족주의’, ‘공동체적 시민’ 등과 더불어 핵심적 요소이다(Michelson, 1969: 291).

또한 그는 자신이 증기기관을 처음 대하였을 때 느꼈던 충격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그것을 자신이 평생을 통해서 찬양했던 ‘북유럽의 위대한 영혼’에서 나온 것으로 찬탄하기까지 한다.

누구든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상가는 강력한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강력한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면, 증기기관이 가진 수천 마력의 힘을 보고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과 그 발견자들 속에 있는 북유럽의 위대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16) Rimsmed eller Grovsmæd, hvilken fribaaren Sjæl skulde ønske sig i Tugthuset, for at lære Orden, skulde ikke taale mange Puf og Stød, for at kunne frit baade dyrke sin Gud og anvende sin Tid og sine Kræfter, tjene sit Brød og udbrede sine Anskuelse; og alt dette kan man ingensteds i Evropa saa frit som i England; det er Kilden til den engelske Virksomhed som til den engelske Rigdom, det er Forklaringen af det engelske Størværk, det er Grunden, hvi jeg priser England.

17) 이것을 그룬트비는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국인의 신앙과 양심은 노예가 되기 전에는 통제될 수가 없다 - 손과 발과 펜과 입이! (Broadbridge and Korsgaard(2019), p.211)

18) 클라우젠은 성경이 신앙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신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룬트비는 이에 맞서서 기독교의 기초로서 역사를 강조하고 교회 공동체와 성례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Allchin, 2015: 105-111).

19)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는 이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집필되었다. 따라서 이 재판이 이 글의 외적 동기일 수 있다. 그룬트비가 받았던 평생 감옥 대상 명령은 1837년 해제되었다.

<http://www.xn--grundtvigsvrker-7lb.dk/tekstvisning/19658/0#{%220%22:0,%22v0%22:0,%22k%22:1}>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면,[중략].., 나의 찬탄(讚歎)이 가장 쓸모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찬탄은 내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명백한 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sup>20</sup>

오히려 반대로 사막에서도 낙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을 찬탄할 수 밖에 없고, 우리의 학문 중에서도 그 자체로는 가장 죽어 있고 공허한 것인 수학조차 활기 있는 경제활동을 위한 비길 데 없는 박차(拍車)로, 거인들이 힘을 합해도 움직이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sup>21</sup>

이처럼 그룬트비는 기계와 과학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느낌’과 ‘견해’와 상충하더라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결과를 보고 그것이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의 교육에 관한 저술들<sup>22</sup>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위의 인용문에도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더 일반적인 의미로는 과학)과 기계의 유용성이 너무나도 크고 인상적이었기에 그룬트비는 그것의 근원을 북유럽의 위대한 영혼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룬트비는 영국에 대한 찬탄을 통해서 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을 긍정하고, 기계와 과학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을 자신의 전체적 사상체계에서 핵심적 가치인 ‘삶’ 그리고 긍정적 가치의 근원으로 생각한 ‘북유럽의 위대한 영혼’과 연결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부로 이어지기 위한 근본적 조건으로 자유를 강조하였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 추구의 자유뿐 아니라 신앙과 언론 등 시민적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 2. 영국의 어두운 미래: 빈곤과 정치체제의 부전(不全)

반면, 그룬트비는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기계화라는 바탕 위에 서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초래하는 문제도 직시하고 있었다.

20) trængte det til noget Bevis, at enhver sandhedskjærlig Tænkter ser sig nødt til at slutte fra stærke Virkninger til store Aarsager, fra Dampmaskinernes tusendfoldige Hestekraft til menneskelig Storhed og til Nordens Kæmpe-Aand hos Opdagerne, ...da var min Lovtale et af de gyldigste, fordi den ingenlunde falder mig naturlig, men aftvinges mig kun af den indlysende Sandhed.

21) men nødes tvært imod til at beundre den Kæmpe-Aand, der selv i Ørken kan skabe et Paradis, gjøre selv Matematikken, i sig selv den dødeste og tommeste af alle vore Kundskaber, til en mageløs Spore for levende Virksomhed og til en Løftestang for, hvad der falder selv Kæmpers forenede Hænder for svært.

22) 그가 “삶의 기억”과 같은 해에 발표한, “삶을 위한 학교 그리고 소위 아카데미(Grundtvig(1838))”가 대표적이다.

그는 증기기관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느꼈던 감각적 두려움을 묘사한 후에 기계가 중심이 되고 수많은 인간이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기계에 밀려서 지위를 상실한 수공 기술자들이 기계 전문가의 도구가 되고, 공장주의 노예가 되어서 생각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 단, 그룬트비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수학과 기계와 부지런한 경제활동을 금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앞에서 인용한 바처럼, 그것들이 엄청난 유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의 마지막에 영국의 산업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를 잊지 않는다.

내가 한탄할 수 있고 실제로 한탄하는 바는 북유럽의 거인의 영혼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영혼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것 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탄하는 바는 영국의 기업활동이 갈수록 이른바 순이윤이라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 수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고, 순간의 노예가 되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sup>23</sup>

즉, 그는 여기서 앞에서 살핀 바 있는 “정치적 고찰”에서 언급했던 문제, 즉 산업체계가 단기적 이윤에 매몰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지만 한다면 영국이 이 문제를 결국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영국은 곧, 자신이 수천명의 인간들을 기계에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의 영혼의 힘을 산술적 크기 그리고 수학적 계산의 대상으로 해체시킴으로써 잘못된 길을 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계를 만들어낸 바로 그 거인의 정신이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혹은 인간의 활동 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sup>24</sup>

23) Jeg kan beklage og beklager virkelig, at Nordens Kæmpe-Aand ej gjør bedre og i Aandens Sprog langt større Ting end disse, beklager, at den engelske Virksomhed stedse mer gaar ud paa, hvad man kalder ren Gevinst, uden at bryde sig om Midlerne, træller for Øjeblikket, uden at tænke paa Fremtiden.

24) England vil snart indse, det er paa gale Veje, ved at ofre Mennesker i Hundreatusend-Tal til Maskineriet og ved at opløse sine Aands-Kræfter i aritmetiske Størrelser og matematiske Beregninger; og da vil den samme Kæmpe-Aand, som har skabt Maskinerne, ogsaa forstaa enten at tilintetgjøre dem eller at sætte dem i et tjenligt og tjenerligt Forhold til Menneske-Virksomhed og Menneske-Held.

즉, 이상에서 살펴본 그룬트비의 논의는 오늘날의 경제학적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영국이 현재의 비교우위에 안주해서 경제성장의 근본이 되는 인적 자원 축적에 무관심하다면 비용상 더 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추격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롭게 우위에 있는 산업영역을 개척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룬트비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와 그로 인한 사회체제의 불안정화이다(Korsgaard, 2019: 47). 그는 ‘부와 혼란이 ... 영국의 자유와 산업에 큰 위협’이라고 진단하고 있다.(Grundtvig(1838), 11월 12일 강연) 여기서 부가 큰 위협이 되는 까닭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영국인들이 오로지 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막대한 부가 축적되는 다른 한편에 대중의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우려는 poor라는 동일한 단어가 가난과 불행 모두 표현하는 나라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상태이다.(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sup>25</sup>

또한, 그룬트비가 보기에 ‘혼란’이 심화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득권 계층의 교만과 탐욕, 그리고 그것을 억제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의회의 과두제적 성격이다(Korsgaard, 2019: 47-48).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귀족들이 가능한 한 끝까지 그들의 특권에 집착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사악한 속담 즉 ‘농민들은 묶여 있지(bunden) 않으면 개(hunden)만도 못해진다’는 말을 잊어버리는 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영국에서 특히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나라 귀족들은 유럽에서는 가장 계몽되고 관대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토지를 이제 막 자신들이 차지해 버렸으며 인위적인 고물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입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빵을 앗아 가버렸다.(Grundtvig(1838), 11월 23일)<sup>26</sup>

25) men Hovedsagen er dog de fattiges uhyre Antal og de fattiges Kaar i et Land, hvor ét og det samme Ord (poor) udtrykker baade fattig og ulykkelig.

26) At nemlig Adelen holder paa sine Privilegier, saa længe den kan, og glemmer sent eller aldrig sit slemme, gamle Mundheld; “Var Bonden ikke bunden, da blev han værre end Hunden ”, det ser man blandt andet klart i England, hvis Adel baade er den bedst oplyste og mest frisindede i Evropa, men har lige fuldt revet Landet til sig, og tager uden al Barmhjærtighed, ved kunstig Dyrtid, Brødet af Munden paa de fattige.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룬트비가 귀족들의 탐욕의 핵심으로 토지 독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판의 대상은 2차 인클로저, 일명 ‘의회 인클로저’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이른바 1, 2차 인클로저를 통해서 중세 이래의 공동체적 토지소유가 사적소유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습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소규모의 토지가 대농과 지주에게 집중되었다. 특히 2차 인클로저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김종현, 2007: 217). 그룬트비 본인도 위의 인용문보다 먼저 행했던 강연에서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진행된 이른바 1차 인클로저를 통해서 장원주(Herrenmandene)들이 토지를 집적하고 반면 농민 또는 농사짓는 계층(Bondestanden eller Gaardmands-Klassen)이 몰락하게 된 사정을 지적한 바 있다(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 위의 인용문에서 그룬트비가 ‘이제 막(lige)’이라고 한 것은 이 논설을 쓰던 시점에서 귀족과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던 의회에 의한 2차 인클로저의 큰 물결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득권층의 탐욕은 정치체제를 통해서 견제되어야 하지만 영국의 권력을 가진 상원과 하원은, 그룬트비가 보기에. 그 어느 쪽도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호 대립 때문에 중요한 입법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기능부전(不全)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양자의 이익과 일치하지만 민의와는 동떨어진 입법만을 하면서 그것을 민의로 포장하는 일만을 하고 있었다(Grundtvig(1838), 11월 12일).

그러한 체제 문제점의 증거로서 그룬트비는 영국 의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부재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실제적 입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곡물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한 점을 들고 있다(Grundtvig(1838), 11월 12일).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인위적인 고물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입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빵을 앗아가기’도 이 곡물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곡물법은 1660년 이래 지주계급의 이익을 반영하여 곡물수입에 대해서 국내 곡가를 일정한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신축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출은 국내 곡가수준과 관련 없이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국내 곡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하락하며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김종현, 2007: 217-218). 이러한 농업보호체계는 농업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본가 계층과 특히 가난한 임금노동자의 이익에는 반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그룬트비에게 의회 인클로저와 곡물법은 영국의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고가는 기득권 계층의 탐욕을 영국의 정치체제가 제어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따라서 그룬트비는 영국의 미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전망한다.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세대 안에, 영국인 스스로 느끼듯 ‘피바다’를 벌이게 될,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sup>27</sup>

이같은 그룬트비의 예측은 그 후 실제 역사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룬트비가 이 강연을 했던 1838년 바로 그해에 영국에서는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대중 집회와 청원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은 공권력과의 충돌을 낳았다. 이것은 그가 말한 ‘피바다’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단, 일차적으로 정부는 이 운동을 분쇄하는 데 성공했고 1840년대 말에 운동은 소멸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준 충격은 186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남성 보통선거가 정착되는 변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 운동으로부터 퍼거스 오코노(Fergus O’connor)의 토지개혁 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하게 되며(김택현, 2008) 이러한 세력들의 활동과 선거제도의 개혁이 만들어 낸 여건 속에서 노동당이 현실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국 자본주의와 정치체제에 일정한 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다(박지향, 2007: 374-375, 404, 410-411). 곡물법도 역시 1838년 결성된 자유주의자들의 ‘반곡물법 동맹’ 운동이 계기가 되어 1846년 폐지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혁명을 피할 수’ 있었으며, 경제 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영국의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되었다.<sup>28</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삶의 기억” 강연을 하는 시점에서 그룬트비는 이전의 “정치적 고찰”에서 영국의 공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이익추구와 자유에 기반한 영국의 경제발전을 찬탄하고 있으며 기계가 가져다주는 이익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기계화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단기적 이윤 매물, 대중의 빈곤, 토지독점의 폐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득권층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의회로 대표되는 정치체제의 대표성 부족과 비효율성으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29</sup>

27) ser jeg dog ikke, hvorledes det endnu en Menneske-Alder uden et stort Mirakel kan undgaa en Revolution, der, efter Engelskmændenes egen Anelse, vilde skabe “et Ocean af Blod”.

28) 예컨대 Williamson(1980)에 따르면 영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1827년 0.293에서 1851년 0.358로 악화되었으나 1881년 0.328로 개선되었다.

29) 그룬트비는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본성에 내재하는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와 ‘정의를 침해할 때에 미칠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저술에서, 특히 적어도 영국에 관한 관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룬트비는 아래에 설명할 바와 같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계몽’을 통해서 길러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V. “덴마크인”에 나타난 경제체제론

그룬트비는 덴마크가 1차 슐레스비히 전쟁(3년 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기에<sup>30</sup> “덴마크인”이라는 주간지를 발간하면서 덴마크라는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의 수립과, 바람직한 사회체제에 대한 그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이하에서는 특히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개의 논설을 중심으로 그의 경제관을 살펴본다. 이 논설들에는 이전에 비해서 소유권 존중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적 경제관이 더욱 두드러지고 체계적으로 서술되지만(Wahlin, 1994: 263) 동시에 공동선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사고(思考)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덴마크의 현실에서 자신의 이상적 경제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경제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 1. ‘덴마크,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 (1) 소유권과 영업자유성의 중요성

먼저 1848년 6월 28일자 ‘덴마크,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라는 논설에서 그룬트비는, 오늘날의 용어를 빌리자면, 바람직한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소유권과 경제활동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주의적 경제관에 매우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 비교적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사회라는 비전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경제적 자유 존중 이외에도 다른 조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유자가 수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경제주체들의 삶의 기반을 파괴할 만한 대기업이 다수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이 논설은 ‘자기소유가 죽어버리면 그와 같은 것은 절대 찾지 못한다(Døer Selvhave, da findes aldrig hendes Mage.)’라는 속담의 의미를 논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설은 크게 전반부의 정치적 해석과 후반부의 경제적 해석으로 나뉘어 있는데,<sup>31</sup> 정치적 해석에서는 Selvhave를 국가의 주권의 근원이 되는 민족언어로 해석하면서 그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다른 한편, 후반부의 경제적 해석에서는 그 속담을 ‘자기소유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Døer Selvhave, da gaaer alting af Lave)’로 변형하여 자기소유(Selfhav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0) 슐레스비히 전쟁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Wahlin(1994)을 참조하라.

31) 그룬트비는 ‘folkelig Forklaring’과 ‘borgerlig Forklaring’이라는 용어로 양자를 표현하고 있다. Grundvig(1848) p.235쪽



소유권은 시민사회의 기본규칙일 뿐 아니라 그 토대라서 그것을 빼내면 전체 건물이 자갈더미로 무너져 내린다.(Grundtvig(1848), 6월 28일자)<sup>32</sup>

우선 주목할 점은 그룬트비가 여기서 ‘소유(Eiendom)’, ‘소유권(Eiendoms-Retten)’이라는 개념을 전면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다. 그는 앞에서 언급했던 방대한 강연인 “삶의 기억”에서 세계 각국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영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자유’가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었고 ‘소유’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논설에서는 이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그는 이 소유권을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존립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룬트비가 소유권 존중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부자로부터 빈자로의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화’ 추구,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경제적 생존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그는 이 논설의 전반부에서 강조한 ‘자기언어’ 즉 덴마크어 존중의 적(敵)으로서 독일과 독일어를 부각했었는데, 후반부에서 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프랑스의 실험을 어리석은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인간의 죄성(罪性)에서 찾고 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므로, 우리 모두를 덕성의 모범인 듯 다룬다면 그것인 당연히 엄청난 잘못이다...[중략]...그러므로 어떤 정부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대신하려 들면서 주님께 어떻게 [사람들의] 분깃과 축복을 바꾸어 동일해지도록 한 것인지를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수치를 돌리고 하늘에 사무치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러한 시도를 빨리 저지하지 않으면, 부자와 빈자 모두를 무한히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Grundtvig(1848), 6월 28일자)<sup>33</sup>

이 인용문의 바로 앞에서 그룬트비가 직접 언급한 프랑스의 구체적 실험은 1848년 2월 혁명 직후 설립된 국립작업장(덴마크어 National-Værksteder, 프랑스어: Ateliers nationaux)들이다. 당시 2월 혁명정부는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 2프랑을 지불하려고 하였다(노명식, 2011: 345). 이 실험은 증가하는 실업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4개월 만에 폐쇄됨으로써 실패로 끝났

32) Eiendoms-Retten ikke blot er det Borgerlige Selskabs Grundlov, men ogsaa dets Grundvold, saa naar den tages bort, synker hele Bygningen i Grus.

33) da vi er alle Syndere, maa det naturligviis blive splittergalt, naar vi alle behandles som Dydsmonstre, ..., saa enhver Øvrighed, der vil træde i Forsynets Sted og lære Vorherre, hvordan Han skulde skiftet Lodd og Lykke, saa det gik ligeligt til, den maa nødvendig ikke blot beskæmme sig selv og begaae himmelraabende Uretfærdighed, men, standses den ikke snart i Farten, gjøre alle baade Rige og Fattige grændseløs ulykkelige.

다. 여기서 그룬트비의 비판은 직접적으로는 이 국립작업장을 향하고 있지만 그는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생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입장은 같은 “덴마크인”에 두 달 후에 실린 ‘헌법과 덴마크 국가헌법에 대하여’라는 논설에 더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기본법에서는 국가에게 국민들을 먹이고 입힐 책무를 지워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그와는 반대로 국민이 국가를 먹이고 입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부자들의 시민적 책무로 지워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을 자기 자신이나 서로를 먹이고 웃입히지 못하는 거지로 만들게 된다. 부자와 빈자를 유익하게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줄인 사랑의 유대를 끊어버리게 되고, 계층을 부추겨서 근면함이 죽어버리게 되고, 부(富)를 좌우하는 모든 소유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Grundtvig(1848), 8월 30일자)<sup>34</sup>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려는 시도는 국민 전체를 빈곤의 늪으로 빠뜨리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그가 앞에서 시민사회의 토대라고 밝힌던 소유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노동하려는 의욕을 말살시키고, 부자들의 자발적 자선(慈善)을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분배 정책 배경과 더불어 그룬트비가 중시하는 요소는 경제활동의 자유이다. “삶의 기억”에서 다른 시민적 권리들과 함께 ‘자유’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었던 경제활동의 자유는 ‘영업자유(Nærings-Frihed)’로 정확히 호명(呼名)된다.

모든 지혜롭고 인간적인 정부는 사람의 손으로 들어올릴 수 없는 돌은 그대로 둘 것이며, 다만 최대한 가능한 ‘영업의 자유’와 ‘소유안전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복지와 바람직한 균형을 장려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다.<sup>35</sup>(Grundtvig(1848), 6월 28일자)

34) Saaledes maa man dog endelig ikke i Grundloven gjøre Øvrigheden til Pligt at føde og klæde Folket, da det tvertimod allevegne er Folket, der maa føde og klæde Øvrigheden; heller ikke maa man gjøre de Rige det til borgerlig Pligt at føde og klæde de Fattige, thi derved stiler man, efter al Erfaring, paa at gjøre hele Folket til Fattiglemmer, der hverken kan føde og klæde sig selv eller hinanden, man overskiærer Kiærligheds-Baandet, som er det eneste, der til Gavn kan forbinde de Rige med de Fattige, man føder Dovenskaben, saa Flittigheden maa sulte, og man undergraver al Eiendoms-Ret, hvormed Formuen staaer og falder.

35) Enhver klog og menneskekiaerlig Øvrighed vil derfor lade den Steen ligge, som ingen Haand kan løfte, og kun alvorlig stræbe, ved den størst muelige Nærings-Frihed og Eiendoms-Sikkerhed, at fremme den jævne Velstand og ønskelige Ligevægt...

그룬트비는 영업의 자유의 내용도, 본업이 인문학자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상세히 제시한다. 그 핵심은 각종 규제와 조세 부담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핵심적 처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산업의 흐름을 고도로 자유롭게 만들고 그렇게 유지해서, 길드 강제나 인가(認可) 장애, 그리고 세관의 금지조항에 속박 당하지 않도록, 영업세와 빈민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규모 공장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Grundtvig(1848), 6월 28일자)<sup>36</sup>

## (2) 영업자유에의 제한

그러나 위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대규모 공장이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손상(혹은 전복)(undergrave)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본 활동 자유의 필요성과 그 자유의 제한 필요성을 그룬트비는 모두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유가 높은 수준으로 안전해져야만, 무엇인가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업과 산업에 두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돈을 께 속에 놓아두거나 아니면 도망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가장 숫자가 많아질 수 있고 많아져야 하는 중간층(Utrængte)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파괴할 정도로 자본이 자유로와서는 안된다 (Grundtvig(1848), 6월 28일자).<sup>37</sup>

즉, 그룬트비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저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하여 말했던 것처럼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소유의 안전을 보장받은 가운데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고용과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부가 창출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의 자유에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중간층(Utrængte)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중간층이 숫자상 가장 많을 수 있고(kan: 가능) 또한 가장 많아야 마땅하다(bør: 당위)고 본다. 중간층이 가장 ‘많아야 마땅하다’고 보는 입장은 구성원 다수가 적절한 수준의 삶을 영

36) Nærings-Veiene maae altsaa i høi Grad giøres og holdes frie, saa de hverken bindes ved Laugstvang, Bevillings-Klemme og Toldforbud, eller bebyrdes med Nærings-Skat og Fattig-Skat, eller undergraves af store Fabriker...

37) En Eiendommen maa nemlig være i høi Grad sikker, naar de Fleste, som har noget, dermed skal stræbe at sætte Folk i Virksomhed og Næringsvei, da de ellers enten lægge Pengene paa Kistebunden eller seer til at slippe bort, men Kapitalerne maae ingenlunde være saaledes frie, at de Rige dermed kan ødelægge hvad vi kalder de Utrængte, som hverken er fattige eller rige, men har deres Udkomme, og kan og bør i ethvert Land være de talrigste.

위하는 상태를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삼는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중간층이 가장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소수의 부유층 이외에 나머지 대중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며 조건과 정책에 따라서, 항상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룬트비는 그 가능성이 덴마크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하며, 그 근거를 객관적 조건과 덴마크인의 주체적 측면 양쪽에서 찾고 있다. 먼저 ‘객관적 조건’을 보자.

덴마크는 자기소유자의 숫자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공장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얼마 되지 않으므로, 자기소유자의 삶을 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제외한 모든 부양의무법을 폐지하고, 강한 영업자유를 도입함으로써 시(詩)에 있듯이 ‘지나치게 부자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몇 명 되지 않게(강조 필자)’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Grundtvig(1848), 6월 28일자)<sup>38</sup>

즉, 당시 덴마크의 중간층과 대규모 공장의 숫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분포’에서 멀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산업화가 늦게 진전되어 그룬트비 생전에는 본격적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대기업이 출현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후진적’인 조건을 그룬트비는 오히려 자신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낙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객관적 이유는 자기소유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그가 말하는 자기소유자는 후술할 자영농민과 도시 부문의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세기 말부터 19세 초에 걸친 농업개혁은 이전에 장원주에게 예속적인 상태에 있던 농민을 봉건적 속박에서 풀어내고 선진적 농업기술의 보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영농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그룬트비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소유권을 보장하고(재분배 정책 배경을 포함한다) 영업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면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39</sup>

38) i Danmark, hvor Selveiernes Antal er godt i Tiltagende, og hvor de store Fabriker Gud skee Lov! er faa, vil det ikke falde vanskeligt at redde Selvhaves Liv, afskaffe al anden Forsørgelses-Ret end den indbyrdes mellem Forældre og Børn, og at indføre saa stor en Nærings-Frihed, at det kan gaae, som der staaer i Visen: Faa har for meget og Færre for lidt.

39) 위 인용문의 끝에 언급된 시구는 그룬트비 자신이 1820년에 썼던 ‘훨씬 높은 산들(langt-højere-bjerge)’이라는 시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시는 외국과 비교할 때 외견상 대단한 것이 없는 덴마크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구는 덴마크의 복지국가의 이념적 연원을 그룬트비에서 찾으려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했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는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 시구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s://danmarkshistorien.dk/vis/materiale/grundtvig-og-velfaerdsstaten>

이 구절이 담긴 시(詩) 전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hojskolesangbogen.dk/om-sangbogen/historier-om-sangene/j-l/langt-højere-bjerge>

### (3) 주체의 ‘계몽’

한편, 그룬트비는 국민들의 계몽과 공동선 추구를 강조했던 사상가로서, 자신의 경제적 이상 실현에 유리한 덴마크만의 ‘주체적’ 조건으로 덴마크인들의 평화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제시한다.

자명하게도 것처럼 크고도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중략]...그들[정치가들이] 시종 자유, 평등, 우애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큰 민족들에게서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겠지만, 모든 측면에서 평화를 향한 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희생을 바치려 하는 작은 나라 덴마크 사람(Folk)들에게서는, 제대로 찾으려 애쓰면 찾을 수 있고, 정성을 다해 돌보고(먹이고) 키운다면(opelske) 자라날 수 있다.(Grundtvig(1848), 6월 28 일자)<sup>40</sup>

그룬트비는 덴마크를 다른 나라에 없는 행운을 가진 나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보았던 절대군주제 시기에 이루어진 농업개혁과 국민자문위원회의 설치였다. 여기서는 덴마크인들의 평화에 대한 사랑이 ‘자유,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 혁명이 내걸었던 이상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가능성이 실재(實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탐색과 정성을 다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육성(nære og opelske)은 바로 계몽(oplysning)이며, 이 계몽의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의 선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품성을 기르는 것이다. 그는 1834년 발표한 ‘국가를 위한 교육’이라는 논설에서 ‘진정한 계몽의 출발점은 개인의 존재가 공동체와 더 나아가 세계전체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어야 한다’고 밝히고(Broadbridge et al., 2011: 13) 그 유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러한 계몽은, 인간의 삶 전체로 확대됨으로써, 그리고 개인, 민족, 그리고 전인류 사이의 깊은 연결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회 관계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고방식이 자라나게 한다 (Broadbridge et al., 2011: 13).

40) Det forstaaer sig selv, at skal saa stort og saa godt et Maal naaes, ...중략... de maae først og sidst tænke paa virkelig Frihed og Lighed og Broderskab, som de kan findes, maaskee ikke hos noget af de store Folk, men kan sikkert findes, naar de rettelig søges, og voxe, naar de omhyggelig næres og opelskes, hos det lille Danske Folk, der har en mageløs Kiærlighed til det Fredegode i alle Maader og vil, for at naae og beholde det, gjøre alle muelige Opoffrelser.

그룬트비가 1847년 10월 25일 새롭게 창립된 ‘수공업자 계몽협회(Selskabet til Handværksstandens Oplysning)’ 앞에서 행했던 연설<sup>41</sup>은 그가 이러한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되기를 바랬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이 연설에서 수공업자 계몽협회가, 자신이 늘 강조했듯이 죽은 문자를 추구하는 학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강연과 대화와 노래를 통해서, 수공업자 상호 간 그리고 다른 계층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場)이 되기를 축원하고 있다.

일상사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즉각적 이익만을 살피도록 유혹받고, 따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만나야 할 진정한 필요가 있는 것은 농민과 도시민만이 아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상기함을 받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공동의 최선에 대해서 생생하게 상기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러한 만남이 필요한 것은 도시민과 농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지식인을 말함, 필자)들이다...(Grundtvig(1848), 11월 22일)<sup>42</sup>

즉, 그룬트비는 이러한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수공업자, 농민, 도시민, 지식인) 모두가 자신의 눈앞의 이익과 관심사에 매몰되지 않고 인류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같은 덴마크인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동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2. ‘장원주 위에 농민’ : 자기소유 주축으로서의 농민과 토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룬트비는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자유와 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자본과 대공장의 활동이 자기소유자들을 질식시킬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기소유자들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룬트비는 경제의 이념상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념 실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 방안의 핵심은 자신의 토지를 안정적으로 소유한 자영농민을 광범위하게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룬트비는 자신의 구상을 1849년 9월 1일 “덴마크인”에 실은 ‘장원주(莊園主) 위에 농민(En Bonde ovenpaa en Herremand)’라는 논설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41) 연설을 행한지 약 1년 후 “덴마크인” 1848년 11월 22일자에 실렸다.

42) det er ingenlunde blot Bonde og Borger, som ved sin daglige Syssel fristes til blot at see paa sin egen Dont og sin nærmeste Fordel, og trænger derfor høilig til at mødes med Landsmænd, som har andre Sysler, for i deres Selskab at udvide sin Synskreds og levende mindes om, hvad vi, som Mennesker og Landsmænd, har alle tilfælles, og levende mindes om det fælles Bedste, der skal staae os alle for Øie. Nei, det er ikke blot Borger og Bonde, det er alle, og i en vis Henseende nærmest os,...



### (1) 소유권 체제의 수호와 토지균등분배

그룬트비는 교육에서 문자보다 입으로 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농민과 토지문제를 논할 때도 당시에 일종의 정치적 구호로 회자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장원주(莊園主) 위에 농민(En Bonde ovenpaa en Herremand)’이라는 말을 화두로 꺼내면서 그 말에 담길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시대와 발맞추고 길을 잃지 않고자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농민을 장원주 위에 두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인지, 같은 말 속에 그것을 참을 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덴마크에서라도 그것을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뜻이 들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Grundtvig(1849), 9월 1일)<sup>43</sup>

그룬트비는 우선 ‘농민’과 ‘장원주’라는 단어의 역사적 연원을 살핌으로써 전자를 후자에 비해 중시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유익함을 논증한다.

‘Bonde(농민)’란 고대 덴마크와 우리 북유럽 전체에서는 가옥과 농장을 갖추고 있어서,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의 주인인, 덴마크어로 ‘Selveier(자영농)’,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는 ‘Proprietær’라고 하는, 자유로운, 농사짓는 이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리고 ‘Herremand(장원주)’란 그와 반대로, 중세에 처음 나타난 말로 자신이 손을 넓게 펼칠 욕심이 있고 그렇게 할 기회를 찾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국민 중 다른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땅이 거의 없게 되었던 것이다. ... 이렇게 이해하면 농민을 장원주 위에 둠으로써 농민 뿐 아니라 덴마크 전체가 많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Grundtvig(1849), 9월 1일)<sup>44</sup>

이어서 그룬트비는 토지가 소수의 부자들과 장원주(Herremænd) 손에 들어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궁해지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윤리적인 판단과 더불어 그러한 불균등한 분배가 계층을 막론한 이기심 확산으로 인한 사회 갈등 격화와, 강권(強權)으로 간신히 통제되고 있

43) hvem der vil holde Skridt med Tiden og ikke tabes bag af, maa see til at komme paa det rene med sig selv om, i hvilken Mening det er splittergalt at sætte en Bonde ovenpaa en Herremand, og om der ikke kan ligge en anden Mening i de samme Ord, der ikke blot gjør dem taalelige, men, allenfalds i Danmark, kan gjøre dem yndige!

44) ...at “Bonde” er fra Oldtiden i Danmark og i hele vort Norden, Navnet paa den fribaarne Landmand, som havde Huus og Gaard og var, forsaavidt det lader sig gjøre, sin egen Herre, paa Dansk “Selveier” paa pluddervælsk “Proprietær”, og at “Herremand” derimod er et Navn, som først opkom i Middelalderen til dem, der havde faaet Lyst og fundet Leilighed til at gjøre deres Fingre saa brede, at der blev kun lidt af Landet tilovers for den øvrige Deel af Folket.....saaledes forstaaet, vilde ikke blot Bønderne men hele Danmark vinde meget ved at sætte en Bonde ovenpaa en Herremand.

는 대규모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출현을 초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과학적 진단을 내린다. 이러한 판단과 진단 위에서 그는 토지 소유의 균등한 분배가 소유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그러므로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라 안에 안정적 소유가 ‘수많은’ ‘굳건한’ 자영농민들 (Selveier) 사이에 분배됨으로써 어떠한 사태가 있을 때에 그들이 소유권을 지켜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지위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좋은 상태에 있어서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의지’가 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강조 원저자)(Grundtvig(1849), 9월 1일)<sup>45</sup>

그룬트비는 이처럼 소유권 체계를 지켜내기에 충분한 자영농 계층의 창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토지 대부분을 다수의 자기소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효율적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이다. 단, 그들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근면한 남성조차 아내와 자녀들과 아예 살아갈 수 없거나 아니면 그저 비참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Grundtvig(1849), 9월 1일)<sup>46</sup>

즉, 하나의 계층으로서 소유체계를 지켜내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소유에 기반하여 얻을 수 있는 생활 수준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그 소유의 평균적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농 중심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그룬트비는 당시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평생 임차농(보유농)(Fæstere)을 자영농(Selveier)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창출되는 3만~4만 개의 농장이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것을 막는 규제를 둘 것을 주장한다.

45) saa nu er det aldeles nødvendigt, at de faste Eiendomme i et Land baade er fordeelte mellem saamange og saa haandfaste Selveiere, at de i paakommende Tilfælde kan forsvare Eiendoms-Retten, og at deres Stilling i det hele er saa god, at man tør forudsætte, de ogsaa vil vove alt til dens Forsvar.

46) Endelig vil det i alle Maader være ligesaa gavnligt, som det er billigt, og efter Omstændighederne nødvendigt, at den største Deel af Landets Jordsmon bliver deelt mellem et stort Tal Selveiere, men dog ikke udstykket saa smaat, at selv en arbeidsom Mand slet ikke eller dog kun kummerlig kan leve deraf med Kone og Børn.

따라서 덴마크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 숫자만큼 자기소유에 입각한(자영) 농민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임차농에 불과한 농사짓는 이들이 자기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이 3만-4만 개의 농장에 제약을 두어서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합병과 분열을 방지하는 것이다.(Grundtvig(1849), 9월 1일)<sup>47</sup>

그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프레데릭 6세 시기에 이루어졌던 덴마크의 농업개혁이 이 두 가지를 시도한 것이었고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불철저하게 관철되어서 차지농 모두가 자영농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농장의 합병을 묵과했음을 지적한다. 이 개혁이 의도하고 창출하려고 했던 구조가 실현되지 못하고, 부분적 성과조차 후퇴하게 된 배경에는 ‘토지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거짓되고 또한 잘못된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토지소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타인에게 임대되어 버리지(bortfæstes)않게 되는 한 누가 소유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농장에 대한 권리를 토지부(土地簿 Jordbog)에 등기한 사람은 그로써 완전한(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장원주(莊園主)를 제외하고는 전체 국민이 조국의 땅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Grundtvig(1849), 9월 1일)<sup>48</sup>

여기서 그룬트비가 경계하는 것은 첫 번째 ‘잘못된 전제’와 관련해서는 토지를 적정규모의 자영농이 아닌 대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전제’와 관련해서 그가 우려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차지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임대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들은 적정규모 토지소유에 기초한 자영농 체계를 뒤흔들고 임대농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부(富)가 지주계급에 집중되게 만든다.

그룬트비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일종의 ‘토지공유(共有)’ 사상에 기반하여 비판한다.

이 두가지는 모두 근본적으로 오류이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국민(Folk)이 국토의 기본

47) Det er følgerlig et Livs-Spørgsmaal for Danmark, om vi kan faae og beholde saamange Selveier-Bønder som vi har Gaardmænd, og dertil udkræves to Ting: først at de Gaardmænd, som kun er Fæstere, blive Selveiere, og at der dog bliver ved at hvile et Baand paa disse 30-40,000 Gaarde, som hindrer deres Sammenlægning og Udstykning.

48) Man gaaer nemlig ud fra to Forudsætninger, som er lige falske og lige fordærlige, den ene, at det kan være det samme, hvem der eier Jorden, naar den blot er fri Eiendom og skal ikke bortfæstes, og den anden, at hvem der har lovlig thinglæst Skiøde paa et Jordbrug, har ogsaa fuld Eiendoms-Ret derover, om saa end hele Folket, paa nogle faa Herremænd nær, derved berøvedes deres Fæderneland.

소유자(주권자)이며 그 어떤 법으로도 그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분배될 수 있고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토지의 이익과 사용뿐이며, 이 매매는 마땅히 공동의 최선을 고려하고 국방과 국가평화의 유지를 특별히 고려하는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Grundtvig(1849), 9월 1일)<sup>49</sup>

즉, 그는 토지는 다른 소유 대상과는 달리 개인이 완전한 사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을 넘어서 불신앙(ungodly)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왕’이 되었든 한 무리의 ‘장원주’들이 되었든 그들이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고, 그들이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팔 수 있다고 하고, 따라서 원한다면 ‘황폐’한 채로 방치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국민이 굶어 죽어도 좋다는 잘못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입법을 했다면, 그러한 법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불신앙적(불경건)인’ 것이며 즉각 폐지해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강조는 원문) ‘법률가’들이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돈, 옷, 또는 가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가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을 지탱하고 먹여 살리는 ‘토지’에 대해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전체 ‘국민’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Grundtvig(1849), 9월 1일)<sup>50</sup>

이처럼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국민(Folk)이라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이며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익이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뿐이라는 사상은 구약 레위기의 토지에 관한 희년 규정에 담겨 있는 사상과 유사해 보인다. 레위기 23:25절에 나타난 토지 신유(神有) 사상(‘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은 토지의 영구적 매매금지(레 23:25), 희년마다 원소유자의 토지로의 귀환(23:10), 그리고 토지 매매 시 희년까지 남은 연수 즉 이용가능 기간을 감안한 가격설정(23:15-16) 등 구체적 토지관련 규정의 기초가 된다. 단, 그룬트비는 토지에 대한 자신의 사상

49) Begge Dele er grundfalske og fordærlige, thi ethvert Folk er sit Fædernelands Grund-Eier (paa pluddervælsk “Soveræn”) og kan aldrig retmæssig ved nogen Lov tabe sin Eiendoms-Ret, saa det er kun Nyttens og Brugen af Jorden, der retmæssig kan fordeles ved Lands-Loven og blive Gienstand for Kiøb og Salg, og disse Ting bør da ordnes ved Love, som har fælles Bedste for Øie og tager særdeles Hensyn til Landets Forsvar og Landefredens Haandhævelse.

50) Om vi derfor havde faaet en Lovgivning, som gik ud fra den falske Grundsætning, at enten Kongen eller en Slump Herremænd eiede Landet og kunde give eller sælge det til hvem de vilde, og kunde altsaa, om de lystede, lade det ligge øde, ja, med Flid ødelægge det, saa hele Folket maatte sulte ihjel, da seer man let, at saadanne Love var ligesaa uretfærdige, som ubillige og ugudelige, og burde uden videre afskaffes. Hvad Juristerne kalde fuld Eiendoms-Ret, som man kan have over sine Penge, sine Klæder og sit Boscab, det har Ingen selv over sit Huus og ingen uden hele Folket over Jorden, som skal bære og føde dem.

의 근거로 성경을 인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의 주체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hele Folket)을 내세우는 것도 성경의 사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목사였던 그가 구약성경의 토지관련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점은 ‘신유’사상을 명백히 표방하지 않더라도 그의 토지 ‘공유’사상이 후술하듯이 토지에 대한 임대조건, 매도대상, 매각가격 등에 대한 개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토지 관련 매매의 대상을 그 사용과 이익에만 한정한다는 구체적 정책 측면에서 레위기의 규정과 유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그룬트비의 소유권 제한 사고는 덴마크의 노예제도 철폐를 주장한 그의 논설에서도 나타난다. 덴마크는 1792년 흑인노예 무역을 폐지하였고 노예제도 자체는 덴마크령 서인도에 1848년까지 남아 있었다. 그룬트비는 영국의 노예폐지운동가들의 제안에 호응하여 1839년 덴마크 내 노예제 폐지를 위한 모임(Slavekomite)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모임 내 논의 과정에서 노예제 폐지로 손실을 보는 노예주에 대한 보상금액을 노예의 시장가격이나 경매가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1848년 제헌의회에서도 ‘그 누구도 다른 인간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roadbridge & Korsgaard, 2019: 217-223). 즉, 그룬트비는 부를 창출하는 본원적 생산요소인 토지와 인간에 대해서 소유권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었으며 그 소유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모습인 시장가격에 대해서도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제약을 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 (2) 자영농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이상과 같은 현실진단과 토지공유 사상 위에서 그룬트비는 자영농을 광범위하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장원주가 농장을 임대할 경우 임차농에게 평생에 걸쳐 고정된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거나 50년 이상에 걸쳐 임대하도록 한 덴마크의 법규정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그들이 ‘전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임차농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장원주들이 농장을 매각할 것이라고(da vil Herremændene strax lære, at de har ikke fuld Eiendoms-Ret og vil sikkert overlade Fæsterne deres Gaarde til Eiendom paa billige Vilkaar)<sup>51</sup> 전망하였다. 즉, 임대료 인상의 구실이 되곤 했던 임차인 교체와 임대료 인상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장원주 입장에서 임대를 위해서 농장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 실익이 없도록 만듦으로써 임차농에게 농장을 양도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51) Broadbridge and Korsgaard(2019)는 ‘overlade Fæsterne deres Gaarde til Eiendom’을 ‘lease out their farm to tenants’ (p.309)로 영역(英譯)하고 있는데 ‘lease(임대)’는 오역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창출한 자영농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룬트비는 농장이 매각될 경우 그것이 단기적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자영농이 매수하게 하거나, 임차인 평생에 걸친 저율의 임대료 조건 하의 임대만을 가능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덴마크가 3만명의 자영 농민을 갖게 되면, 그들을 유지하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형성된 농장에 대해서 임대농장에 대한 법을 유지함으로써, 어디서든 농장이 매각되면, 거기에 자영농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일생에 걸쳐 임대를 하되 구(舊)토지대장에 따라서 임대료를 정하고, 농장 교체에 대해서만 적절한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 중략...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덴마크가 3만명의 자영농민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견딜만한 세금부담 하에서는, 검소하고 노력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덴마크 왕국과 평화를 자발적이고도 능력 있게 방어하기에 충분한 크기가 될 것이다.(Grundtvig(1849), 9월 1일)<sup>52</sup>

그룬트비는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이 불러일으킬 비판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평등의 원칙 또는 소유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권 또는 지혜로운 국가경영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모두 인간과 국민이(Folket)이 국가나 농지경작이나 자본이나 무역수지균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모든 지상의 자원들이 인간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그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Grundtvig(1849), 9월 1일)<sup>53</sup>

즉, 그룬트비는 자신의 자작농 육성 및 보존책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방향에서 비판을 예측하고 있다. 첫째, 평등권 관련 비판은 주로 농지 매각의 대상을 자영농에 국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 둘째,

52) Naar dette skeer, saa Danmark har sine 30,000 Selveier-Bønder, da gjælder det kun om at beholde dem, og det skeer nemmest ved at lade for alle disse Gaarde Loven om Fæstegods blive i Kraft, saa at, hvortit de end sælges, skal de enten beboes af Selveieren eller bortfæstes paa Livstid for Landgildet efter den gamle Jordebog, med passende Forhøielse for Udskiftningen; [thi vel vil der i det enkelte kee meget Fixfax, der ved ingen Love lader sig forhindre,] men Danmark vil dog, hvad der er Hovedsagen, i det hele beholde sine 30,000 Selveiergaarde, der er store nok til, med taalelige Skatter, at ernære en tarvelig og stræbsom Familie og mange nok til at skaffe Riget og Freden et frivilligt og dygtigt Værn.

53) Naar man herimod indvender, enten at dette strider mod Ligheds-Grundsætningen, eller mod den fri Raadighed over Eiendommen, eller mod en klog "Stats-Økonomi", da er det altsammen fordi man ikke indseer eller ikke vil ændse, at Mennesket og Folket hverken er til for Statens eller for Agerdyrkningens, Kapitalernes eller Handels-Balancens Skyld, men at Jorden og alt Jordisk er til for Menneskets og Folkets Skyld og skal benyttes til deres Bedste.



소유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권에 대한 비판은 매각 대상 제한은 물론 임대 기간과 임대료 제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셋째, 그러한 소유권 제한이, 오늘날의 개념을 이용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한 그룬트비의 일차적 반론은 위의 인용문에 보이듯이 인간과 국민이 국가나 경제활동의 작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자원 활용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체제 옹호와 그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당위론적 방어 뿐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대한 설명과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현실적 상황과 관련해서 그는 3만 명의 자영농이 소유하고 경작할 농장토지 이외에도 충분한 여분의 토지(en god Deel af Jorden i Land)가 있어서 이 토지들은 자유로운 매매와 통합,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그룬트비가 제시한 소유권 제한이 덴마크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3만 명의 자영농을 위한 토지는 ‘보수적인 요소(conservativt Element)’이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는(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인용)’ 끝없는 탐욕에 대한 국민적 방어선(folkeligt Nødværge)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의 토지소유권 제한 또는 공유사상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공세적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 제도 전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영농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적, 방어적 성격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3) 농민계층의 계몽

그룬트비는 위와 같은 객관적 조건 이외에 이렇게 창출되는 자영농 체계가 국가 전체에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를 언급한다. 그것은 조국과 공동선을 생각하는 농민계층 특히 청년농민들이다.

자명한 사실이지만, 덴마크에 내일 당장 고정적 임차조건을 가진 3만명의 자영 농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비겁하거나 또는 계몽되지 못하고 편협하게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나라에 유익하지도 않고 안전을 가져다 주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정적 임차조건을, 자기들 소유의 가격을 낮추는 원인으로 보아서, 해체하고자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조국의 필요와 공동선(公同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눈감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Grundtvig(1849), 9월 1일)<sup>54</sup>

54) Det følger nemlig af sig selv, at om end Danmark imorgen havde sine 30,000 Selveierbønder, med Fæstebaandet til Betryggelse, saa vilde det dog hverken gavne eller sikkre Riget, naar de til Jævnshold var feige eller dog uoplyste og smaalig egennyttige, thi baade vilde de da snart see til at faae Fæstebaandet løst, som noget, der trykkede Priserne paa deres Eiendom, og de vilde i det hele være ufølsomme og blinde for Fædermelandets Tarv og fælles Bedste...

여기서 우리는 그룬트비의 핵심적 사상, 즉 근대적 사회체제의 도입만으로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고 군주제 하의 평민이 계몽(oplysning)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folk)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경제체제 문제에 적용된 예를 또다시 보게 된다. 소유와 관련한 경제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기여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구체적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미래가 달린 이 계몽과 관련하여 농민계층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밝힌다.

국민적 그리고 덴마크적 계몽이 일어나게 되면 이 문제에 있어서도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확신하지만, 이 같은 덴마크인의 계몽이 제대로 일어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그리고 덴마크인의 계몽이 과연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대부분 농민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Grundtvig(1849), 9월 1일)<sup>55</sup>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상황에서는 계몽과 관련하여 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고 있었고 이 글이 발표되기 불과 1년여 전에 있었던 입헌군주제로의 전환 역시 수도 코펜하겐에 있었던 소수의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한 시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그룬트비가 농민계층을 국가적 계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계층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그룬트비는 심지어 이 논설의 말미에서 자영농민들 중 특히 최초의 집단이 그런 공동선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시 진행 중이던 1차 슐레스비히 전쟁에 참전했다가 귀향하는 청년들에게 기득권층이 농지를 내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스스로도 이 제안이 현실성이 크지는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안을 하는 까닭은 덴마크 내에서도 계급 간 갈등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절박성과 더불어, 덴마크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참전한 청년들이 함께 전쟁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서 덴마크 공동체에 대한 소속의식, 애국심, 인내심, 그리고 상부협력(相扶協力)의 중요성을 발견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룬트비가 창출하고자 했던 자영농의 ‘계몽’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이후에 덴마크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농민들에 대한 국민교육, 시민교육,

55) og skjøndt jeg er vis paa, at en folkelig altsaa en dansk Oplysning, naar den kommer igang, vil ogsaa i dette Stykke gjøre Underværker, saa maa jeg dog indrømme, at baade kan der skee ubodelig Skade, før den Danske Oplysning kommer ret i Gang, og deels vil det for en stor Deel beroe paa vore Gaardmænd, om og naar og hvorledes den skal komme i Gang.

직업교육은 상당부분 그룬트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운동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 3. “삶의 기억”에서 “덴마크인”으로의 발전

이상에서 본 것처럼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은 “덴마크인”에 실린 논설에서 그 이전의 “삶의 기억”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욱 발전하였다. “삶의 기억”에서는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을 ‘이익추구에 입각한 노동’와 ‘자유’에서 찾았지만, 그러한 체계가 가져오는 빈곤확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의 정치체제가 그것을 해결하기에 무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덴마크인”에서는 그룬트비는 경제적 번영의 조건과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문제점의 해결과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사고(思考)를 보여준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소유권 존중과 영업의 자유보장이라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재분배 정책 배격, 규제축소와 조세부담 경감 등의 처방까지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영업의 자유보장이 대자본이 중간층의 삶을 파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간층이 사회의 대부분으로 존재하는 경제상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일정 정도 규제함으로써 자영농민층을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즉각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주체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계몽’ 사상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처럼 “덴마크인”에서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 되고, 특히 소유권을 존중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두터운 자영농민 계층 창출을 위해서는 그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두자는 입장을 취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로, 두 문헌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삶의 기억”은 ‘인문학자’로서 이미 명망을 쌓아놓은 그룬트비가 그 시점에서 최근 50년 유럽 주요국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덴마크의 장점을 강조하는 ‘역사고찰’적 측면이 강한 강연이었던 반면, “덴마크인”은 1848년 3월 혁명 후 슬레쉬비히 전쟁으로 정국이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신인(新人) ‘현실정치인’이 된 그룬트비가 주간지의 형태로 구체적인 정치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정치발언’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두 문헌의 배경이 된 정치적 상황에 차이가 있다. “삶의 기억” 강연이 행해지던 1831년 시점은 적어도 그룬트비가 보기에는 절대왕정 체제인 덴마크의 ‘행운’이 두드러져 보이는 시점이었다. 강연 초기의 중요한 고찰 대상이었던 프랑스가 1789년 대혁명 이후, 공포정치, 나폴레옹 제정, 왕정복고, 1830년 7월 혁명의 좌절 등을 겪으며 한 세대 이상에 걸쳐 정치, 경제체제가 격동과 혼란을

겪은 것과 달리 덴마크에서는 절대왕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영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 간의 격차가 이미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었음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체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에 비해서 덴마크는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이미 ‘위로부터’의 농업개혁을 어느 정도 수행해 낸 상태였고 의회는 아니지만 민의(民意) 청취기구도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룬트비는 영국의 경제적 발전을 찬탄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덴마크의 ‘안정된’ 정치체제를 부각시키는 데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덴마크인”은 1848년 덴마크에서도 3월 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이 결정되었으나 헌법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인 유동적 상황이었으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아서 공업부문의 노사 갈등 문제는 아직 부각되지 않았지만 농촌지역에서 계급 간의 갈등이 그룬트비가 보기에 현재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의 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여러 해 동안 농민과 장원주들 사이의 위험한 갈등을 예언해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제 그것이 당도했다(Grundtvig(1849), 9월 1일)<sup>56</sup>.

무엇보다도 1차 쉘레스비히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였으므로 왕국의 유지 자체가 의문시되는 위기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룬트비로 하여금 헌법의 틀 속에서라도 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의 1848년 2월 혁명정부가 추진했던 중심정책이었던 국립작업장의 실패는 그룬트비로 하여금 무조건적 형평화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비현실성과 소유권 존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룬트비가 찾은 자영농체제의 확립이라는 방안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화’ 또는 ‘시장 소득분배 형평화’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고 보다 근본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보유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자영농 체계의 육성에 주목하게 된 까닭은 농업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었다는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자영농 체계 육성의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놓은 농업개혁이 그가 덴마크의 축복이라고 보았던 왕정시대의 중요한 업적이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6) Hvem der kiender mine Bøger, veed, at jeg i mange Aar har forudset den farlige Spænding mellem Bønder og Herremænd, som nu er kommet

## VI. 요약과 결론

이상에서 근대 덴마크 사회의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그룬트비의 사상영역 중 경제분야에 대한 그의 사고체계를 그의 중요저작인 “삶의 기억(1838)”, 그리고 “덴마크인(1848, 1849)”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문헌은 그의 경제사상에 관심을 가진 덴마크의 그룬트비 연구가들이 이미 주목한 저작들이지만, 이 논문은 특히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위에 언급한 두 문헌 사이에서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의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피려고 하였다. 그는 “삶의 기억”에서는 영국 경제발전의 동력을 ‘이익추구에 입각한 일’과 ‘자유’에서 찾았지만, 그러한 체계가 가져오는 빈곤 확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의 정치체제가 그것을 해결하기에 무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반면, “덴마크인”에서는 경제적 변영의 조건으로 ‘자유’에서 더 나아가 ‘소유권 존중’과 ‘영업의 자유보장’이라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한 경제정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면서도 중간층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나치게 부자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몇 명 되지 않는’ 경제상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일정 정도 규제함으로써 자영농민층을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둘째, 두 문헌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저작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에서 찾고자 하였다. 두 저작 중 전자는 인문학적 ‘역사고찰’의 성격을 갖고 있고 후자는 현실 상황 속에서의 ‘정치 발언’의 성격이 강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 이유는 저작의 배경이 된 구체적 상황이 전자의 경우는 덴마크 절대왕정의 안정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시기였던 반면, 후자의 경우는 덴마크가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였다는 데에 있다. 즉 “덴마크인”은 1848년 3월 혁명을 통해서 덴마크에서 입헌군주제로의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내적으로는 헌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이 분출되는 유동적인 정국이었고 외적으로는 1차 슐레스비히 전쟁으로 인하여 왕국의 유지 자체가 의문시되는 위기 상황이었다. 또한 그룬트비가 보기에 농촌에서 계급 갈등이 현재화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내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룬트비가 경제적 비전으로 제시한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내용과 그 사상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는 당시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평생 임차농(보유농)을 자영농(Selveier)으로 전환하여 3만~4만 개의 자영농장을 창출하고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장원주를 포함한 농장소유자들의 임대료 수준, 임대 기간, 매각 대상 등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토지를 개인의 완전한 소유권이 미칠 수 없는 특



별한 대상으로, 즉 국민전체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일종의 토지‘공유’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넷째, 그룬트비의 사상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계몽’에 대한 사상이 경제문제 있어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소유권 존중, 영업자유, 자영농 육성을 위한 일정한 소유권 행사 제한이라는 정책적 틀이 갖추어지고, 그 결과 중간층이 두터워지더라도 경제주체들에게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의 선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품성이 없다면 그러한 제도들이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간단히 언급해 둔다.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그의 사상은 18 및 19세기에 덴마크의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그의 경제적 처방으로부터 오늘날 경제정책에 대한 직접적 함의를 끌어내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의 사고체계를 형성해 간 방식에는 현대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참고할 바가 적지 않다.

첫째, 특정한 경제이념이나 모범국가에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처방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보지 않으며 그것이 주는 함의를 자국이 처한 구체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이다. 그룬트비는 ‘삶의 추억’에서 이익추구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영국경제체제가 가져다주는 번영을 찬탄했고 ‘덴마크인’에서는 소유와 영업자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자유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체제와 사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인식하면서 덴마크의 역사적 조건(특히 대공장 주도권의 미확립과 농업개혁의 성과)에 맞는 경제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자유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와 독일식 또는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이념상으로 상정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룬트비가 보여준 사상적 노력은 이러한 쓸림을 경계하고 우리가 처한 역사와 현실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그에 입각한 해법을 모색하라는 교훈을 준다.

둘째,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소득 재분배 기구’나 ‘시장소득 보장’보다 소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자산의 형평화를 추구하는 관점이다. 그룬트비는 ‘삶의 기억’에서 재분배 기구 및 시장에서의 형평화(무조건적 고용과 동등임금 지불)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면서 대공장에 의한 중간층 지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었고, ‘덴마크인’에서는 이 입장을 발전시켜서 광범위한 자영농 계층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중농사상(重農思想)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2차 대전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출발점에 농지개혁이나 토지개혁(조성호 (1983) 참조) 등과 같은 자산 균등화를 위한 체제개혁이 있었음은 그룬트비 사상이 현재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사고체계에서도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보다는 엄격한 반독점 정책을 통한 경쟁 유지가 강조되었다. 특히 그 학파의 일원인 뮐러-아르막(Müller-Armack)은 더 나아가 자산형성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주택공급, 중소기업 육성, 정신적 자본형성을 위한 교육정책까지도 국가의 임무 영역으로 보기도 하였다(Wörsdörfer, 2011: 29).<sup>57</sup> 이상을 볼 때 중간층의 보존과 자영농민 육성을 강조한 그룬트비의 사상은 오늘날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복지 및 조세부담 수준을 둘러싼 논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소득창출 기반 균등화라는 시각을 잊지 말아야 함을 시사해 준다.

셋째, 경제제도 이외에 경제주체들의 공동선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복돋우는 노력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재산권과 관련한 제도, 조세, 각종 규제, 자영농 계층의 광범위한 창출 등의 경제정책들은 사회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룬트비는 이러한 제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이 개인, 민족, 인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게 되는, 비유컨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그가 ‘삶의 기억’에서 보인 영국 비판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불비(不備)를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덴마크인’에서 제시한 국민 각 계층 특히 자영농민에 대한 ‘계몽’의 비전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계층 및 지역 양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개별주체들의 사익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전제하에 지혜롭게 고안한 경제정책이 중요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룬트비의 사상과 그룬트비주의자들의 실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57) 이 입장을 모든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

## 참 고 문 헌

- 김기환 (2020). **사회적 기능 중심 사회교육사상가의 사회교육 실천원리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Kim, K. H. (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al Principles of Social Function-Centered Social Educational Thinkers*. Doctoral Dissertation.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 김성호 편역 (1983). 대만의 토지개혁. **해외농업자료**.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im, S. H. (Ed.) (1983). The Land Reform of Taiwan. *Information on Agriculture in Foreign Countries*, vol. 3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김종현 (2007). **경제사**. 신전정증보판. 서울: 경문사
- [Kim, J. H. (2007). *Economic History*. Seoul: Kyungmoonsa]
- 김택현 (2008). **차티스트 운동, 좌절한 혁명에서 실현된 역사로**. 서울: 책세상
- [Kim, T. H. (2008). Chartist Movement, from a Failed Revolution to a Realized History. Seoul: Chaeksesang]
- 노명식 (2011).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서울: 책과함께.
- [Rho, M. S. (2011). From the French Revolution to the Paris Commune, 1789~1871. Seoul: WithBook.]
- 박지향 (200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 [Park, J. H. (2007). *A History of Britain: Dramas of Conservatism and Reforms*. Seoul: Kachibooks.]
- 송순재 (2020). 근대기독교 민족운동에서 기독교와 민족 간의 관계 해명 —함석헌과 그룬트비(N.F.S. Grundtvig)의 관점에 비추어. **현상과 인식**, 44(2), 143, 51-74.
- [Song, S. J. (2020). The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Christianity and Nation in the Modern Christian National Independent Movement —In the Light of the Thoughts of Seok-Heon Ham and N.F.S. Grundtvig. *Phenomena and Cognition*, 4(2), 143, 51-74.]
- 오연호 (2014).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오마이북.
- [Oh, Y. H. (2014). *Can we also become happy?* Seoul: Oh my book]
- 정해진(2015). **그룬트비의 평민교육사상**.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Chung, H. J. (2015). *Grundtvig's Idea on 'Folkelig' Education*.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Grundtvig, N. F. S. (1808). *Nordens Mythologi*, København, Hofboghandler I. H. Schuboths Forlag.
- Grundtvig, N. F. S. (1825). *Kierkens Gienmaele*, Kjøbenhavn, den Wahlske Boghandlings Forlag.
- Grundtvig, N. F. S. (1827). *Om Religions-Frihed*, Theologisk Maanedsskrift, Februar og Marts.
- Grundtvig, N. F. S. (1831). *Politiske Betragtninger med Blik paa Danmark og Holsteen*. Kiøbenhavn, den Wahlske Boghandels Forlag hos C. Græbe & Søn.
- Grundtvig, N. F. S. (1832). *Nordens Mythologi eller Sindbilled-Sprog historisk-poetisk udviklet og oplyst*. Kiøbenhavn, J. H. Schuboths Boghandling.
- Grundtvig, N. F. S. (1837). *Sang-vaerk til den danske Kirke*, Kjøbenhavn, den Wahlske Boghandels Forlag.
- Grundtvig, N. F. S. (1838a). *Mands Minde: 1788-1838, Foredrag over det sidste halve Aarhundredes Historie*, holdte 1838 af Nik. Fred. Sev. Grundtvig. Efter Forfatterens Haandskrift for første Gang udgivet af Svend Grundtvig, Bianco Lunos Bogtrykkeri. Kjøbenhavn. Karl Schönbergs Forlag. 1877.
- Grundtvig, N. F. S. (1838b). *Skolen for Livet og Akademiet i Soer borgerlig betragtet*, Kjøbenhavn, den Wahlske Boghandel.
- Grundtvig, N. F. S. (1845). *Danske Ordsprog og Mundheld*, Kjøbenhavn, Universitetsbohandler C.A.Reitzel.
- Grundtvig, N. F. S. (1848, 1849). *Danskeren, et Ugeblad*, Kjøbenhavn, I Commission hos Bog- og Papiirhandler F. H. Eibe.
- Allchin, A. M. (2015). N.F.S. *Gurndtvig.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2<sup>nd</sup> ed.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Allchin, A. M., Bradley, S. A. J., Hjelm, N. A. & Schjørring, J. H. (Ed.) (2000). *Grundtvig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Allchin, A. M., Jasper, D., Schjørring, J. H. & Stevenson, K. (Ed.) (1994). *Heritage and Prophecy: Grundtvig and the English-Speaking World*. Norwich, Norfolk, The Canterbury Press Norwich.
- Baack, L. (1977). *Agrarian Reform in Eighteenth-Century Denmark*. Papers from the University Studies Series.
- Broadbridge, E. & Korsgaard, O. (Ed.) (2019). *The Common Good: N. F. S. Grundtvig as Politician and Contemporary Historian*.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Broadbridge, E. Warren, C. & Jonas, U. (Ed.) (2011). *The School for Life: N. F. S. Grundtvig on Education for the People*.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Hall, J. A., Korsgaard, O. & Pedersen, O.K. (Ed.) (2015). *Buidling the Nation, N. F. S. Gurndvig and Danish National Identity*. Montreal & Kingston, Ithac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Jespersen, K. (2004). *A History of Denmark. translated by Hill, I.* Hampshire: Palgrave.
- Korssgaard, O. (2019). Revolution or Evolution. in Broadbridge, E. & Korsgaard, O. (Ed.) (2019). *The Common Good: N. F. S. Grundtvig as Politician and Contemporary Historian*.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Lampe, M. & Sharp, P. (2018). *A Land of Milk & Butter: How Elites Created the Modern Danish Dair Indust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elson, W. (1969). From Religious Movement to Economic Change: The Grundtvigian Case. in Denmark, *Journal of Social History*. Summer, 1969, Vol. 2, No. 4, 283- 301, Oxford University Press.
- Vind, O. (2015). "The Gordian Knot": Grundtvig and British Liberalism. in Hall, J. A., Korsgaard, O. & Pedersen, O. K. (Ed.) (2015). *Buidling the Nation, N.F.S. Gurndvig and Danish National Identity*. Montreal & Kingston, Ithac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Williamson, J. G. (1980). Earnings Inequality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Sep., 1980, Vol. 40, No. 3.
- Wörsdörfer, M. (2011). *Die normativen und wirtschaftsethischen Grundlagen des Ordoliberalismus*. Inaugural-Dissertation.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 Wählin, V. (1989). Grundtvigs økonomiske tænkning, Grundtvig Studier. Årg. 41 Nr. 1 (1989), 246-303.
- Wählin, V. (1994). Denmark, Slesvig-Holstein and Grundtvig in the 19<sup>th</sup> Century. in Allchin. A. M., Jasper, D., Schjørring, J. H. & Stevenson, K. (Ed.) (1994). *Heritage and Prophecy: Grundtvig and the English-Speaking World*. Norwich, Norfolk, The Canterbury Press Norwich.
- Østergård, U. (2015). The Nation as Event: The Dissolution of the Oldenburg Monarchy and Grundtvig's Nationalism. in Hall, J. A., Korsgaard, O. & Pedersen, O.K. (Ed.) (2015). *Buidling the Nation, N.F.S. Gurndvig and Danish National Identity*. Montreal & Kingston, Ithac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그룬트비의 경제사상: 그 발전과정과 배경

## The development and backgrounds of Economic thoughts of N.F.S. Grundtvig

이명헌 (인천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그룬트비의 사상영역 중 경제분야에 대한 그의 사고체계를 그의 중요저작인 “삶의 기억(1838)”, 그리고 “덴마크인(1848, 1849)”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삶의 기억”에서는 영국 경제발전의 동력을 ‘이익추구에 입각한 일’과 ‘자유’에서 찾았다. 그의 경제적 사상은 “덴마크인”에서는 더욱 심화되고 체계화되어 경제적 번영의 조건으로 ‘소유권 존중’과 ‘영업의 자유보장’을 강조하고 그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중간층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임대료, 임대기간, 매각 대상 등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사고의 진전을 불러일으킨 요인은 1848년 이후 입헌 과정과 1차 쉘레스비히 전쟁이라는 대내외적 긴장된 정치상황과 농촌에서의 계급갈등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토지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제약을 부과하는 주장의 바탕에는 일종의 토지공유사상이 기초가 되고 있었으며, 그가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경제주체들을 공동선을 인식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계몽을 중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주제어:** 그룬트비, 경제체제, 자유, 소유, 농민계층





# 한국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공동체성\*

## Bipo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and the Trinitarian Communalty

김성원 (Sungwon Kim)\*\*

### ABSTRACT

Today,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extreme bipolarization. Politically, public opinion is almost exactly divided in half along the structure of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and political antagonism among families, work, and friends is widely noticed. Along with this political conflicts, regional sentiments and opinions concerning women's rights are also worrisomely divided. Economically, neo-liberal capitalism divides society between the super-rich capitalists and the rest in a 1:99 ratio, which becomes a major factor in growing social unrest today. If we zoom out to see the mega-trends today, philosophies such as individualistic humanism and postmodernism are alienating many young people from meaningful social relationships. These unfortunate trends seem to only grow stronger by the technological revolu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quarantined, hyper-connected society we are driven into thorough isolation where there is no hope for communal life.

This article seeks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deepen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bipolarization problems of today's Korean societ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For that purpos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deal communality underlying the Christian faith. Specifical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rinitarian communality of God, which is the original

\* 2023년 5월 15일 접수, 6월 11일 최종수정, 6월 14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3년도 서울신학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집필되었다. 이 논문은 저자가 같은 제목으로 2022년 제39회 기독교학문 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주제강연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서울신학대학교(Seoul Theological University) 교수 (철학적신학, 조직신학 전공),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2(소사본동), sungwonkimis@gmail.com

source of Christian communality. By introducing and discussing Social Trinitarianism – a contemporary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Trinity – this article discovers essential principles from divine, social nature of the Trinity.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at the principles of divine communality shown by the Trinity can be applied to human society as viable principles of communality. The evidence for such a claim is the existence of family and the church. Christian theology recognizes the family and the church as two communities established by God, and that the trinitarian principles of communality operate within these human communit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divine principles of communality found in the Trinity and operating in family and the church may become a solution for remedying the bipolarizing Korean society.

**Key words:** Korean society, bipolarization, Community, Social Trinity, Christianity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의 구도를 따라 시민들은 거의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져 있으며, 가정과 직장 and 친구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그 깊은 갈등의 골짜기에 이어서 지역감정과 젊은 남성과 여성들 간의 갈등의 골도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다.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 결과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1:99의 사회로 갈라져 있으며 그 경제적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 이 시대의 정신인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나 개인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든 공동체적 담론들을 거부하게 만들고 대면적 모임을 거부하게 하면서 그들을 고립된 개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좀 더 크게 보면 남-북한의 관계의 골은 무엇보다 깊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는 이제 핵전쟁의 양상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서도 깊은 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평양과 그 외 지방 사이의 깊은 정치적, 경제적 골짜기가 있으며,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모든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경제는 파탄 날 지경이며 인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사회에 바람직한 공동체성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을까? 갈등을 줄이고 증오와 대립의 거대한 힘들을 순화시키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기독교가 가진 고유한 공동체성을 한국사회 양극화의 한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기독교적 공동체성의 출발점인 삼위일체 교리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삼위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양식이라는 것을 최근의 신학연구를 인용하여 주장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양식으로부터 두 가지 참된 공동체성의 원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양식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며 또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논의하면서 논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의 원리들이 함의하는 사회적 시사점들과 구체적 적용점들을 제안하고자 시도한다.

## II. 기독교적 공동체성의 원형인 삼위일체 공동체성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기독교의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 교리는 언제나 지성인들에게 이해의 어려움을 주어 왔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교리는 기독교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져 왔으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교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여겨져 왔다.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신비라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 이해를 발전시켜 왔다.

먼저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사를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계승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형성되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들과 그의 행적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다.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유대인의 오순절 절기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또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삼위일체가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된 것은 서기 381년으로,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전체 교회의 공의회(church council)에서 성령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결의와 함께 이뤄졌다. 신학자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바질(Basil the Great),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와 같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함께 성령님의 신성을 옹호하고 변증했다. 그들이 정리한 삼위일체 교리의 정의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당시의 그리스어 용어로는 하나님은 하나의 본성(οὐσία, ousia)과 세 위격(ὑπόστασις, hypostasis)을 갖는다고 표현하며, 라틴어로는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substantia, substance)와 세 위격(persona, person)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참여한 전체 교회 대표들이 이를 공인했고, 그 이후로 오늘날 정통적인 모든 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며 공식적으로 고백한다.

기독교 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살펴보면 비록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성경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학자 존 메츠거(John Metzger)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אלהים, elohim)이라는 복수형 명사를 포함하여 복수의 동사, 복수의 형용사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경이 엘로힘과 야훼(יהוה, Yahweh)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삼위일

체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들 (שְׁכִינָה, shechinah)과 같은 복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나 구원자(מָשִׁיחַ, Messiah)를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Metzger, 2006).

신약성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표현들이 다수 존재한다. 신학자 아서 웨인라이트(Arthur Wainwright)는 신약성경의 본문 가운데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첫째, 로마서 9:5, 히브리서 1:8을 비롯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7개의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도행전 2:36과 같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칭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다. 셋째, 베드로후서 3:18, 요한계시록 1:5b, 6에서처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표현들이 있다. 넷째, 마태복음 25:31-46, 마가복음 8:38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분으로 기록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 다섯째, 골로새서 1:16, 히브리서 1:2, 요한복음 1:3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로 기록하고 있다. 여섯째로 마가복음 12:6-7, 13:32, 14:61-62, 누가복음 10:22 등 여러 구절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Wainwright, 2001: Part II).

삼위일체의 교리가 강조하는 것은 삼위(三位)의 인격적 구별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 즉 일체(一體)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성과 일체성에 대한 동시적 인정과, 삼위와 일체 간의 완벽한 균형이다. 이에 따라 삼위성과 일체성에 대한 동시적 인정과 균형을 거부하거나 깨뜨리는 입장들을 정통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예를 들면 4세기경 구레네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교부였던 장로였던 아리우스(Arius)는 하나님의 일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삼위성을 거부했다.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 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교회에 큰 논쟁을 일으켰으나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아리우스주의를 현대에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와 증인들(Jehovah's Witnesses)들이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임을 주장하며, 성령의 인격성이나 신성을 부정하면서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다. 반면, 몰몬교 (Mormonism, 말일성도그리스도교회,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의 경우에는 아리우스주의나 여호와와 증인들과 반대로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하는 다신교를 주장하고 있다. 정통 교회에서는 그들을 또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신학계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 현대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단지 불가해한 신비로 생각하는데 머물지 않고, 성경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 교리를 새롭게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신학적 노력이 사회적 삼위일체론 (social trinitarianism)이다.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자로는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 미로슬라브 볼프

(Miroslav Volf), 엘리자베스 존슨(Elizabeth Johnson), 존 지지올러스(John Zizioulas), 코르넬리우스 플랜팅가(Cornelius Plantinga) 등이 있다. 이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질, 닛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등 동방교회 교부신학자들의 신학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은 그동안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카톨릭교회에서 발전되어 온 삼위일체 신학이 하나님의 일체성에 집중한 나머지 세 위격을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한다. 그 대안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은 콘스탄티노플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 신학의 전통이 강조해 온 것처럼 세 위격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일체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 교리와 정의를 계승하면서도, 이 교리에 대한 신학적 설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체성을 공동체성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신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 위격은 각각 건강하고 구별되는 인격적 주체성을 가지고 계시며, 이 세 위격들이 하나의 나눌 수 없는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공동체적 삼위일체론(communal trinitarianism)이라고 불리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표현이 사회라는 표현보다 교제와 연합의 특성들을 더욱 명확히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기존 통용되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으로 표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 위격의 구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삼신론(tritheism)으로 넘어가거나 삼신론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 삼신론은 세 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신학자 월터 카스퍼(Walter Kasper),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 알랜 토랜스(Alan Torrance)와 같은 유럽의 신학자들은 몰트만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삼신론의 위험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일체성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웨슬리신학연구소, 2015: 245).

이러한 삼신론의 위험에 대해서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은 다양한 대답과 해명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삼신론 혹은 다신론은 신들 간의 불화와 경쟁을 보여주고 있으나, 성경이 보여주는 세 위격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과 화합과 순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신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Plantinga, 1989: 37-53). 역사상 다양한 종교의 신과는 달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은 특별한 관계적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통해서 서로는 인격적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인격적 상호관계성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은 다른 인격을 향하여 나의 인격을 개방하며 다른 인격을 섬기며, 두 인격이 내면적으로 결합하며, 이러한 본질적 관계성 속에서 각 인격은 참된 자신의 본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의 핵심인 사랑을 묘사하는 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사랑이 인간이 가진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활동과도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사랑은 인간이 자기중심의 판단이나 활동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과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사랑은 인간이 가진 본성과 지식들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은 인간이 가진 본질이며, 그 내용은 타인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서로에 대해 바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연합을 이루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명확하고 담대히 증거한다.

둘째로,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러한 사랑의 존재방식이 세속적인 존재론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 방식임을 지적한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세 위격의 독립성과 상호성은 주체성과 관계성에 관한 과거와 현대의 개념들을 넘어서는 독특한 것이라는 것이다. 정교회 (orthodox church) 신학자 존 지지울러스 (John Zizioulas)는 이 점에 대해서 탁월한 신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Zizioulas, 1997). 그는 최고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substance)로 보았던 그리스철학과 달리 기독교는 최고의 존재를 인격(person)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체는 독립성을 그 본질로 하는 반면, 인격은 관계성을 그 본질로 한다. 그는 기독교가 인격을 궁극적인 존재의 개념으로 제시함으로써, 물질적이고 독립적인 형이상학에 빠져 있었던 그리스철학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제시하는 삼위와 일체는 물질적이고 독립적인 일자들의 외연적 집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인격들의 본성적 연합이라는 것이다.

현대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도 근대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지지울러스와 동일한 관계적 존재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실체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존재이해는 유럽의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에서 주류가 되었으며, 그 결과로 이원론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의 독립적 실체인 인간정신과 또 다른 독립적 실체인 물리적 세계를 인정함으로써, 이들 실체 간에 아무런 본질적 관계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인식의 주체인 정신과 인식의 대상인 세계와의 사이에서도 아무런 본질적 관계성을 제시할 수 없는 인식론적 회의론(懷疑論, skepticism)이나 유아론(唯我論, solipsism)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실체론적 사고는 형이상학적, 인식론

적 이원론(dualism)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근본적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일원론적이며 관계론적이고 유기체적 철학(organic philosophy)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화이트헤드는 관계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재인 현실재(現實在, actual entity)를 중심으로 하는 일원론적 우주론 모델을 제시한다(Whitehead, 1979). 이러한 관계적 사고와 관계론 우주론의 연장선에서 화이트헤드는 삼위일체를 언급한다. 그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존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복수성(multiplicity)을 주장함으로써 형이상학에서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인정한다.(Whitehead, 1967: 168).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기독교적 공동체성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지울러스와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주장들과 제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양철학이 주장해 온 것처럼 최고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substance)라는 세속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나 기독교의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양철학에서의 실체적인 존재와는 달리 기독교의 존재 개념인 인격은 타자와의 관계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삼위일체에서 인격으로서의 삼위는 서로 구별되고 독자적인 인격성을 가지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인격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인격은 다른 인격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처럼 다른 인격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되는 인격이다.<sup>1</sup>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 방식을 일자(一者), 타자(他者), 다자(多者)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인격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론적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새로운 존재론의 길을 제시한다는 지지울러스의 관찰은 타당하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세 인격의 본질적인 관계성과 세 인격 간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그리스어 페리코레스시스(περιχώρησις, perichoresis)라는 단어이다. “페리”는 주위에, 둘러, 에워싸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며, “코레스스”는 담다, 포용하다, 침투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페리코레스시스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상호내재(相互內在) 혹은 상호침투(相互浸透)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틴어로는 circum-incessio, 영어로는 co-inherence, mutual penetration 혹은 mutual indwelling으로 표현할 수 있다. 페리코레스시스의 삼위일체론적인 의미는 “세 위격들의 결합과 연합 혹은 내적으로 교통하는 상태 또는 행위”이다(김석환, 2007: 218). 다시 말하면 페리코레스시스는 인격적 존재자들이 내

1)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인격이라는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위격(位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나님의 위격은 인간이 가진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인격의 원형이 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인격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인격성과 신비를 포함하고 있다. 필자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격이 가진 인격적 본질을 드러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면적으로 서로 결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관계적 행위를 통해 본질적으로 서로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위격들의 사회성과 관계성을 페리코레시스로 이해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없이 결합되고 본질적으로 연결된 인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인가? 아니면 셋인가?” 하는 산술적인 물음이나, “주체인가? 혹은 타자인가?” 하는 실체론적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내면적 관계성을 통한 공동의 존재방식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협업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는 사역에서도 긴밀히 협업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으로 그 미션을 수행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청하였으며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 III. 인간의 공동체성의 현실적 원리인 삼위일체 공동체성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가지신 사랑의 존재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부여주셨고, 또 물려주셨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삼위일체의 존재양식을 인간을 향해서 개방해 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과 자유로부터 피조물인 인간에게 개별성과 선택의 자유와 사랑의 능력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인격적 교제의 관계성으로 들어오셨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신학자 몰트만이 강조하듯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자유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움으로 피조물과의 관계성에 참여하신 것이다(Moltmann, 1993a).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인격적이고 페리코레시스적인 교제라는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개별성과 자유를 존중하심으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셨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존재방식을 버리고 자신들의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관계적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예수님은 동일하게 관계적 사랑 안에서 자신을 비워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스스로를 희생하셨다. 성령 하나님 역시도 인간에게 임재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도우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인간을 위해 중보기도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가진 페리코레시스적 본성을 인간에게 연장시켜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12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사랑이 인간에게 부여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주셨다고 증거한다. 더 나아가 사랑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식의 방법임을 증거하고 있다. 인간은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적 교제를 열어서 인간들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그 아가페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학자 몰트만이 발견하는 삼위일체론적 교제의 구원이해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교제 안으로 초청받고 있으며 종말에 우리는 그것의 완전한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Moltmann, 1993b).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삼위일체 공동체적인 사랑이 인간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윤리의 근간임을 또한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22:37-40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식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율법과 윤리의 본질이자 최고의 목적임을 명확히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랑의 명령을 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s)으로 부르며 중시한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43-44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중보하라고까지 명령하신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수준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경험치와 가능치를 넘어서는 온전한 사랑임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이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가르친다. 한 편으로는 개개인의 인격적 주체성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존중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 삶을 실천하되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사랑의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기독교는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독교적 공동체는 각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또한 각 개인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주체적이며 관계적인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IV.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현실적 모델인 가정의 공동체성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인간 공동체가 있다. 그 하나가 가정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창세기 1장 22-2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브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페리코레스시스의 관점에서 위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담은 동물이나 식물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맞는 인격적 교제의 대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부터 이브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브가 아담의 몸의 일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아담과 이브가 본질적으로 상호관계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가 이성(異性)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 또한 아담과 이브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상호보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인격체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가족관계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공동체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삼위일체와 인간가족의 연관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신학적으로 진술한다:

모든 인간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표면화될 수 있는 가족 안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은 위격들의 연합이며 공동체이고, 가족은 사랑과 연합 위에 세워진 인간 공동체의 근원적 표현이다... 아이는 그 둘 사이에 태어나 남편과 아내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바꿀게 하고 그 둘을 연합시킨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 밖으로 나와 그들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것, 즉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의 열매인 자신들의 아이에 집중한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삼위일체의 - 가장 풍부한 것 중의 하나인 - 형상을 가진다. 가정에는 사람들의 독특성이 - 남편은 아내가 아닌 것처럼 - 있다. 가정 내에서의 각자는 자율성과 적절한 역할을 가지면서도 사랑과 같은 필수적인 연대에 의하여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 속에는 생명에 있어서의 한 연합이 있다. 즉, 셋은 셋으로 남아있으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 가정의 통일성은 복된 삼위일체의 그것과 유사하다. 통일성은 각 사람이 타자를 향하여 나아감과 동시에 동일한 생명의 공유와 사랑의 표현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인식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인식과 같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되게 한다. 유비적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위격들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는 신적인 위격인 성령을 '연합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Boff, 김영선·김옥주 역, 2011: 72).



보프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 존재양식을 인간 가족에게 부여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와 세 가족의 본질적 유사성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관계적 형상(relational image of God)을 인간의 가족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교리의 정립에 크게 공헌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아담과 이브와 아들 셋(Seth)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Gregory of Nazianzus, 1999: 340). 해와 빛과 열의 비유, 혹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인간의 정신과 기억과 의지 등 삼위일체를 비유하는 여러 비유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그레고리가 제안한 가족의 비유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상호관계적인 존재양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가 아닐 수 없다.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서 참된 인격적 관계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족 경험 속에서 확인된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여전히 서로 헌신한다. 밖에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조차도 자기들의 가족을 아끼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물론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기까지 하는 파괴적인 가족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이러한 예들을 가족 구성원들의 인격성의 결함으로 인한 예외적인 이탈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V.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현실적 모델인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사회적 모습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다. 초대교회(初代教會, the early church)는 각 구성원들이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런 공동체적 교제의 공동체였음을 성경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初代教會)의 이러한 교제의 삶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셨다는 것이다. 사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랍게 임하시는 체험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른 신자들과 더욱 깊은 사랑과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놀라운 교제공동체로 발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사랑에서도 확인된다. 요한복음 17: 21-23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계신 높은 기대를 볼 수 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를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특별한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계획이다. 이것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2:13-22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적 관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세상의 적대적 관계성을 변화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 당시 로마의 가장 번성하는 교역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인간의 원수됨을 소멸하시고, 두 사람이 한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타인도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교회와 성도들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그는 담대히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교제는 모든 인류를 향해 개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인간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회복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이 이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랑의 교제에 있다고 강조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에밀 브룬너(Emil Brunner)가 있다. 브룬너는 교회를 교제(koinonia, communion)를 위해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인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정의한다 (Brunner, 박영범 역, 2013: 19, 29). 앞에서 소개한 신학자 보프 역시도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교회는 본래 믿음과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시된 일치의 사상,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요 17:21)처럼 그 말씀대로 살기위해 노력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Boff, 김영선·김옥주 역, 2011: 77). 더 나아가 보프는 교회가 삼위일체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것을 권면하면서 삼위일체의 인격적 결합이 교회의 공동체성의 모델이 됨을 강조한다: “교회가 독특한 세 위격의 일치와 한 하나님이 됨으로 인한 삼위일체적 연합인 영원한 샘에서 마시면 마실수록, 교회는 교회의 내적인 분열을 보다 더 잘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권위적



구별이 없어지고, 삼위일체의 통치를 위해 사역하는 진정한 형제자매, 즉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서 의 평등한 관계의 공간이 될 것이다 (Boff, 김영선·김옥주 역, 2011:78).

## VI. 삼위일체 공동체성이 사회양극화에 제시하는 함의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기독교에게 있어서 인격의 본질적인 주체성과 관계성에 기반한 사랑의 교제와 공동체성이 인간성과 사회성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격적 교제는 삼위일체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인간의 가족과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다. 주체와 타자성, 사회성은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성에 비추어 보면 실체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의미를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론적 의미를 갖게 된다. 각 개인은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고유한 주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주체성은 타자성을 인정하고 섬길 때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게 된다. 사회성은 더 이상 계약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의 존재양식으로써 근본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이러한 공동체성이 오늘날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과 적용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인격적 주체성과 자발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

기독교의 삼위일체교리와 가정과 교회가 시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회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의 원리일 것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교리는 특정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의 개별성과 일체의 연합성의 균형과 조화이다. 삼위일체는 주체성과 공동체성 모두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희생하지도 않으며, 공동체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주체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17-18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희생

은 아버지의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 기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39).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있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이러한 균형은 이것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공동체성이 어떠한가 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첫째로, 바람직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공동체성과 함께 강조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과 주체성을 무시하게 되면 개인은 소외되고 인격적 관계성은 파괴된다. 예를 들어서 사회나 집단적 가치나 통일성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totalitarianism)는 각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말살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체제이며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개인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의미있는 통일성과 공통성을 추구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에도 참된 공동체성은 파괴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경우에 파괴되는 것은 비단 공동체성만이 아니다. 개개인 역시도 과도한 개인의 주체성의 강조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적 본성의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개인을 온전한 인간이 되게 만드는 인격적 속성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본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격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자신을 다른 인격체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행위이다. 다른 인격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성과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개별성이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인간소외를 낳으며 참된 공동체성을 파괴하며, 개개인을 비인간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인격적 공동체 원리는 역사상의 다양한 사회구성의 이데올로기들과 체제가 인간의 요구에 얼마만큼 맞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시사점을 우리는 얻게 된다. 형평성이나 효율성이나 합리성 등 사회를 운영하는 이데올로기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많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격성과 공동체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요청은 하나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들어보자. 사회주의는 자본가들의 경제적 독식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사회 전체의 평등성, 즉 경제적 공동체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공동체 원리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이익계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집단 간의 투쟁을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기독교의 공동체 원리를 벗어난다.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자본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말살하고 구속하며, 노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개인적 자유나 의사를 무시하고 집단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강요하는 면에서도 기독교의 공동체 원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기독교의 공동체 원리에 비추어 보면 자본주의도 일부만이 긍정적이다. 개인의 경제적 욕구와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인격적 주체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타인의 욕구에 대한 존중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회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의 안정을 도외시하는 면에 있어서 자본주의 역시도 기독교 공동체성의 원리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 2. 인간의 본성적 결함에 대한 각성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양극화된 우리 사회에 가정과 교회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의 겸손과 회개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온전한 상호존중과 함께 온전한 상호복종과 섬김으로서 작동하는 공동체를 제시하며, 또 그것을 인간에게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공동체적 원리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사회모델이나 사회적 이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그것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삼위일체의 원리는 인간 공동체에 겸손을 요청하며, 그 한계를 발견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나머지 참된 공동체성을 상실했으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한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기독교는 선언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가정 공동체들은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가정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상호 간에 고통을 주고받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랑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종종 가족 이기주의를 통해서 성경이 명령하는 보편적 사랑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있다. 교회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교회 안에서 이뤄지고, 계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며 박해자들을 용서하는 섬김과 나눔과 포용의 역사가 교회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도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계약적 원리 위에서 작동되는 일반적인 사회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기심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원리들은 모든 인간 공동체에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적 결함에 대한 기독교의 해법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해법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원래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화(聖化)의 과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죄성을 극복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본성적인 결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지적한다.

모든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되고 본성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모든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성의 추구에 있어서 인간의 이러한 반공동체적인 본성적 결함을 고려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많은 사회적 운동에 이러한 상식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들의 본성적 결함과 죄성을 도외시하는 가운데서 사회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문제가 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혹은 경쟁하는 집단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도나 체제를 바꾸면 사회문제는 해결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집단이 제거되면 살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보자.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그들의 소유를 박탈하여 분배하면 세상이 더 평등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경제적 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며, 이 공동체는 인간의 근원적 소외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반대의 결과였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은 새로운 특권 기득층 계급을 만들어 냈으며, 평등과는 거리가 한참 먼 독재사회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들은 빈곤과 인권유린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그 한 원인은 사회주의자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이기심과 권력욕을 간과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고전적 자본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을 내버려두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

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시장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이기심은 상호 간 조절되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대 자본가들이 출현하고, 그들이 가진 자본의 힘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다른 영역들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더욱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제는 자본가들의 힘이 정치와 국가와 국제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금권정치(金權政治, plutocracy)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계 지도자들은 오늘날 수많은 경제적 위기의 바탕에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자들도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욕이 통제 불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보편적 본성적 결함에 대한 기독교의 인식은 양극화된 사회의 문제에 어떤 실용적 시사점을 주는가? 그것은 첫째로, 어떤 지도자나 제도도 모두 문제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지도자도 이기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공정할 수 없으며,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라도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서 왜곡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나 국제관계를 들여다보면 극단적인 갈등과 양극화의 주범은 자신만이 정당하다는 근거없는 도덕적 오만임을 볼 수 있다. 한 정당이 자신의 정당을 선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당을 악으로 규정할 때,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악으로 규정할 때, 그것은 근거 없는 오만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겸손한, 상대주의적인 자기인식은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타인의 잘못을 관용하게 하며, 타인의 입장을 반영하게 한다.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기심과 결함을 인정하는 정치집단이 상대방을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정당화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신의 동기나 계획이 지닌 상대성과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방성은 상생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고용주와 고용인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한계를 깨달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충돌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도 양측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자기 정당화와 오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판단에 오류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형식적인 평화협상은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인간의 이기심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들을 절대화하여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견제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을 균형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이러한 생각을 일생동안 발전시켰다. 그의 입장을 흔히 기독교적 현실주의 (Christian Realism)이라고 부르거나 그리스도교 실용주의(Christian Pragmatism)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적 현실주의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 간의 냉엄한 경쟁과 대결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하자는 현실주의 관점과는 다르다. 니버가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죄성과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Harris, 안태진 역, 2016: 83-84)<sup>2</sup>

니버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의 예를 들면, 니버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정의의 실현을 제시했다(Niebuhr, 이한우 역, 2004).<sup>3</sup> 그리고 니버는 인간의 집단적 이기심을 제어할 가장 현실적인 정치체제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한다(Niebuhr, 이한우 역, 1995)<sup>4</sup> 니버가 제시하는 방향은 기독교가 가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 편으로 인간의 사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공동체성을 부여받았으며, 그것을 추구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인간의 사회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공동체성이 깨어짐을 경험하였으며 그것을 회복해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이-존재인 인간은 그 깨어진 사이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기독교 현실주의는 이 회복과정에 있는 존재인 인간사회가 취할 태도와 방향을 잘 보여준다.

### 3. 원형적인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할과 희망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이 제시하는 또 한 가지 사회적 함의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왜곡되고 파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깨어지고 양극화되고 대립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 참된 공동체성의 보존과 회복과 확산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17b)”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안식일

2) 니버의 입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한 편으로 니버는 낙관주의나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이상을 포기하는 비관주의나 냉소주의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다.

3) 이 책에서 니버는 개인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이기심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덕의 사회적인 목표를 아가페 사랑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실천에 두었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강제력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니버는 처음에 자유주의적 기독교인으로서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했으나, 곧 인간의 포변적이고 본성적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니버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기심을 견제하는 정치적 시스템으로써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체제를 통해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나 민주적 과정이나 타협의 정치에 대한 낙관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욕을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안전장치로써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병든 인간과 관계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참된 공동체성을 부여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해 오셨다.

이것은 삼위일체가 제시하는 원형적인 인격적 공동체성이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동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참된 인격적 공동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인간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 가신다. 이렇게 보면 니버는 이뤄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윤리를 종말에 가서야 이뤄질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으로 보았으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한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실현을 꿈꾸게 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힘과 희망이 된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에 대한 소명을 주셨고 그를 움직이셔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은 고백도 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28-29). 바울은 자신의 노력 이전에 자신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소망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기심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사회의 미래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인류의 1/3에 해당하는 24억의 인류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며, 인간사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이며,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악을 심판하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지구촌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또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안심과 위로가 될 수 있으며, 현실적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VII.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제안들

위에서 제시한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의 원리들과 함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시도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 제안들을 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경향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위주의란 나이, 지위의 차이들을 계급적으로 인식하고 리더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이 가르쳐주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는 우리 한국사회와 세계 여러 사회와 종교 시스템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남편 혹은 아내가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부모는 자녀에 대해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적 교회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면서 성도들의 주체성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적 경제인들이나 기업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은 협력자들과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이 요청하는 것은,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와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의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구의 자유 인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해 오늘날 한국과 서구화되는 많은 나라들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개인주의자들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기를 거부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사정에 무관심하다. 그 결과 이들이 속한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 간 교제가 단절되고, 직장에서도 단체활동이나 교제는 사라지고 오로지 일을 중심으로만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경제적 양극화를 악화시켜 큰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들은 사회적 담론을 어렵게 만들어 정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적 담론들이 부재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이나 독재자들의 지배를 받게 하고 있다.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은 이러한 개인주의를 거부하도록 요구한다. 개인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개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발현하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속한 모든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를 극복하도록 노력하면서 관계적 삶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로, 우리는 절대화된 모든 사회적 이데올로기들을 거부해야 한다. 서양의 근대주의는 주체적 이성의 힘을 신뢰하면서 사회계약론, 제국주의, 자본주의, 인종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여

러 가지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들을 생산해 왔다. 각각의 이데올로기들은 군주와 귀족들이 지배하던 전통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정한 공헌을 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이데올로기들이 절대적인 선으로 주장되었으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자신의 논리로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였으며 식민지의 주민들은 노예화되어 강제노동과 착취에 시달려야 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주체적 자유와 경제적 이기심을 절대화하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생산력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가 있었으며,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희생이 따랐으며, 경제적인 양극화가 따랐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해방을 주장하였으나, 자본주의의 필연적 멸망과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의 절대적 법칙성과 폭력적 혁명과 사회주의 엘리트들의 독재의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공산당의 독재만 계속되는 실정이다.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은 이 모든 이데올로기들의 실패의 원인으로 인간의 본성적인 결함, 이기심과 죄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주장하고 주도하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모든 절대화된 이데올로기적 주장들을 추방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절대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주장들은 그것이 진보주의든 보수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의심하고 비판해야 하겠다. 가정에서도 자신을 절대적인 선으로 정당화하는 주장들은 극복되어야 하겠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은 유한하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요구된다.

## VIII. 요약과 결론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양식인 삼위일체는 특별한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각 위격이 지닌 인격적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가운데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적 사랑을 통한 연합의 존재양식을 잘 설명하고 있는 현대신학의 관점으로 우리는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을 꿈꿀 수 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동방교회의 삼위일체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각 위격이 가진 인격적 주체성의 구별됨과 동시에 주체적 자유로부터 자발적인 섬김과 복종을 통한 사랑의

일체적 연합을 발견한다.

기독교는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러한 삼위일체적 사랑의 존재방식이 인간에게 부여되었으며, 인간은 이와 같은 인격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증거한다. 인간의 사랑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두 가지 대명령이다. 이 사랑의 명령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로 가르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인간 공동체로써,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적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를 온전케 하며, 자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식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모형이 된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형제와 자매로서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예배의 공동체 양식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적대적으로 갈라진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들 안에서도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축매제로 사용하신다.

기독교가 증언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성은 오늘날 인류와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극심한 양극화와 대립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로, 삼위일체 공동체성이 제시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의 원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공동체성의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이 원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금석이 된다.

둘째로, 삼위일체 공동체성이 제시하는 공동체 원리는 기존의 모든 공동체 이론과 체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기독교는 인간 전체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인간성이 훼손되고 근본적 결함을 가지게 되었음을 예언자적으로 증거한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기독교의 분명한 증거는 인간의 사회성 역시도 이러한 타락과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사회나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모든 낙관적인 견해들을 정당하게 거부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회 지도자들과 제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겸손과 관용을 요청하며, 대화적이고 상생적인 자세를 요청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권력을 나누고 상호견제하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제도를 통해 결함 있는 인간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적 대안을 요청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죄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겸손과 상호견제를 통한 온전한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성을 지향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들이 그 길에서 참된 모범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셋째로,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성 삼위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주도하고 계신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원형적인 인격적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일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방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사회를 삼위일체적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회적 노력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인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석환 (2007). **삼위일체론과 성령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 [Kim, S. H. (2007). *Trinity and Pneumatology*. Seoul: Korea Scholarly Information.]
- 김영선·김옥주 역 (2011). **성삼위일체 공동체**. Boff, L. (2000). *Trinity and Society*. 서울: 크리스찬 헤럴드.
- [Kim, Y. S. & Kim, O. J. (2011). *Trinity and Society*. Seoul: Christian Herald. Trans. Boff, L. (2000).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New York: Orbis Books, 2000.]
- 박영범 역 (2013).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가?**. Brunner, E. (1951).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서울: 대서출판사.
- [Park, Y. B. (2013).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Seoul: Dae Seo Publishing Company. Trans. Brunner, E. (1951). *Das Missverstaendnis der Kirche*. Seoul: Deaseo Publisher.]
- 안태진 역 (2016). **라인홀드 니버**. Harris, R. (2011). *Reinhold Niebuhr: Reconsidered*. 서울: 비아출판사.
- [Ahn, T. J. (2016). *Reinhold Niebuhr*. Seoul: Via Publishing Company. Trans. Harris, R. (2011). *Reinhold Niebuhr*. Cambridge: Grove books Ltd.]
- 웨슬리신학연구소 편 (2015).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서울: 아바서원.
- [Methodist Renewal (2015). *Triune God in Relation*. Seoul: Abba Books.]
- 이한우 역 (1995). **빛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Niebuhr, R. (201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서울: 문예출판사.
- [Lee, H. W.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Seoul: Moon Ye Publishing Company. Trans. Niebuhr, R. (201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이한우 역 (2004).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Niebuhr, R.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서울: 문예출판사.
- [Lee, H. W. (2004).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Seoul: Moon Ye Publishing Company. Trans. Niebuhr, R.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 Gregory of Nazianzus. (1999). Fifth Theological Oration. in Schaff, P. (Ed.) (1999).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cond Series*, Vol 7.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 Metzger, J. B. (2003). *The Tri-unity of God is Jewish*. Angier: Jewish Awareness Ministries.



- Moltmann, J. (1993a).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Moltmann, J. (1993b). *Trinity and the Kingdom*.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 Plantinga, C. (1989). Social Trinity and Tritheism. in Ronald, J. (Ed.) (1989). *Trinity, Incarnation and Atonement: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Essays*. Feenstra and Cornelius Plantinga.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Wainwright, A. W. (2001). *The Trinity in the New Testament*.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 Whitehead, A. N. (1979). *Process and Reality* - corrected edition. New York: Free Press, 1979.
- Whitehead, A. N. (1967).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Free Press.
- Zizioulas, J. (1997). *Being as Communion*.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 한국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공동체성\*

## Bipo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and the Trinitarian Community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 국문초록

오늘날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의 구도를 따라 국민들의 여론도 거의 정확하게 양분되어 가족과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목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와 함께 지역감정과 남녀간의 갈등과 대립도 우려스러운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사회를 거대자본가들과 나머지 경제주체들을 1대 99로 계급화하고 있어 큰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개인주의적 인본주의나, 포스트모던주의,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는 사람들을 사회생활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으며, 공동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철저히 고립된 개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논문은 오늘날 이처럼 심화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양극화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은 기독교 신앙의 저변에 있는 본질적 공동체성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공동체성에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을 제시한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전적 교리에 기초하여 현대신학자들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소개하면서 이 논문은 그 속에서 사회적 공동체성의 본질적인 원리들을 발견한다. 이 논문은 더 나아가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이러한 완전한 공동체성의 원리들이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되고 공동체성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이 논문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제시한다. 기독교 신학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로 인식하며, 이 공동체들에서는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의 원리들이 작동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가정과 교회에서 작동하는 공동체성의 원리들이 한국사회의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구체적인 시사점과 적용점들을 예시한다.

주제어: 한국사회, 양극화, 공동체, 사회적 삼위일체론, 기독교



## 모리스 센닥 그림책의 심리 해석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조명 - Vanhoozer의 문화 해석 관점을 중심으로\*

**An Analytic Study of Christian Worldview about Maurice Sendak  
Picturebook within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Interpretation of Vanhoozer**

이수형 (Soo Hyung Lee)\*\*

박은주 (Eun Ju Park)(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e picture book genre began with Orbis Sensualium Pictus, which was the first picture book and was written to teach children about God's existence and word. In today's world, however, picture books' role has shifted from teaching children to representing their intense and exciting emotions and expressing what it means to be a child. Researchers view Maurice Sendak's picture books as marking this shift. Given the publication of an increasing number of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s of Sendak's picture books, this study followed Vanhoozer (2007) and performed text analysis on one of Sendak's books from a Christian viewpoint.

In Sendak's *In the Night Kitchen*, within the world the book's actual text creates, a child is enjoying the United States in the industrial era. According to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the book as belonging to the fantasy genre, the child fulfills his needs through daydreaming. In the world behind the text, this study found that the author was a third-generation Jewish immigrant who received psychological therapy for the anxiety he developed as a teenager due to becoming financially independent at that time and having to support himself. As a writer, the author's attitude was unethical, and he did not care about children. Regarding the world before the text, researchers have revealed that Sendak's

\* 2023년 5월 12일 접수, 6월 9일 최종수정, 6월 14일 게재확정

\*\* 안산대학교(Ansan University) 언어치료아동보육과 겸임교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melodyofsea@naver.com

\*\*\* 경민대학교(Kyungm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교수,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ejphong@hanmail.net

picture books tended to attract more adults than children, with the former viewing them as a form of emotional release; consequently, progressive thinkers praised Sendak's picture books.

Approaching the text from a Christian viewpoint, this study found an egoistic perspective, suggesting that humanism and psychology led people further away from God, producing more egotism in our society.

**Key words:**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Christian Light, Psychoanalytic,

## 1. 서론

그림책의 시작은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초의 그림책 Comenius의 『세계도회 Orbis Sensualium Pictus』(1658)는 교육 자료로서 글 내용과 함께 감각적인 그림을 넣어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교사의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현은자, 2022). 오늘날 까지도 『세계도회』는 현대 교육에서 그림책에 주는 의의와 중요성을 고찰하는 연구(김병희, 김유라, 2013; 나현규, 2021)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림책 연구는 미학에 더 치중하며 예술적 감각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예술가들의 예술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전하는 가치는 언급하지 않거나 일부는 성인의 예술 경향을 함께해도 좋다는 평가들을 보이고 있다(Beckett, 2012; Meibauer, 2017).

그림책은 어린이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도서로서 글과 그림, 세상을 보여준다. 그림책 작가는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성장과 발달 과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Piaget의 언어 발달,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등의 단계이다. 그 이유는 어린이가 그림책을 만나면서 사물의 형태와 모양, 글자와 문장을 알아가며 세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강나라, 2023; 구복숙, 2003; 남규, 2009; 노서운, 2019; 이화진, 2011; 정주원, 2005)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책 연구는 교육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김현주, 2022). 예술과 문학을 겸비한 독특한 매체 특성으로 학제간의 연구들도 있으며, 예술 가치를 높이 해석하며 현대 창작 그림책의 특성을 연구하기도 한다(현은자·김세희, 2007).

대부분의 연구가들은 현대 창작 그림책의 시초를 Maurice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Where the Wild Things Are』(1963)로 언급한다(권나라, 2008; 김애용, 2000; Kidd, 2011; Kloss, 1989; Reed, 1986). 그들은 그림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유아의 격하고 흥분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아이다움을 발산한다고 강조한다. Sendak의 그림책은 어떠한다는 관념을 깨뜨린 동시에 파괴성을 보임으로서 솔직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주장은 서구 사회가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진리(Truth)보다 인간의 감각적 본성을 우위에 두는 것과 유사하다(Greene, 2001). 심리학자들은 Sendak의 그림책이 무의식의 감정을 다루었다고 보았다(Richard, 2008). 그들은 환상을 이룰 수 없는 꿈(백일몽)으로 비유하며, Max가 꿈속의 괴물들과 한바탕 벌이는 소동 이후 현실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흡족한 상태로 자아를 찾았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정신분석(psychoanalyse)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Freud가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unconsciousness)이 지배한다는 기본 가설을 만들며 시작되었다(생명과 학대사전, 2008). 그는 무의식에 억압된 신체표현장애(Hysterie)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식에 있는



고통(pain)과 욕망(desire)이 변화하여 신경증(neurosis)으로 표출되는 가설을 발견하였다. Freud는 심리의 기초를 종족 보존 본능인 성욕에 두고 불쾌를 회피하고 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심리의 모든 것을 성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학자들은 그와 결별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었다. Freud는 정신분석의 초석을 닦으며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학 분야를 건설하는데 기여했으나 성에만 집중된 인간 해석은 개인에 국한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보편성이 없는 한계가 있다(이재현, 2021).

Freud의 심리 해석은 학자의 주관적 경향으로 어린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어린이 자체가 2차 성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며 신체적으로 성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Freud의 심리학적 이론은 어린이를 성적으로만 해석하는 주관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로, Freud와 결별한 연구자들인 Jung과 Adler 등(이재현, 2021)이 지적하듯, 그의 해석은 다른 변인을 모두 무시하고 성이라는 변인만을 다루는 환원주의를 가졌다. 따라서 그림책에 나타난 아이의 욕구를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늘날 그림책의 심리 해석과정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단편적이다. 그 만큼 대중적이지 않은 연구 분야로서 그림책 자체를 심리 분석하는 비평과정은 많지 않다. 그 시도를 Sendak의 그림책으로 하였으나(Fretz, 1970; Kloss, 1989; Lanes, 1980), 당시에 논란을 일으킬 뿐이었으며 그림책의 심리해석적 경향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Sendak의 동성애사실과 결합한 심리학적 논의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Kidd, 2011; Moskowitz, 2018). 본 연구는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심리해석의 부적절함을 논증하기 위해 Sendak의 작품 중에 Fretz(1970), Haviland(1971), Kloss(1989)와 Lanes(1980)에 의해 심리해석으로 분석된 『깊은 밤 부엌에서 In the Night Kitchen』(1970)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초 그림책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를 알려주기 위한 감각적 자료(김병희, 김유라, 2013; 나현규, 2021; 현은자, 2022)였지만, 지금은 인간의 감정에 천착하고 해소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Sendak의 그림책이 다수의 심리 해석적 의의를 가지는 이유도 현대그림책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에 있다(Kloss, 1989). 즉,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의 기준을 지성에서 감정으로 바꾼 것이다. 칼데콧 상뿐만 아니라, 린드그렌 상을 최초로 받은 Sendak에 대한 수상평가가 아이들 감정을 솔직하게 다루었다(ALMA, 2023; alsc, 2023)는 것에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많은 그림책 지망생들이 그를 따라 그림책에 다양한 감정을 등장시켰다. 현대에 만들어지는 다수의 그림책은 우울함, 고통, 외로움 등을 다루면서 동시에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주제로 한다(이수형·현은자, 2022). 세계를 알려주는 전제로 그림책 개념을 볼 때 이는 매우 불편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어두운 면들은 고통과 악에 가깝기 때문이다(Peck, 2007).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심리해석은 불편한 사실과 밀접하다. 상담심리학의 창시자인 Freud는 유물론자로서 놓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불행에 집착하였고, 명성을 위한 교만으로 힘들어 했으며, 자신의 노화로 인한 나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 죽음 역시 안락사를 선택했다(Nicholi, 2004).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이지만, 자신의 문제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순을 볼 수 있다. Nicholi(2004)는 『Lewis vs Freud. The Question of God』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C.S. Lewis의 삶을 소개하며 Freud와 대조적인 행복을 가졌다고 보았다. 저자인 Nicholi(2004) 역시 심리학자로서 인간의 고통을 연구했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유일한 해결점을 준다고 하였다. 심리학 의사인 Peck(2007)도 하나님만이 고통의 문제해결 중심에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심리학은 인간의 고통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유물론에 집착할 뿐이다. 이에 대한 바른 시선을 갖고자 기독교 세계관으로 밝혀 보는 비평이 요구된다.

Vanhoozer(2009)의 『문화신학 Everyday Theology』은 인간을 둘러싼 문화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시선을 갖도록 도왔다. 문화의 신학적 비평은 오늘날 도전받는 ‘기독교적 문명사회’로부터의 멀어지는 현대사회에서의 ‘탈 기독교화’(Pike, 2017)에 대하여 신앙인에게 문화에 대한 바른 시선을 시사한다. Vanhoozer(2009)의 문화 해석 방법론은 문학을 포함한 문화의 세 가지 층위인 텍스트 자체의 세계, 텍스트 뒤의 세계, 텍스트 앞의 세계로 분석하는 것이다. 텍스트 자체의 세계는 현재 문학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그림책의 표지, 면지, 글과 그림이 보여주는 문학요소 등을 말한다. 문학요소는 인물, 플롯, 배경, 주제이며, 각 요소에 나타난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다. 텍스트 뒤의 세계는 그림책이 탄생하기까지의 저자의 환경, 교육, 가정을 알아보고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성장과정에서의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다. 텍스트 앞의 세계는 그림책이 탄생하여 사회, 독자, 시상 등으로 세계와 환경에 끼친 영향이며, 독자의 서평에서부터 국제적인 상을 수상한 이후의 평판 등 문화적 영향까지도 포함한다. Vanhoozer(2009)의 문화해석 방법론은 문화가 세상에 보인 다양한 층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숨겨진 의미까지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탁월(Olson, 2017)하여 기독교인으로서 문화를 비평하는 바른 시선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Vanhoozer(2009)의 문화해석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어린이 그림책 문화도 탈 기독교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초의 그림책이 갖는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그림책의 숨겨진 의미, 또는 세계관이 어린이에게 주는 함의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현은자와 김주아(2019)는 미국의 그래피티 예술가, Basquiat의 삶을 다룬 『빛나는 아이』 그림책이 갖는 ‘표현적 개인주의 세계관’을 Vanhoozer의 문화해석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그림책이 예술가의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삶의 모순은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은자와 김주아(2019)는 전기 장르의 특성상 어린이에게 좋은 예술가는 기교에 있다는 것을 남겨 주는 오류를 보이며, 윤리적 측면을 포함한 삶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수형과 현은자(2022)는 백희나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 나타난 판타지가 어린이에게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호러장르로 이의를 제기하며 Vanhoozer의 문화해석방법론으로 ‘뉴에이지 세계관’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린이에게 적합한 장르연구에 탁월한 분석방법론으로 Sendak의 판타지 장르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은자, 이지운(2021)은 Anthony Browne의 그림책 『고릴라』에 나타난 이미지를 분석하여 텍스트의 숨겨진 의도를 통해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전복(subversion)의 성격을 밝혔고, 어린이 텍스트조차 이데올로기에 사용되는 시대에 평론가도 윤리적인 차원에 동참하고 있다며 그들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성을 암시하는 것에 묵고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하게 거론하고 있다. 본 연구도 선행연구에서 거론한 책무성과 결을 같이 한다. Sendak의 그림책을 심리해석으로 분석하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어린이의 성을 가볍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평론가 뿐만 아니라 심리해석에 대한 윤리적 책무성을 지녀야 할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Vanhoozer(2009)의 문화 해석을 분석틀로 하여 어린이 그림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세계의 본질을 알리는 최초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돕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 그림책의 시작이라 일컫는 Maurice Sendak의 그림책 『깊은 밤 부엌에서』를 심리 해석하는 여러 사회적 현상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Maurice Sendak 그림책의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은 어떠한가?

- 1-1. 텍스트 자체 세계는 어떠한가?
- 1-2. 텍스트 뒤의 세계는 어떠한가?
- 1-3. 텍스트 앞의 세계는 어떠한가?
- 1-4.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은 어떠한가?

## II. 텍스트 자체의 세계

### 1. 표지와 속표지 (paratext)

Sendak의 그림책 『깊은 밤 부엌에서』는 1970년 작품이다. 표지는 손으로 그린 포스터와 같이 도심 한복판의 크고 작은 건물과 밤 풍경이 그려져 있다. 그림책의 내용에 따라 그림 양식과 작업 형태를 바꾸는 Sendak은 『깊은 밤 부엌에서』 그림책에 만화(Cartoon)와 팝아트(Pop Art)를 적극 사용하였다(채널예스, 2023).

표지 그림은 주방의 재료들이 건물처럼 크게 그려졌고, 건물 간판은 재료들의 상표임을 알 수 있다. 그 안에 작은 인물을 대조한 형식의 팝아트는 동시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림 양식이다. 당시의 산업사회에서 대량 생산과 소비를 풍자하는 의도로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크게 그려내어 그 존재를 부각시켰다. 대표적인 팝아트 예술가로 Andy Warhol을 꼽을 수 있다. 1963년 Warhol은 ‘팩토리(Factory)’로 명명한 그의 작업실에서 마치 공장의 대량 생산 조립라인(Assembly Line)과 같은 작업 체제를 도입했다. 그가 2년 동안 작업하여 인쇄된 실크스크린 작품만 무려 2000점이 넘었고, 브랜드 신화를 생산해 낸 예술가이면서도 창작과 유통, 소비의 전략을 가졌다(노동법률, 2022). Sendak은 산업사회 중심에서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예술의 배경에서 탄생한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속표지에는 커다란 컵을 머리에 쓴 소년이 손까지 덮는 갈색의 옷을 입고 더 연한 갈색의 비행기를 타고 웃고 있다. 마치 높이 떠 있는 듯 둥근달이 소년의 뒤를 비춰주고 있으며 별들이 길게 이어져 있다. 이후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고, 서지사항이 짧게 있으며, 헌정사 페이지로서 Sendak의 부모 이름인 ‘새디와 필립에게’가 쓰여 있다. 비행기를 탄 소년의 말풍선에 있는 ‘엄마! 아빠!’라는 글이 헌정사의 해석을 더 해 준다. 부모와 관련 깊은 작품이다.

### 2. 그림책의 본문

첫 장의 어둡침침한 배경과 4면 분할에 이어지는 잠에서 깬 소년의 외침은 Sendak이 바라보는 현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어두운 밤이지만, 모든 장면이 밤에 이루어지는 이 그림책에서 다른 장면보다 현실은 어둡고 칙칙하다. 그리고 현실에서 소년은 화가 나 있다. “쿵쿵, 쿵쿵, 툼툼, 툼툼...” 요란한 소리에 깬 미키가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친다. “거기 좀 조용히 해요!” 글자가 매우 크게 적혀 있어 미키가 상당히 화가 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미키는 상들리에가 있는 천장까지 올라간다. 이때 미키는 분명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옷을 입지 않은 나체의 소년이다.

글은 ‘미키는 깜깜한 데로 굴러떨어지면서 옷이 벗겨졌어’라고 쓰여 있다. 배경에는 커다란 벽시계, 커튼, 창문틀, 바닥의 카펫과 같은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당시의 뉴욕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때부터 꿈 또는 환상이라고 보인다. 그 이유는 나체의 소년 미키가 중력에 구애 없이 다른 장소에 가 있기 때문이다.

둥근 보름달이 떠 있고, 커다란 그릇 안의 반죽 속으로 미키가 스르르 들어가고 있다. 배경은 주방 용품이 건물같이 그려져 있고, 미키를 바라보는 세 명의 요리사가 밀가루와 소다, 소금통과 수저를 들고 웃으며 서 있다. 글은 ‘으응? 환한 부엌으로 떨어졌네?’라며 미키가 부엌에 있다는 정보를 준다. 지속적으로 나체의 소년이 나타나고,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다. 환상이 가득한 이 그림책에서 달은 항상 둥근 달로 충만함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나체의 미키는 요리사들에 의해 반죽 속에 잠긴다. 요리사는 미키(Mickey)를 반죽에 넣고, ‘반죽에 밀크(Milk)를! 반죽에 밀크(Milk)를! 저 어라! 주물러라! 만들자! 굽자!’라는 노래를 한다. 요리사는 이윽고 미키가 잠식된 반죽을 오븐에 넣는다. 글은 ‘아저씨들은 반죽을 구우려고 했겠지? 맛있는 미키 빵을 만들려고. And they put that batter up to bake a delicious Mickey-Cake.’라고 번역본과 원문이다. 다소 충격적인 ‘Mickey-Cake’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오븐에 적힌 상표도 ‘Mickey Oven’이다.

다음 장에는 연기가 한창 피어오르는 사이로 미키가 오븐을 열고 나와 반죽을 입은 채로 ‘난 밀크(Milk)가 아니야, 밀크(Milk)는 내가 아냐! 난 미키(Mickey)란 말이야!’라고 말한다. 난처한 요리사의 얼굴이 보인다. 미키는 어느 정도 익은 반죽옷을 입고 새로운 반죽에 뛰어든다. 미키는 반죽을 주먹으로 치고, 치대고, 잡아 뜯어서 비행기 모양을 만들었다. 미키는 반죽 비행기를 타고 날기 시작한다. 빵 가게의 요리사 세 명은 계량컵을 들고 아침 빵을 만들 밀크가 필요하다고 쩡그리며 소리친다. 미키는 ‘왜들 야단이세요? 난 비행기 조종사 미키(Mickey)라구요! 내가 미키웨이(Mickey Way)에서 밀크(Milk)를 구해오겠어요!’라며 날아간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미키는 달을 넘어 날아가고, 달은 점점 아래로 떨어진다. ‘깊은 밤 부엌 안에서 밀키웨이(Milky Way) 꼭대기까지 날아갔지’라고 글이 부연하고 있다. 다른 어떤 재료(건물)보다 큰 우유병은 상표, 장식과 뚜껑이 없이 하얗다. 미키는 우유병 입구 위에 떠 있고, 요리사 셋은 높이 있는 미키를 바라본다.

다음 장면은 4면 분할되어 있는 연속된 그림으로 우유병 안으로 미키가 떨어지면서 나체로 유평하는 장면이다. 글은 ‘우유 배달부 미키는 바닥으로 보웅-곤두박질쳤어. Mickey the Milkman dived down to the bottom. 노래를 하면서. Singing,’ ‘난 밀크 속에 있고, 밀크는 내 속에 있다아 - I’m in the Milk and the Milk’s in me’, ‘밀크에게 축복을 내게도 축복을! God Bless Milk and God Bless Me!’라고 쓰여 있다. 심리학자들의 정신분석에서 이 장면은 소아의 성해방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aviland, 1971; Kloss, 1989; Lanes, 1980). 이 논란은 텍스트의 영향력을 분석



하는 ‘앞의 세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미키는 컵으로 우유를 반죽에 부어 주었고, 요리사들은 빵을 구워낼 수 있게 된다. 이윽고 신난 아저씨들은 노래를 한다. 이때에도 글은 운율(rhyme)을 느끼도록 철자를 Batter(반죽)과 Matter(문제)로 맞추었다. 이러한 운율은 계속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Mickey, Milk와 Mickey way, Milky way이다. 미키가 한참 오븐에 구워지려는 순간도 운율을 맞추었다. ‘of the Steaming, and the Making, and the Smelling, and the Baking’으로 ‘-ing’를 맞추어서 여러 장면에서 시나 노래처럼 느껴지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마지막 장면에는 미키가 다시 어두운 방으로 돌아왔다. 나체의 미키는 침대로 떨어져 이불을 감싸고 웃고 있다. 어느새 잠옷을 입고 있는 미키가 하품을 하며 잠에 빠져든다. 이 장면은 잠에 빠져드는 과정을 4면의 분할된 배경으로 그렸다. 사방이 점점 밝아지며, 아침이 된 것 같다. 마지막 면지의 그림에 미키가 우유병을 들고 서 있다. 글은 ‘우리가 아침마다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그래그래, 다 미키 덕분이야.’라고 쓰여 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 3. 장르와 문학구조 (플롯, 배경, 인물, 주제)

이 작품의 장르(genre)는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로 판타지 장르이다. 현대 그림책에서 정신분석적 해석은 아이들의 상상이 백일몽, 즉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욕구 충족으로서 판타지 기능을 강조한다. 심리해석을 하는 연구자들은 꿈이 현실의 불만족을 해소하는 심리적 장치라는 ‘꿈의 해석’을 발달시킨 Freud의 이론 안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그림책에서 판타지 요소는 소소하게 일반화되어 있다. 어린 꿈이 말을 하고,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모습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말하는 동물은 판타지로 보지 않고 그냥 인물로 볼 정도이다(현은자·김세희, 2007). 주인공인 사람이나 사물이 중력에 구애 없이 날아다니는 이야기는 플롯이나 인물의 설정상 필요할 때도 있다. 판타지는 이야기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림책의 판타지를 어린이의 욕구불만으로 한정 지을 이유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많은 상상력을 제약한다.

문학의 구조 4가지는 플롯, 배경, 인물, 주제이다(Frye, 2000). 이 그림책의 플롯(plot)은 미국의 만화가이자 애니메이터<sup>1)</sup>인 Winsor McCay의 연재만화 『Little Nemo』(1905-14)와 유사하다(Kidd, 2011). 만화의 플롯은 소년의 꿈으로 어린 시절의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미국의 경제 부흥기를 지

1) 애니메이터(Animator)는 빠른 순서대로 여러 이미지를 생성하여 움직이는 동작을 이해할 수 있는 작업자로 예술가들에 속한다. 만화는 네모난 레이아웃 안에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2D(2차원)의 연속된 장면이라면, 애니메이터는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등 3D(3차원)를 가지는 다양한 분야이다.



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자란 어린 Sendak이 느끼고 보았던 상들리에와 인테리어,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의 군복, 공장에서 나오는 많은 가공품들과 식재료, 엄마의 죽음과 화장터의 슬픈 역사적 배경(setting)이 그림책에 유쾌하게 담겨 있는 아이러니를 보인다(Donald, 2000; Joseph, 2000; Kidd, 2011). 따라서 플롯은 어린 미키를 통해 작가의 암흑 같은 어린 시절을 밝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회상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배경은 플롯에 담긴 의미를 보여주듯, 작가가 성장한 시절의 도시와 가정을 보여준다. 주제(theme)는 어린 미키가 꿈의 유영을 통해 우유를 공급해 준 영웅으로서 존재가치를 충족하는 것이다.

등장인물(character)은 요리사 셋과 미키이다. 몇 장면에서 미키가 엄마, 아빠를 언급하지만, 한정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그림책에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 미키는 오이디푸스 갈등을 겪는 4세에서 6세 사이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 어린 유아로 추측된다. 미키가 반죽으로 만든 갈색의 옷은 특이하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복을 연상하게 하고, 비행기를 만들어 날아가는 모습에서 군용기를 떠올리게 한다. 히틀러를 닮은 요리사 셋과 대척점을 이룬다.

### III. 텍스트 뒤의 세계

#### 1. 작가의 성장과정

Sendak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점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그의 부모는 폴란드에서 이민하여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로서 Sendak은 이민자 3세이다. 그는 어린 시절 신나게 뛰어놀거나 웃으며 장난을 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Ludden, 2005). 그 이유는 부모의 친척, 가족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고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슬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로 인해 Sendak은 부모를 미워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를 모면하고자 그는 형제나 아버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이때 들려주던 이야기는 친척들이 유럽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었다고 한다(Ludden, 2005).

Joseph(2000)은 Sendak의 작품이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깊은 밤 부엌에서』에 등장하는 콧수염 난 요리사가 히틀러의 악몽 같은 이미지와 연결되며, 화덕에 아이를 굽는 장면은 유대인 학살을 위한 방과 연결됨을 강조한다. Joseph(2000)에 의하면 Sendak이 나치 수용소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림책을 완성한 것은 1993년 초판이 발행된 『우리는 모두 우울해요. We Are All in the Dumps』라고 한다.

Donald(2000)는 어린이 문학의 공간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적절하게 입증한 것 이상의 효과를 말한다. 그는 작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회상하는 이야기는 어린이 문학에서 배경이 될 수밖에 없기에 Sendak은 홀로코스트를 그림책의 글과 그림에 투영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Sendak의 고통이 그림책에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브루클린에서 가난하게 자란 그에게 형제, 자매의 돌봄과 사랑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항상 있었다고 회상한다. 축적된 문제는 Sendak이 뉴욕에서 혼자 살게 된 10대에 심리적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Sutton, 2003). 그로 인해 오랫동안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유대인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타국을 떠돌면서도 뛰어난 상인으로서 경제력을 쥐거나, 문학가로서 언어 등에 탁월하였으며, 그러한 요소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의 무역에 기여하며 부를 쌓았다. 시민으로서 땅의 소유가 금지된 그들은 상업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Sendak의 부모가 겪은 지인들의 죽음과 슬픔의 홀로코스트 경험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문제였다(류모세, 2010).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유대민족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타국에서 부를 축적하면 다시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스페인, 콜럼버스 항해에 참여한 요직들도 유대인들로 신대륙,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건립에서 그들의 이주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도 3%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류모세, 2010).

그들은 구약의 백성으로 신약을 믿지 않는 대립의 민족이기도 하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개종을 통해 타국에서 흡수될 수 있었으나, 철저히 자신의 유대교 신앙을 믿는 민족이었다. 다시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시온주의’를 가졌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국권을 회복하였고,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까지의 제3차 중동전쟁인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영토를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확고한 독립국이 되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약을 보면 유대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유대민족이 더 탁월하고, 더 선하고, 더 놀랍다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유대민족이 정말 더 거역하고, 더 불순종하고, 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거역하여 쫓락 망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언약을 지키셔서 마침내 구원하셨다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다. 구원의 경험을 담은 구약 성경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은 모든 인간의 예시로서 등장하는 민족일 뿐이다(정현구, 2022). 따라서 Sendak도 선민의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를 더 위로해 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 2. 어린이 문학의 작가 정신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작가 정신(Artistic Spirit)’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활동의 바탕이 된다(네이버사전, 2023). 특별히 어린이 문학에 대한 작가 정신은 어린이를 먼저 생각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학의 한계를 넘어 어린이에게 인간성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참다운 지식인이 되도록 이끄는 의의가 어린이 문학에 있다(최미선, 2022). 어린이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보편적인 어린이 문학의 작가 정신을 토대로 Sendak을 살펴보고자 한다.

Sendak은 가족을 떠나 18세의 어린 나이에 독립하면서 불행했던 어린 시절과 불안한 현재의 마음을 심리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2008년 New York Times와 인터뷰는 그가 죽기 4년 전에 있었다. 그는 십 대에 독립하여 살면서 나타난 불안으로 심리치료를 시작했고 그것은 지속됐다. Sendak은 이때 만난 정신분석가인 Eugene Glynn과 동거하면서 50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2008년 인터뷰에서 고백했다(Patricia, 2008). 그는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서 활동하던 20-30대에 이 사실을 밝히면 자신의 작업에 해가 될 것 같았다(Patricia, 2008)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서 해가 될 것 같아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보면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서 자신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Sendak이 도덕적, 윤리적 예의가 있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예술작품을 했어야 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숨기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좋은 인격,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이해 받기 어려울 지라도 양심에 따라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판단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특히 어린이 그림책 작가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속였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작업을 하는 것일 뿐이기에 그의 작품에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투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린이에게 전해질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의 작품세계는 어린이 그림책보다는 성인의 예술세계에 더 어울린다. 그러나 그는 예술세계보다 상업적으로 진출하기 쉬운 어린이 그림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Sendak의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나체의 어린이 정면 그림에 성인들이 기저귀 그림을 덧칠해야 했고, 어린이가 Sendak의 책을 읽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자녀를 보며 난감해하는 부모의 고민이 있었다. 또 괴물이 나타나는 두려움을 보이는 자녀가 공포를 느끼는 것의 원인이 Sendak의 그림책이라는 부모의 토로가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Sendak의 그림책이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부모, 전문가의 의견이었다(Annunziato, 2014; Bettelheim, 1969)

Sendak의 여러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그의 태도가 어린이를 위한 작가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곳곳에 있다(Ludden, 2005; Sutton, 2003). 2003년 The Horn Book Magazine 인터뷰에서 그는 단호히 자신을 상업 예술가라고 한다(Sutton, 2003). 어린이에 대해 모르지만 자신은 그림책 작업을 하면 행복해지고, 모든 억제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강조한다. 15살 때부터 일을 해야 했던 Sendak은 그림책 작업이 자신이고, 사는 방식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로 상업 예술가로서 그림책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인 것(Sutton, 2003)이라고 했다. Sendak의 처음 시작은 일러스트레이터(상업 예술가)로서 글을 쓰는 다른 작가와 협업하여 그림만을 그렸다. 1958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Wat Do You Say, Dear?』, 1961년 『무엇을 해야 할까요? What Do you Do, Dear?』은 Sesyle Joslin이 글을 썼고, Sendak이 그림을 그렸다.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예절 책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협업으로 여러 작품을 하다가 1956년 『케니의 창문 Keynny's Window』을 처음으로 Sendak이 혼자서 글과 그림을 모두 지었다. 이후 일생 동안 100여 편의 작업을 했으나, 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업을 바라볼 뿐이었다.

2005년 Washington, D.C 라디오 인터뷰에서 Sendak은 스토리 라인 중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는 ‘어린이를 겁주는 것’이라고 웃으면 말한다(Ludden, 2005). 그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며, 심지어 아이들을 위해 글을 쓰는 법을 모른다고 한다. 그림책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아이들에게 좋을까? 넣어야 할까? 아니면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젊은 예술가들이 Sendak에게 그림책 작업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다. 당시 인터뷰어인 Ludden은 Sendak에게 어린이를 위해 글을 쓸 수 없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는가를 되물었다. Sendak은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글을 쓰는 법을 배우러 이곳에 오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지 말라는 인큐버스(incubus)<sup>2</sup>로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있다.”라고 답변했다(Ludden, 2005; 1). 여기서 인큐버스란 악마를 은유한 용어이며, Sendak의 이기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그림책에 무엇을 담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작가적 관점이 들어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그의 느슨한 도덕의식을 엿볼 수 있다.

가치 변별을 중심으로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인 양심이 결여된 작가의 작품은 윤리적일 수 없을 것이다. 정신분석 방법론을 사용한 ‘자유연상’ 드로잉을 아무 가치변별 없이 Sendak은 그림책에 사용했다(Richard, 2008). Sendak은 개인 서신을 통해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를 자신의 3부작이라고 불렀다. 세 그림책에 사용된 밑그림들은 정신분석 방법론에 따라 환자를 위한 무의식 표현의 작업인 ‘자유연상’ 드로잉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정신분석 방법론이란 자유연상을 활용하여 무의식에 잠

2) 인큐버스(incubus)는 여러 신화와 전설상에 등장하는 악마로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된 사고가 의식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문제를 의식화하고 상담을 통해 치료를 해나가는 Freud의 심리치료 방법론이다(김춘경, 2016). 1952년경 Sendak이 24살에 클래식을 들으며 떠오르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그는 ‘판타지 스케치’, ‘의식의 흐름 낙서’, ‘꿈의 그림’ 등 다양한 스케치를 만들었다(Richard, 2008). Sendak은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을 종이에 그려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의식적으로는 한 페이지에 전체 이야기를 완성하였다. 확실한 것은 Sendak이 그림책 판타지에 대해 원시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3부작의 예비 스케치를 추려냈다. 이 스케치는 Sendak의 작업 원본의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로젠바흐 박물관 및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Richard, 2008). 『깊은 밤 부엌에서』에서 미키가 잠에서 깰 때 소란한 이유가 그림책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Sendak의 자유연상 스케치에는 엄마와 아빠가 침대에서 안고 있는 성적인 그림이 그 이야기 연장선에 있었고, 최종 그림책이 나올 때는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그려진 자유연상 그림은 철저히 보안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밀유지 항목이다. 환자의 심리치료 자유연상 스케치 공개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생명윤리법 제3장 인간대상 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 제19조인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에서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률, 2019). Sendak이 이러한 작업을 그림책에 사용하였음을 알면서도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일반화하기에 급급할 뿐이며 Sendak의 연구에 대한 윤리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 3. 어린이 문학과 정신분석

마지막으로 Freud는 『억제, 증상, 불안』에서 유아가 필요한 것으로 인해 긴장이 증가되는 불만족은 불안에서 온다(Freud, 1926; Kloss, 1989)고 이론화하였다. 그러나 Freud의 이론은 방법론적 환원주의와 일반화의 오류라는 한계(이재현, 2021)를 가지고 있다. Kloss(1989)는 엄마가 없을 때 Sendak이 심장마비를 만난 듯, 죽음과 같이 자신을 잃는 상실감을 가지며, 그것은 불안의 원형과 두려움이 된다고 하였다. 엄마와의 이별과 버려진 감정이 Sendak의 초기 불안(어릴 때 갖게 된 불안)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Sutton(2003)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주인공 맥스가 거친 장난을 치는 것은 엄마의 사랑에 대한 불만족에서 생겨난 불안이 원인이며, 미키도 소란에 대한 분노와 불안은 부모와 잠자리에서 소외됨이 근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림책은 Freud의 정신분석으로 심리해석하는 것은 엄마와 자녀만을, 더 나아가 이성의 부모-자녀에 대한 사랑에만 집착하고 해석하여 방법론적으로 환원주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녀의 건강, 성격과 기질, 그 외에도 환경, 타인, 빈부, 등의 외부요인 등에 대한 논의는 모두 빠져있다. 부모요인도 동성부모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으며, 기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짐으로 사랑이 있다 없다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 방법의 가장 큰 전제는 모든 어린이가 불안과 불만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일반화이다. Sendak의 그림책에 많은 불안과 불만족, 두려움과 공포가 숨어 있으며, 어린이의 비합리적 욕구와 관계가 들어 있음에도 일반적인 어린이가 모두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 정신분석은 과거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 심리학자인 의사와 나누는 은밀한 것이다. Sendak이 자유연상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것이 그림책에 담겼다면 그것은 개인의 것으로 소장해야 할 것이다. 결코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일반적인 문학이나 예술작품이 아니다. 오늘날 상담실에서 이러한 자료들은 윤리적인 차원, 정보공개에 입장에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 윤리 차원에서도 개인의 무의식 그림은 어떠한 자료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여부의 동의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다. 즉, Sendak의 그림책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거나, 과거 불만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의 무의식의 발로는 건강하지 않은 양상이다. 따라서 Sendak의 그림들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야 긍정할 것이다. 결코 평범한 모든 어린이가 즐기기엔 적절하지 않다. 오늘날 Kidd(2011)와 같은 쿼이 이론가들이 Sendak의 성공을 부각시키고, 프로이트주의를 주류 심리학으로 칭송하면서, Sendak의 쿼이 성격을 인정하게끔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편향된 주장은 불편한(uncanny) 우울과 불안을 담은 그림책이 등장하며 어린이 그림책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 IV. 텍스트 앞의 세계

### 1. 수상으로 얻은 평판

Sendak이 1963년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발표했을 때 다수의 교육자, 사서, 부모들은 이 그림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책의 그림을 중심으로 상을 수여하는 칼데콧 위너상을 1964년에 받음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Sendak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Sendak이 느끼기에 그 당시 어른들은 자녀가 Sendak의 책을 보지 않기를 원했으며, 어린이들도 정말 싫어하거나, 매우 좋아하는 양극단으로 나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침내 칼데콧에서 수상하였고, 그 이후 사람들은 자녀가 좋아하기를 바라게 되었다고 Sendak은 말한다(Sutton, 2003).

68혁명과 문화혁명이 시작된 1960년에서 2000년까지 이어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탈과학, 탈이성, 탈도덕 등 무신론이 지배적이었다. 이 흐름에 걸맞은 내용을 한 그림책이 바로 Sendak의 저작



들이다. Sendak을 현대 그림책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칼데콧이 지지하는 현대그림책 특성은 오로지 예술성에 있었다.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1964년 칼데콧 위너상으로 메달을 받았고, 1971년 『깊은 밤 부엌에서』가 칼데콧 아너상을, 1982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로 칼데콧 아너상을 한 번 더 받았다. 어린이 문학상으로 위상 높은 칼데콧은 Sendak의 그림책이 좋은 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칼데콧의 선정 기준으로 그림의 비중이 크며, 교훈적인 의도는 배제한다(alsc, 2023)는 점에서 그 내용과 세계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현은자, 김주아, 2019). 일반인들에게 여러 차례의 수상 소식은 Sendak의 그림책과 같이 어린이에게 부적절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지도를 바꾸어 명성을 얻게 하고 그 내용과 세계관을 분별하기 전에 높이 평가하며 신뢰하게 만드는 맹점을 가져왔다.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Sendak은 ‘미국 국가 예술상 (National Medal of Arts)’을 받았다. 이 상은 미국 정부가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賞) 가운데 최고 영예로 꼽히는 상이다.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어주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신문 기사 및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되었다(국민일보, 2016). 시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가로서 합의가 있다.

2003년 스웨덴 정부는 최초의 린드그렌상 수상자로 Sendak을 선정하였다. 수상의 영예는 한화로 6억이 넘는 상금과 함께, Sendak의 파괴적 유아 본성을 아동의 권리로 존중하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일반화하는 데 기여했다. 린드그렌상의 선정 기준은 성인 사회를 공격하는 이데올로기에 있으며, 기존의 관습 및 가치를 전복(subversion) 하는 의미를 가진 이야기에 수여하고 있다(이수형, 현은자, 2022).

## 2. 쿼 성격을 강조하는 사후 명성

Sendak의 사후에는 그를 추모하며, 그의 쿼 성격을 높이는 책들이 등장하고 있다(Kidd, 2011; Moskowitz, 2018). 이 책들은 유대인, 예술가, 어린이, 그림책, 정신분석, 동성에 등을 연결 지어 포장한다. 이것은 창조질서와 세계를 어지럽히는 금지된 행위들을 예술과 심리학이라는 어려운 학문과 이어진 것과 같이 보이게 하며, 가장 순수하고 힘이 없는 어린이의 세계를 침범하여 자신들의 자리로 채운다. Sendak이 어린이를 위하지 않는다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듯이, 이러한 책들의 목적도 어린이를 위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신분석과 아동문학의 교차점을 다룬 Kidd(2011)는 특히 Sendak의 작품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어린이 문학이 트라우마의 발로이고 그 시작은 Sendak이라고 하였지만, Kidd는 쿼어 전문가로서 책을 썼다. 이는 Sendak이 어린이 문학가보다 동성애 예술가인 사실을 높이는 것이다. Kidd는 정신 분석학을 내세운 Sendak의 작품으로 쿼어이론을 일반화하려고 애쓴다. 이는 유대와 기독교에서 분명히 금하는 동성애의 행위를 높이며,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Sendak을 우상화하는 모습이다.

Moskowitz(2018)도 Sendak의 동성애 논란을 유대인 문학이 위대하다는 칭송 속에 하나의 문화로 여기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는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 동성애 어린이 작가로서 그들은 Sendak의 정체성을 규정해 버린다. 유대민족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동성애를 금지하던 민족이었다. 가족을 중심으로 탈무드 교리에 따라 강한 결집력과 신앙심을 보였던 민족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기독교와 대척점을 이루며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다(KRM News, 2020). 그들은 스스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대-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 3. Sendak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 논문들

이 장에서는 Sendak의 『깊은 밤 부엌에서』 작품을 정신분석으로 해석한 논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Freud는 신화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해하고, 어머니인 줄 모르고 아내로 맞은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Freud는 『꿈의 해석』(Freud, 1900)에서 오이디푸스 갈등(Oedipus Complex)이라는 정신분석 이론의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어린 소년이 가지는 삶의 보편적인 단계라고 하며, 이러한 소원은 무의식적일 수 있다고 한다. Freud의 성에 편향적인 정신분석 이론은 다른 학자들과 갈등을 일으킨 주요 문제였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갈등은 그대로 받아들여 그림책을 해석하는 것은 성편향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Sendak 그림책의 정신분석 해석은 엄마에게서 성적 판타지를 소유한 어린 미키라는 것이 주요 내용뿐이며, 다음과 같다. Freud의 정신분석 해석으로 Sendak은 아빠인 동성 부모와 동일시되는 콤플렉스를 그림책의 주인공 아이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Kloss, 1989).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Sendak이 어린이의 성적 취향을 다룬 최초의 작가라고 한다(Kloss, 1989). Sendak이 미키를 통해 나타난 어린이의 성적인 행위를 그리며 찬양 한다(Fretz, 1970; Kloss, 1989). 미키의 유포는 자위의 환상 그림이다(Lanes, 1980). 『깊은 밤 부엌에서』이야기는 부모의 성행위에 대한 미키의 복수이다(Haviland, 1971). Sendak은 많은 성적 주제를 가지거나 코믹하게 폭력적이다(Kidd, 2011). 이와 같이 어린이의 성 해방을 주장하며 어린이 문학인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장면의 해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적인 생각을 일반화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성혁명에 대한 위험을 Gabriele Kuby는 경고한다. 이것은 가정의 근간을 파괴하는 혁명이며,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늘어나 위험하다는 것이다(Kuby, 2018).

부모-자녀 관계는 성이 아니라 애착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Bowlby의 애착 이론은 부모-자녀 관계를 의존과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정도로 해석한다(박경순, 2010). 이 해석은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상태를 알아보는 좋은 기준이 되곤 한다. Sendak의 책이 처음 나온 1960-70년대의 교육자, 학자, 심지어 심리학자들조차도 어린이 그림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들을 보이며 위의 정신분석과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Sendak의 내용은 그림책의 카타르시스가 필요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불안을 줄 수 있다(Cech, 1995).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어준 엄마들이 자녀가 창밖에 나쁜 남자가 있다고 호소한다거나, 그 이후에 괴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걱정이라는 상담을 했다(Bettelheim, 1969). 또한 Sendak의 환상은 어른의 환상이며, 그것은 어린이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어린이의 환상은 어른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성인의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Mallet, 1994). Sendak의 책은 아이의 입장에서 쓰여 있지만, 작가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이다(Bruce, 2009). Sendak의 책이 어린이 문학에 대한 이해보다 아이들의 감각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Sale, 1978), 성에 대한 개념이 비현실적이다(Favat, 1977). Sendak의 책에 어린이는 관심이 없으며 어른이 더 좋아한다(Bruce, 2009). 실제로는 많이 판매되었지만, 어린이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도서 포털 사이트에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깊은 밤 부엌에서』의 도서 구매 후 남기는 크로버 리뷰가 고작 8개뿐이다(Kyobo, 2023).

그러나 이러한 많은 주장들을 뒤로하고,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판매 부수가 2000만 부에 달했고 32개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Charles, 2013). 이런 결과는 유명인들의 추천과 칼테콧상 및 린드그렌상 등의 결과도 있지만, Rollin(2012)은 아동문학과 정신분석의 공생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Kidd가 출판한 『Freud in Oz』 도서의 서평에 “Kidd가 정신분석학과 아동문학이 이익으로 서로 먹고사는 상호 간의 특성을 위해 공통의 관점을 탐구하였다.”(Rollin, 2012; 501)라고 하며, 서로가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며 수익의 관계에 있음을 공공연한 사실로 밝히고 있다.

## V. 텍스트의 세계관과 기독교적 조명

### 1. 텍스트의 세계관

Sendak의 그림책은 심리학에 근거하여 비평이 이어졌고, 오늘날 그림책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그의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세상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불안과 불만에 대한 표출의 장이 되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그러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치중해서 부모를 대하게 가르치는 모델이 된다. Sendak의 작품은 이렇게 자신 위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자아주의 세계관을 가졌다.

‘자아주의’란 인간 본성을 우위로 하는 인본주의가 집착하는 자아에 대한 숭배를 말한다. 그것의 기원은 스탕달의 작품 『에고티즘(egotisme)의 회상』에서 사용한 것으로, 오로지 자신의 발달과 안녕을 추구하는 자기 숭배적 태도를 의미한다. 영어의 에고티즘(egotism)은 이기주의와 동일하게 쓰이지만, 의미는 조금 다르다. 이기주의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라면, 자아주의는 자기에 관한 것만 말하고 집중하며 타인에 대해 공감이나 이해가 없는 자만을 의미한다(철학사전, 2009). 그림책의 기능이 역할 모델(role model)<sup>3</sup>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Sendak의 작품은 어린이에게 어떤 모습을 따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뉴욕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Paul Vitz는 자아주의 세계관이 심리학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적했다(Vitz, 2010). 그는 30년 가까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로 회심한 저명한 심리학자이다. 그는 심리학의 결과로 떠오른 자아숭배와 인본주의를 다룬 심리학 비평에서인 『신이 된 심리학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Worship』(2010)을 썼다. Vitz는 Carl Jung의 집단 무의식이 종교적 영성과 연결된 용 심리학의 마지막 과제가 자기실현이라고 보았다. 또 Vitz는 Erich Fromm의 심리학은 인본주의 최고의 가치가 자아에 대한 긍정뿐이며, 신본주의인 기독교에 강한 적대감을 보인다고 했다. Fromm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인본주의적 공산 사회주의라는 것을 『건전한 사회 The Sane Society』(1996)에서 드러내고 있다. ‘인본주의’란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사상으로 오직 인간성(humanity)만이 존귀하다는 실증주의적 인간성 숭배의 사상이다(서울대학교육연구소, 1995).

인본주의 교육철학을 주장하는 John Dewey의 사상은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담자 중심

3) 역할모델(role model)이란 사람의 특정한 사회적 역할의 실행에서 드러나고 지지되는 적절한 가치, 태도, 행동들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람은 타인과 같은 역할의 수행 속에서 모델 대상을 닮으려고 시도하며 그 모델과 동일시한다. (출처: 사회학사전. 고영복. 2000)

상담을 외친 Carl Rogers는 Dewey의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내담자 중심 요법’ 기술로 자아, 즉 자신의 감정에 더욱 천착하는 작업을 주장한다. 본인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다면,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부모, 아내나 남편이어도 옳지 않다.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이 중심에 있다. 가족의 희생을 더 강조할 뿐이며 양보와 인내는 타인의 몫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Scott Peck은 심리치료를 통하여 드러난 인간의 악에 대한 본질을 증언한다. 그는 타인에게 죄를 묻는 진단에 능하지만 치료에 확신이 없는 심리치료이기에 치료의 여정이 쉽지 않으며, 다만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 증언할 뿐(Peck, 2007)이라고 하였다.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하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 이를 지지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자아이다(이수진, 2019). 심리학 이론가들은 자아를 중시하여 해석하고, 사람들은 자기 위주 편향의 나르시시즘을 만들게 되었다(Morf, Horvath & Torchetti, 2011). 그들은 자존감이 부족한 것을 사회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되었다. Vitz(2010)는 현재 미국인의 파괴적인 행동과 악은 ‘낮은 자존감’을 핑계로 묵인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회사에 매일 지각해서 해고를 당한 A는 자신이 ‘우울증’으로 행동이 느려진 것이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복직했다. 이 우울증은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되어 버렸다. 지각은 규율을 어기는 것의 문제이지 개인의 낮은 자존감 문제가 아님에도 타인과 다른 핸디캡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율의 무너짐은 모든 사람이 가정의 문제, 우울증, 낮은 자존감 등에 더 집착하도록 만들어 버렸다(Vitz, 2010).

오늘날 가족에서 분리된 개인을 Vitz(2010)는 자아주의에서 원인을 찾았다.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특성을 가진 공동체의 근본이기에 개인을 우선시하는 성격과는 상반된다. Vitz는 “자아주의의 개념과 가치가 영구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혹은 의무, 인내, 자기희생처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가치들과도 별 관계가 없다.”(Vitz, 2010; 109)라고 했다. 이로 인해 자아주의는 이혼과 결별, 결혼이나 가족 관계를 해체하는 가치를 옹호하기 때문에 가족의 붕괴에 크게 기여했다. Vitz(2010)는 자아주의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많은 사건들을 사회 문제로 돌리는 한편, 사회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려 함을 지적한다. 현대사회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특징짓는 대인관계를 보면 어린 시절 자신을 공격하는 반향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Vitz, 2010). 그들은 더 나아가 가족을 이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책임감이나 관계에서 가볍고 일회적이 되며 결국 고독과 우울만이 남아 진정한 인간됨을 상실한다. 그 충족을 위하여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게 하는 소비 철학이 증가되었고, 그 소비는 구체적으로 여행, 음식, 패션에 관련한 것들이다. Vitz(2010)는 이것을 자기 탐닉



의 쾌락(douceurs)으로 보았다.

이처럼 인간을 우위에 두는 인본주의 사상들을 통해 자아는 어느새 신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것은 우상숭배로서 자아주의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단절, 우울, 자존감의 하락 등으로 이어진다. 인간됨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어린이 그림책에 나타나는 심리학자들의 정신분석적 해석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게 한다. Sendak이 그림책 작업에 해가 될까봐 자신의 동성에 사실을 숨겼다면 그것은 극도의 이기주의로서 자신의 자아만을 보호한 것이다.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서 자신은 어린이에게 관심도 없으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Sendak의 작가 정신은 자아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아주의는 건강한 방식의 어린이 문학을 만들 수 없다. Wilkens와 Senford(2009)는 현대 사회 속에 혼재되어 있는 세계관들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작동되고 있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이 우리의 문화와 일상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고 한다. Sendak의 그림책에는 예외와 격식을 무시하는 어린이가 등장한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맥스는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라고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어린 소년이며, 『깊은 밤 부엌에서』는 잠에서 깬 미키가 “거기 좀 조용히 해요”라고 소리를 친다. 맥스는 집 안에서 포크를 들고 개를 쫓아다니며 계단을 뛰어내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불을 줄에 걸치고 지저분한 영역을 만든다. 나체로 유평하는 미키는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우유 통에 들어가 우유를 가져온다. 맥스는 현실이고 미키는 상상의 어느 지점일 수 있지만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행동이다. 자신의 욕구를 바람직하게 해소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신중한 태도를 알아가야 하는 시기가 어린 시절이다. 즉, 어린이들이 자제력과 예의, 인내심과 같은 좋은 가치를 배울 기회를 지나쳐 버리고, 장난으로 해소하는 것을 배우게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욕구 충족에 집중한다면,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욱 자아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은 어린이가 자아의 욕구 해소에 집중한 그림책을 보고 자라는 사이에 어떠한 자아가 무의식 속에서 형성될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책의 예술영역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주요 독자 대상이 어린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림책 작가로서 어린이 독자들에게 대한 사랑이 배제된 Sendak의 '자아주의 작가정신'에 대하여 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 2. 기독교적 조명

우리는 심리학의 정신분석적 해석을 곁들인 그림책을 살펴보면서 자아가 우상이 되어버린 자아주의 세계관을 알아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이러한 원인들은



‘인간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던 과거와 달리 인간 자신의 감정에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하심처럼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영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셨다(김기철, 2013). 이러한 신분주의를 잃어버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가 개인의 자아를 중요하게 만든 심리학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들 중에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기독교로 회심한 학자들도 있다. Vitz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철저한 무신론적 심리학자로 경력을 쌓아가다가 30대 후반에 기독교로 회심하였다. 그는 전문가적인 학문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 및 심리학 개념 비평으로 유명하다. 그는 뉴욕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자아주의에 관한 저서를 다수 출판했다(kyobo, 2023). Jordan Peterson은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고, 현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며 『질서 너머』, 『의미의 지도』, 『12가지 인생의 법칙』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한 200만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Peterson은 무기력하고 우울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심리학 이야기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으며, 무신론자였고 심지어 회의론자였다. 그러나 2017년에 기독교로 회심하였다(크리스천투데이, 2023). 그는 성경과 기독교 가치가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

Erikson은 심리사회적 자아발달을 미성년기의 자아발달과 성인기의 자아발달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발달은 대체로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성인들 내지 사회집단과의 자기동일시(self-identification)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성인기의 자아발달은 주로 자기헌신(self-commitment)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Erikson의 관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위한 존재(being for others)’라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일치하는 것이다(이재현, 2019; 481). Erikson의 이론에서 종교의 성격은 인성발달의 초석을 만들어 주며, 출생 직후부터 신앙은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안신, 2008). 그는 신뢰를 제공하는 부모처럼, 종교라는 제도는 믿음을 제공하고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Sendak의 그림책에 나타난 미키는 옷을 입지 않은 펼침면이 7장이며, 만화의 카툰형식으로 한 장에 여러 미키가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전체적으로 14번 벗은 몸의 미키가 등장한다. 작가 Sendak은 미키를 보호하거나 그의 인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작가가 미키를 사랑했다면, 멋진 수트(suit)를 입혀주었을 것이다. 미키를 오븐에 넣어 굽는 장면 역시 미키의 생명을 가버이 여기는 모습이다. 그림에도 미키는 반죽을 박차고 나아가 스스로 만든 비행기를 타고 우유 통으로 향한다. 그가 우유를 구했기에 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영웅의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 Sendak은 어린 시절

자신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미키라는 어린 인물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고자 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신의 고통에 천착한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없다. 그것은 창조한 세상에서 타락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쓰여 있다. 성경은 어린 아이의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알라고 설명한다. 고린도전서에서 온전한 것은 믿음,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임을 알게 되는 맥락을 담고 있다. Sendak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그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으로 들어감은 성경의 말씀을 지침삼아 자신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Sendak이 기독교세계관으로 회복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구속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고통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 무한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아심리학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나와 이웃에 대한 태도와 사랑은 다르다.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서 말씀하신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다. 가장 먼저 자신도 이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그다음, 스스로를 향해 있는 사랑의 감정을 밖으로 돌려 이웃을 사랑함으로 관계에서 오는 정을 느끼라고 한다. 기독교는 그렇게 연결(관계)의 신앙이며, 따뜻함을 지닌다. 오늘날 심리학의 결과들과 반대 지점이며, 기독교는 인간됨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한다. 심리학이 기독교의 창조-타락-구속의 세계관에서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구속된 삶, 구원의 길로 가야 한다.

## VI. 결론

대부분의 연구가들이 현대 창작 그림책의 시초를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1963)로 언급한다. 그들은 그림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유아의 격하고 흥분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아이다움을 발산했다고 한다. Sendak의 그림책은 어떠한 해야 한다는 관념을 깨뜨린 동시에 파괴성을 보임으로써 솔직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마치 서구사회가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을 우위에 두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Vanhoozer(2007)의 텍스트 자체, 뒤, 앞의 세계 분석에 따라 Sendak의 그림책 『깊은 밤 부엌에서』를 분석한 결과는 심리학

에 근거한 정신분석적 해석들이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Sendak 자신이 해소하고 싶은 어린 시절의 대리만족으로써 성인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Sendak이 청소년기에 심리치료를 받았을 때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그려낸 드로잉이 그림책의 기초 되었으며, 그의 작가 정신은 상업성이 강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 태도로 어린이를 위하지 않았다. Sendak은 자신의 자아에만 천착한 자아주의 세계관을 가지며, 이는 인본주의가 바탕을 이루어 오늘날 심리학에서 형성한 세계관이다. 인간 본성을 우위에 두는 인본주의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아주의를 통해 오늘날 외로운 사회와 개인을 양산하였다.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아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아주의가 어린이에게 어떠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 부모와 교사, 사서 등의 독자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Sendak을 포장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경향이 Sendak의 작품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Sendak의 그림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Bruce, 2009). 부모가 칼데콧 메달이 금박으로 입혀진 표지를 보거나, 32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판매 부수가 있다는 출판사의 광고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로 이해할 수 없고 개인과 그를 둘러싸여 얹혀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endak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으로 태어나 겪었던 어린 시절의 복잡다단한 환경을 고려할 때 연민의 정과 함께 그의 심리적 고뇌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의 그림에 대한 예술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작가로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이나 그들에 대한 사랑 없이 만들어진 자아주의적인 작품을 유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어린 유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흥행하는 것과 달리 실제 텍스트의 문화해석은 어린이를 위해 필요하기에 차후 텍스트 비평이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나라 (2023). **만3세 유아의 그림책 읽기를 통한 언어발달의 변화 탐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Kang, N. L. (2023). *Examining Changes in Language Development of 3-year-olds Through Reading Picture Books*. Masters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권나라 (2008). **어린이용 판타지 그림책에 구현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모리스 센닥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 [Kwon, N. L. (2008). *A Semiotic Study on the Illustrations embodied in the Fantasy Picture Books for Children - Focused on [Where The Wild Things Are] By Maurice Sendak*. Masters Dissertation, Deajin University, Pocheon, Korea.]
- 구복숙 (2003).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이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 지각운동,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Ku, B. S. (2003). *The Effects of Integrated Play Activity Using Picture-Books on Infant's Creative Physical Expression·Perceptual Motor·Language 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Joongbu University, Geumsan, Korea.]
- 김기철 (2013). **놀이로 구현되는 하나님 형상**. 신학사상, -(160). 75-108.
- [Kim, G. C. (2013). *Imaging God of Play. Theological Thought*. -(160). 75-108]
- 김병익 역(1999). **건전한 사회**. Fromm, E. (1996). *The Sane Society*. Holt, Rinehart & Winston. 서울: 범우사상신서.
- [Kim, B. I (1999). *A Healthy Society*. Seoul: Bumwoosasanginsue. Trans. Fromm. E. (1996). *The Sane Society*. Holt, Rinehart & Winston.]
- 김병희·김유라 (2013). 세계 최초의 그림책 『세계도회』에 나타난 언어교육론 고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95-112
- [Kim, B. H. & Kim Y. R. (2013). A Study of 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 on the World's First Picture Book, *Orbis Pictus*.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14(3), 95-112.]
- 김애용 (2000). **모리스 센닥의 그림책에 나타난 환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Kim, A. Y. (2000). *A Study on Fantastic Expression in Maurice Sendak's Picture Books*.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용용 (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Kim, C. K., Lee, S. Y., Lee, U. J., Jaung, J. J. & Choi, U. Y. (2016). *A Dictionary Of Counseling*.

Seoul: Hakjisa.]

- 김현주 (2022). **그림책 관련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1983-2020년 석.박사학위 논문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Kim, H. J. (2022).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apers related to picture books in Korea. - Focusing on the thesis of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apers in Korea from 1983 to 2020*.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나현규 (2021).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Orbis Pictus) 구조를 통해 본 교육적 의미 연구. **교육철학연구**. 43(1). 23-46.
- [Na, H. K. (2021) A study on the meaning of education through the structure of Comenius's Orbis Pictus.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3(1). 23-46.]
- 남규 (2009). **교사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영아의 언어발달 비교**.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Nam, G.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oddler's Language Development by teacher's Interaction Type during Picturebook Reading*.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노서운 (2019). **그림책을 활용한 실외놀이 활동이 만 2세반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 [Noh, S. W. (2019). *The influence of outdoor play activities with picture books on two year olds' prosocial behavior & language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G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Korea.]
- 류모세 (2010). **유대인 바로보기**. 서울: 두란노.
- [Ryu, M. S. (2010). *A direct view of the Jewish People*. Seoul: Durano.]
- 박경순 (2010). 존 보울비(John Bowlby)와 애착이론.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1). 109-119.
- [Park, K. S. (2010).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2(1). 109-119.]
- 박옥주·이종원 역 (2017). **복음주의 신학사 개관**. Olson, R. E. (2007). *Pocket History of Evangelical Theology*.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 [Park, U. J. & Lee, J. W. (2017). *Overview of Evangelical Theological History*. Seoul: Chistiantoday. Trans. Olson, R. E. (2007). *Pocket History of Evangelical Theology*. Westmont: IVP Academic.]
- 법률 (20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372호, 2019. 4. 23., 일부개정.

- [Act. (2019). *Act on Bioethics and Safety*. No.16372. 2019. 4. 23., Partical Revision.]
- 서울대학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995). *A Dictionary of Pedagogical Terms*. Seoul: Howdongsul.]
- 송은정 역 (2017). **C. S. 루이스의 순전한 교육: 시민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교양**. Pike, M. A. (2013). *Mere Education: C. S. Lewis as Teacher for our Time*. 서울: IVP.
- [Song, E. J. (2017). *C. S. Lewis's Mere Education: The Cultivation of Christians Living in Civil Society*. Seoul: IVP. Trans. Pike, M. A. (2013) *Mere Education: C. S. Lewis as Teacher for our Time*. Cambridge: Lutterworth Press.]
- 안신 (2008). 에릭 에릭슨의 종교심리학에 대한 연구 - 발달이론과 종교이론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14). 179-196.
- [Ahn, S. (2008). A Study on Erik Erikson's Psychology of Religion: Theories of Development and Religion. *Religion and Culture*. -(14). 179-196.]
- 안종희 역 (2013). **은밀한 세계관: 우리를 조종하는 8가지 이야기**. Wilkens, S. & Sanford. M. (2009). *Hidden Worldviews: Eight cultural Stories That Shape Our Lives*. 서울: IVP.
- [Han, J. H. (2013). *A secret worldview: The Eight Stories That Manipulate Us*. Seoul: IVP. Trans. Wilkens. S. & Sanford. M. (2009). *Hidden Worldviews: Eight cultural Stories That Shape Our Lives*. IL: IVP Academic.]
- 윤석인 역 (2009). **문화신학**. Vanhoozer, K., Anderson, C. A. & Slea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서울: 부흥과개혁사.
- [Yoon, S. I. (2009). *Cultural Theology*. Seoul: History of revival and reform. Trans. Vanhoozer, K., Anderson, C. A. & Slea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How to Read Cultural Texts and Interpret Trends (Cultural Exegesis)*. MI: Baker Academic.]
- 윤종석 역 (2007). **스캇 펙의 거짓의 사람들**. Peck, M. S. (1998). *People of the Lie: The Hope for Healing Human Evil*. 서울: 비전과 리더십.
- [Yoon, J. S. (2007). *Scott Peck's People of the Lie*. Seoul: Vision & Leadership. Trans. Peck, M. S. (1998). *People of the Lie: The Hope for Healing Human Evil*. Touchstone.]
- 이수진. (2019) 라캉의 나르시시즘 개념 고찰의 정신분석 실천적 의미. **현대정신분석**. 21(2). 77-112.
- [Lee, S. J. (2019). A Study of the Meaning of Psychoanalytic Practice about the Consideration of Lacan's Concept of Narcissism. *Th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analysis*. 21(2). 77-112.]
- 이수형·현은자 (2022a).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수상 그림책의 세계관 분석. **어린이문학교육 학회**. 23(2). 201-227.



- [Lee, S. H. & Hyun, E. J. (2022).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Winning Picturebook's Worldview Analysis*.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23(2). 201-207.]
- 이수형·현은자. (2022b). 뉴에이지 그림책의 기독교 세계관 조명. **신앙과 학문**. 27(2). 105-135.
- [Lee, S. H. & Hyun, E. J. (2022). An Analytic study of New Age Picturebook within Christian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27(2). 105-135.]
- 이재현 (2020). **성경 속의 심리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 [LEE, J. H. (2020). *Bible & Psychology*.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이재현 (2021). **뒤집어 읽는 심리학**. 서울: CLC]
- [Lee, J. H. (2021). *Psychology of reading in reverse*. Seoul: CLC]
- 이화진 (2011). **그림책 읽기 후속활동이 영아의 언어 및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Lee, H. J. (2011) *The Influence of Follow-up Activities after Reading Picture Books on Languag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Masters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 임철규 역 (2000). **비평의 해부**. Frye, N. (1967). *Anatomy of Criticism*. 파주: 한길사.
- [Lim, C. K. (2000). *Anatomy of Criticism*. Paju: Hangilsa. Trans. Frye, N. (1967).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장혜영 역 (2010). **신이 된 심리학**. Vitz, P. (1995). **Psychology as Religion**. 서울: 새물결플러스.
- [Jang, H. Y. (2010). *Godly Psychology*. Seoul: New wave plus. Trans. Vitz, P. (1995).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Worship*.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정주원 (2005). **그림책을 활용한 상위언어인식 활동이 유아의 상위언어인식, 읽기능력, 마음이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Jung, J. W. (2005). *The Influence of Metalinguistic Awareness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Metalinguistic Awareness, Reading Ability and Theory of Min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현구 (2022). **“끝남(Ending) 과 이어짐(Anding)”: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서울영동교회.
- [Jang, H. G. (2022). *“Ending and Anding” - Jesus, where the road ends, becomes the road*. Seoul: Seoul Yeongdong Church]
- 정소영 역 (2018). **글로벌 성혁명**. Kuby, G. (2012). *The Global Sexual Revolution*. 서울: 밝은 생각.
- [Jang, S. Y. (2018). *The Global Sexual Revolution*. Seoul: Bright think. Trans. Kuby, G. (2012). *The*

- Global Sexual Revolution. NY: Angelico Press.]
- 최미선 (2022). [작가론] 마모되지 않는 동화 창작 펜. **아동문학평론사**. 47(4). 88-97.
- [Choi, M. S. (2022). [The Theory of Writers] A Non-Abrasive Fairy Tale Pen. *The Society for Korean Children's Literature*. 47(4). 88-97]
- 홍승기 역 (2004). **루이스 vs 프로이트**. Nicholi, A. (2002) *The Question of God*. 서울: 홍성사.
- [Hong, S. K. (2004). *Lewis vs Freud*. Seoul: Hongsungsa. Trans. Nicholi, A. (2002). *The Question of God: C.S. Lewis and Sigmund Freud Debate God, Love, Sex, and the Meaning of Life*. NY: FREE PRESS.]
- 현은자 (2022). 세계 최초의 그림책, 『세계도회』의 그림 읽기. **그림책 베이직**. 4. 3-10.
- [Hyun, E. J. (2022). *Reading Pictures from the World's First Picture Book 『Orbis Pictus』*. *Picturebook Basic*. 4. 3-10.]
- 현은자·김세희. (2007). **그림책의 이해 1**. 파주: 사계절.
- [Hyun, E. J. & Kim, S. H. (2007). *Looking at picturebooks*. 1. Paju: Sakejul]
- 현은자·김주아 (2019).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텝토의 빛나는 아이(2016)해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41-73.
- [Hyun, E. J. & Kim, Jua. (2019). Interpretation of Javaka Steptoe's <Radiant Child> (2016) based on Vanhoozer's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20(2). 41-73.]
- 현은자·이지운 (2021). Anthony Browne의 『고릴라』에 그려진 전복(subversion)의 이미지,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2(1), 1-25.
- [Hyun, E. J. & Lee, J. U. (2021). The Images of Subversion in Anthony Browne's 『Gorilla』.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22(1), 1-25.]
- 현은자·정희영·황보영란 역 (2001).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 Albert, E. G. Jr. (1998). *Ra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서울: CUP.
- [Hyun, E. J., Jung, H. Y. & Hwangbo, Y. R. (2001). *Teaching with A Christian Worldview*. Trans. Albert, E. G. Jr. (1998). *Ra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Colorado: ACSL.]
- Annunziato, S. (2014). A Child's Eye View of Where the Wild Things Are: Lessons from Spike Jonze's Film Adaptation of Maurice Sendak's Picture Book.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8(3). 253-266.
- Beckett, S. L. (2012). *Crossover Literature: A genre for all ages*. New York: Routledge.
- Bettelheim, B. (1969). The care and feeding of monsters. *Ladies Home Journal*, 48.

- Bruce (2009) Where the Wild Things Weren't. New York Times Book Review; Oct 11, 2009; pg. 23.
- Cech, J. (1995) *Angels and wild things: The archetypal poetics of Maurice Sendak*.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Charles, R. (2013). 'Where the Wild Things Are' turns 50. *The Washington Ps: Arts and Entertainment*. November 22, 2013.
- Donald, H. (2000). Children. War, and the Imaginative Space of Fairy Tales. *The Lion and the Unicorn; Baltimore*. 24(3) 360-377.
- Favat, F. (1977). *Child and Tale: The Origins of Interest*.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SE, 4-5.
- Freud, S. (1926).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재인용 Kloss, R. J. (1989). Fantasy and fear in the work of Maurice Sendak. *Psychoanalytic Review*, 76(4). 567-576.
- Fretz, S. (1970). Library Journal. 95. 4341. 재인용 Kloss, R. J. (1989). Fantasy and fear in the work of Maurice Sendak. *Psychoanalytic Review*, 76(4). 567-576.
- Haviland, V. (1971). Questions to an Artist Who is Also an Author. *Quarterly Journal of the Library of Congress*, 28:4.
- Joseph, S. (2000). Maurice Sendak's urban landscapes. *Children's Literature; Baltimore*, 28(0), 132-146.
- Kidd, K. B. (2011). *Freud in Oz: At the Intersections of Psychoanalysis and Children's Liter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loss, R. J. (1989). Fantasy and fear in the work of Maurice Sendak. *Psychoanalytic Review*, 76(4). 567-576.
- Lanes, S. (1980). *The Art of Maurice Sendak*. New York: Abrams.
- Ludden, J. (2005). Interview: Maurice Sendak discusses his work. *Weekend All Things Considered: Washington, D. C. : NPR*
- Mallet, C. (1994). *Fairytales and Children: The Psychology of Children Revealed Through Four of Grimm's Fairy Tales*. New York: Abrams.
- Meibauer, B. K. (2017). *From baby books to picturebooks for adults: European picturebooks in the new millennium*. World & Image.
- Morf, C. C., Horvath, S. & Torchetti, L. (2011). Narcissistic self-enhancement. In Alicke, M. D. & Sedikides, C. (Ed) (2011). *Handbook of self-enhancement*. 399-424. New York, NY:

Guilford Press.

Moskowitz, G. (2018). *Wild Outside in the Night: Maurice Sendak, Queer American Jewishness, and the Child*. ProQuest.

Patricia, C. (2008). Concerns Beyond Just [Where the Wild Things Are]: *The Art/Cultural Desk*. *New York Times*. Late Edition 10. Sep: E 1.

Reed, M. D. (1986). The Female Oedipal Complex in Maurice Sendak's [Outside Over There]. *Children Literature Association Quarterly*. 11(4). 176-180.

Richard, M. (2008). Maurice Sendak's Trilogy: Disappointment, Fury, and Their Transformation through Art Gottlieb.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New Haven* 63(0). 186-217.

Rollin, L. (2012). Freud in Oz: At the Intersections of Psychoanalysis and children's Literature (review).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Quarterly*, 37(4) 500-502. p.501.

Sale, R. (1978). *Fairytales and Children*. New York: Schocken.

Sutton, R. (2003). An Interview with Maurice Sendak. *The Horn Book Magazine*. November/December. 687-699.

국민일보(2016) “부활절 행사서 마지막 동화 구연하는 버락 오바마 부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91281&code=61221111&cp=nv>(검색일 2023.01.20.)

[Kukminibo (2016) Barack Obama and his wife narrate their last fairy tale at Easte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91281&code=61221111&cp=nv>(2023.01.20.)]

네이버사전 (2023) 작가정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76cc5b4c43c41e48986677a10d7374b> (검색일 2023.06.06.)

[NAVER Dictionary (2023) Writer's Spirit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76cc5b4c43c41e48986677a10d7374b> (2023.06.06.)]

노동법률 (2022) “앤디 워홀의 ‘팩토리(Factory)’와 팝아트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9&in\\_cate2=0&gopage=1&bi\\_pidx=34649](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9&in_cate2=0&gopage=1&bi_pidx=34649) (검색일 2023.01.22)

[Laborlaw (2022) “Andy Warhol's Factory and Pop Art”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9&in\\_cate2=0&gopage=1&bi\\_pidx=34649](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9&in_cate2=0&gopage=1&bi_pidx=34649) (2023.01.22.)]

생명과학대사전 NAVER 지식백과 (2008) “정신분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93749&cid=60261&categoryId=60261>(검색일

2022.06.29.)

[Bioscience dictionary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08) “Psychoanalyse” Retried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93749&cid=60261&categoryId=60261> (2022.06.29.)]

철학사전 NAVER 지식백과 (2009). “에코티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88290&cid=41978&categoryId=41985> (검색일 2023.01.20.)

[Dictionary of Philosophy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09). “égotism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88290&cid=41978&categoryId=41985> (2023.01.20.)]

채널예스 (일자미상). “고립과 고독이 키운 예술가, 모리스 샌닥.”

<http://ch.yes24.com/Article/View/13158>(검색일 2023.01.20.)

[ChannelYes (Unknown date) “Maurice Sendak, Artist Raised by Isolation and Solitude” Retried from <http://ch.yes24.com/Article/View/13158>(2023.01.20.)]

크리스천투데이 (2023). 조던 피터슨 교수는 어떻게 회심했을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9188> (검색일 2023.06.06.)

[Christiantoday (2023) How did Professor Jordan Peterson Repent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9188> (2023.06.06.)]

ALMA (일자미상). 모리스 샌닥. <https://alma.se/en/laureates/maurice-sendak/>(검색일 2023.06.06.)

[ALMA (Unknown data). Maurice Sendak <https://alma.se/en/laureates/maurice-sendak/> (2023.06.06.)]

alsc (일자미상). “랜돌프 칼데콧 메달” <https://www.ala.org/alsc/awardsgrants/bookmedia/caldecott>(검색일 2023.01.20.)

[alsc (Unknown date). “Randolph Caldecott Medal” <https://www.ala.org/alsc/awardsgrants/bookmedia/caldecott> (2023.01.20.)]

Kyobo, (일자미상). “깊은 밤 부엌에서”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0734525> (검색일 2023.01.20.)

[Kyobo. (Unknown data). “In the Night Kitchen”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0734525> (2023.01.20.)]

kyobo. (일자미상) 인물검색> 폴 비츠 <https://www.kyobobook.co.kr/service/profile/information?chrcCode=2001660201> 검색일 2023.06.06.)]

[kyobo. (Unknown data) Paul Vitz <https://www.kyobobook.co.kr/service/profile/information?chrcCode=2001660201> (2023.06.06.)]

KRMNews (2020). “이스라엘 동성애 실태” <https://krmnews.tv/2020/06/25/israel-lgbt/> (검색일 2022 06.29)

[KRMNews (2020). “Israel’s Homosexuality” <https://krmnews.tv/2020/06/25/israel-lgbt/> (2022.06.29.)]



# 모리스 센닥 그림책의 심리 해석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조명 - Vanhoozer의 문화 해석 관점을 중심으로\*

An Analytic Study of Christian Worldview about Maurice Sendak  
Picturebook within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Interpretation of Vanhoozer

이수형 (안산대학교)

박은주 (경민대학교/교신저자)

## ABSTRACT

그림책의 시작은 『세계도회』로서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대 그림책의 의미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격하고 흥분된 감정을 드러내며 아이다움을 발산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연구자들은 변화의 기점을 모리스 센닥의 그림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벤후저(2007)의 문화해석학 방법론에 따라 텍스트 분석과 함께 기독교적 조명을 실시하였다.

『깊은 밤 부엌에서』 그림책의 텍스트 자체 세계에서는 미국의 산업시대를 풍미하며, 판타지 장르로서 정신분석적 해석에 따라 어린이가 백일몽을 이루는 욕구 충족이 나타났다. 텍스트 뒤의 세계에서 그는 유대인 이민자 3세로서, 십대에 독립하면서 가진 불안으로 심리상담을 지속해왔었다. 그는 작가로서 비윤리적이며, 어린이를 생각하지 않는 작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텍스트 앞의 세계에서 연구자들은 센닥의 그림책은 어린이보다 성인의 감정해소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진보적인 사상가들이 그의 작품을 극찬하였다.

텍스트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으로 텍스트는 자아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및 심리학의 영향이 우리 사회의 자아주의를 더욱 양산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신학적 문화해석학, 기독교적 조명, 정신분석, 자아주의

##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6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에서 인용 출처는 APA 방식으로 표시하며, 본문 내 직접 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 문헌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하고, 한글 참고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명, 문헌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여백 30으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⑥ 저자가 2인일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 Lee, 2008: 20)

⑦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⑧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이윤리, 2007b: 27)

⑨ 영문으로 된 원서의 한글 번역서일 경우 (원저자의 성, 번역자의 성명, 번역서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한다. (Volf, 김철학 역, 2010: 12), (Volf, 김철학·이희계 역, 2010: 12), (Volf, 김철학 외 역, 2010: 12)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은 영문으로 하고 내용은 한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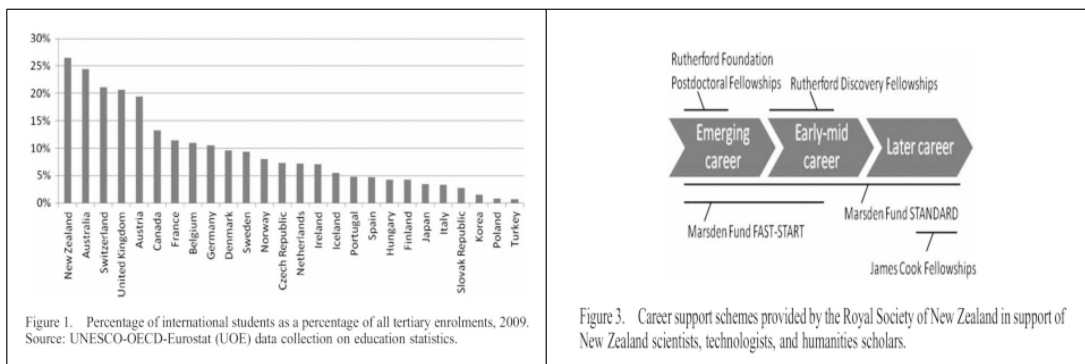
##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  $p < .01$

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논문:

Todd, S. & Haydon, G.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③ 번역서:

Meargham, P., Weimer, D. & Vining A.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Kim, J. S. & Kwon J. S.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

- 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

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장 후속 조치

####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김홍섭 (인천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박해일 (경희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김동혁 (연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송재일 (명지대학교)  
           신응철 (송실대학교)  
           안소영 (경상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1호 (통권 94호), 2023년 3월호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환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